



9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9호

(루계 515)



◆◆◆◆◆◆◆◆◆◆ 차 례 ◆◆◆◆◆◆◆◆◆◆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	4
오, 내 조국	7
조국의 노래를 새겨들으며	8
밝고 빛나는 영상을	9
먼 나라의 하늘밑에서	11
아뢰고싶은 대답	12
백두의 깊은 수림속에	13
대탕지의 전설	14
간석지의 봄	19
왕재산의 새마을은 북변의 리상촌	27
대학시절, 청춘시절	28
내 조국이 빛나는것은 (외1편)	31
옛말하며 걸어가자	32
평양을 위하여	33
북방의 봄	34
오늘의 이야기	44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과 전사-영웅들의 빛나는 형상	45

고향의 푸른 물가에서	49
스승의 모습	50
교육자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요구에 대한 생각	58
조선국수	60
추억깊은 병사시절	61
충신강	62
저 아이들을 보라	64
다시 찾는 길우에서	65
해빛 아롱진 창가에 서서	74
년대와 삶의 숨결을 두고	75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는 인간관계의 심화와 그 해명	76
40여년	80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오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주제의 작품을 적극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학이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문학으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문학이 진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하는 인간학으로 되기를 지향한다면 이 문학은 마땅히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맥박치기 많으면 안된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없이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할수 없으며 민족적자부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문학은 희망과 신심으로 약동하는 영광의 문학이다. 그것은 이 문학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 가장 긍지높은 민족의 문학이기때문이다.

민족제일주의사상감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의 우수성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전통에 기초하여 생겨나는 사회적의식의 한 분야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기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수령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긴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게 되었으며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그들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칠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자랑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가장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자로 모시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자주적인민으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로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문학은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인민을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영광스러운 당의 품에 안긴 끝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당의 손길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쳐나선 혁명적자부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이 땅위에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고계시며 주체조국의 영예와 민족의존엄을 끊임없이 빛내여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모든 행복과 영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나아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민족의 자랑이 있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창조와 건설으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그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형상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이 자부심과 긍지를 격동적으로 노래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신념과 투지를 힘차게 구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칭송의 사상감정이 깊이있고

진실하게 흐를수록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주제는 그만큼 심화되며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이 담보된다.

당과 수령을 노래하는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이 체험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행복감이 우리 시대에 사는 인간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조화롭게 융합되는것은 이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승승장구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과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성이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발전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사회 인간들까지도 지녀야 할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귀중히 여기며 세계를 향하여 소리쳐 자랑하고있는 모든것,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재부와 창조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들이다.

그렇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누릴수 있게 되었으며 이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세기적변혁들과 기적들이 이 땅우에 이룩되었고 우리 조국은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형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본질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있다는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깊이있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우리 문학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구현문제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생관, 주체의 생명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우리 인민의 이 높은 사상정신적풍격을 떠나서 그들이 지닌 민족적 자부심과 존엄을 진실하게 밝힐수 없으며 그 본질적특성을 리해할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는것은 참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주제를 인간

학적경지에서 깊이있게 밝힐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우리 주체문학의 위력을 과시할수 있는 하나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형상하는데서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형상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어나가시는 우월한 우리 식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이 가장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고 살며 투쟁할수 있는 힘있는 사상정신적무기를 안겨준다면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이 지닌 이 자부심과 긍지를 끊임없이 떨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어나갈수 있는 사회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 살며 일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생활적으로, 구체적인 정황과의 통일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며 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화폭으로 훌륭히 펼쳐보이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 자부심 문제와 결합시킨 다양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밝히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제도를 포함하여 당과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이 빛나는 혁명의 재부들이 사람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 얼마나 큰힘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민족적자부심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이 주제를 인간문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

이 량자의 결합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이루어짐으로써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깊이있게 밝혀질수 있으며 형상의 추상성이 극복될수 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인간에게 있어서 특징적인것은 높은 자주의식이며 혁명의 주인

으로서의 공지와 자부심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부심이 자주적인 인간의 성격적미를 규정하고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그의 가치를 담보하고있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 계급,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은 그들의 이러한 자주적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에 대한 공지와 사랑을 가지는것이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혁명적신념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해나가며 헌신적으로 싸우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 등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혁명적신념을 간직한 사람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믿고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90년대의 새로운 진군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주제의 문학작품창작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 많은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읽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주체문학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견결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의 전면적우월성을 발휘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쳐 나가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을 보여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외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을 고수하였으며 슬기롭고 근면한 로동으로 이 땅위에 일찌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우리 민족은 역사의 유구성과 이룩해놓은 물질문화적재부의 풍부성에 있어서 세계의 그 어느나라 민족보다 못하지 않는 우수하고 슬기로운 민

족이다.

지난 기간 력사소설들을 비롯한 작품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주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은 문학의 현대성을 강화하고 주제의 폭을 넓히고 그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력사주제를 민족적자부심의 주제와 결합시켜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여야한다.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락후하고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에 타격을 주는것이다.

이 불건전한 사상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배치되고 민족적자부심과 량립될수 없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우리 당 정책의 요구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문학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이 없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인간들의 부정적성격과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미치는 해독적후과를 다양한 예술적 수법과 수단으로 비판폭로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의 예술적구현은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창조에 귀결된다.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 주제의 작품창작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문학의 전투적기능을 그만큼 다양하게 할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된다.

민족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주제로 한 작품의 왕성한 창작은 시대와 혁명이 우리 문학앞에 제기하는 중요과제이며 찬란한 미래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나라의 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제이다.

모든 작가들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의 주제에 바쳐진 작품을 더욱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일에 떨쳐나선 우리인민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촉진하여야 한다.

오, 내 조국

안성수

내 그때엔
버림받은 아이
품을 그리며 울어엿노라

바줄을 멘 어께엔 피 흐르고
잔등에는 모멸의 구두발자욱
모욕당하는 아들을 버려두고
내 사랑은
어느 하늘밑에 눈물짓고있었던가

소리쳐 울어도 돌아보는 사람 없고
얼어놓아도 찾는 이웃이 없던
조국! 나의 집 문전

오늘은 인생항로에 등대를 찾는 사람들
그칠새없이 문을 두드리고
대동강가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의
영원한 봉화를 받드는 행복을 누리고저
그 초석에 다투어 이름을 새기나니

모멸에 치워
피 토하며 쓰러지던
이 아들은 오늘
누리에 솟아 빛나는
나의 집 문전에서 자랑스러이
반가운 길손들을 맞고있어라

조국이며!
그날에도 오늘도
강물은 흐르고
해빛은 빛나고있거니

나에게 빛을 준것은
바로 그 하늘
그 땅이었던가!

바람 거친 누리에
믿음과 사랑 긍지를 채워주고
팔을 뻗쳐 인간을 안아주는 품이여

억만사람
억만대에 퍼내여도
마르지 않는 천지의 젖줄기로
자주의 넋을 주는
따사로운 품이여!

아, 잃으면 죽고
얻으면 사는 그 뜨거움은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이
심장을 주고
피를 주어 가꾸신것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라
이런 사랑!
나는 젖가슴 파고드는 아이처럼
그 품에 안기여
해발되어 웃노라
검은 구름 덮이고
바람부는 지구우
오직 하나 양지바른 나의 집
따스하고 눈부신
오, 나의 조국에-

조국의 노래를 새겨들으며

김재원

노을피는 새벽에
별이 돋는 저녁에
조국이어
내 가슴 울렁이며
그대의 새 노래를 새겨들노라

새벽창문 조용히 열리는 도시와 거리
젖빛안개 고요히 감도는 풍년들우에
은은히 울리는 노래의 메아리...
날에날마다 새 노래 울려
맑은 시정 차넘치는 어머니 나의 조국!

가인들이 많아
그대 품에 노래가 많은가
노래많아
조선이어
그대 모습 더욱 빛나는가

만경대의 봄노래로
집집에 마을마을에
기쁨과 환희 즐거이 너울치고
백두의 봄노래로
사람들 가슴가슴에
희망과 신념 역세계 나래치는 땅

나의 심정
나의 났도 깃들여
노래마다 그리도 걱정이 솟는가
아름다운 삶의 지향으로
가슴은 함뱍이 부풀어라

산에 가면 황금산의 노래로
들에 가면 만풍년의 노래로
우리 마음 춤추도록 흥에 겨웁고
공장에 가면 자동화, 로봇트화의 노래로
우리 심정 그지없이 설레이나니

반만년의 력사우에
전해지는 민요도 많고
산천경개 수려하여 명승가 많다 해도
오늘처럼 산에 들에 우리 생활에
이처럼 창조의 노래 많은적 언제 있었더나

어제는 풍랑속에 대양을 가로막은

서해갑문 병사들의 승리의 노래로
산악을 허물어 천리로반을 닦은
북부철길 청춘들의 랑만의 노래로
우리 가슴 얼마나 격동에 고동쳤던가

들어보라
오늘도 대건설의 열풍 돌아치는
105층 류경호텔과 통일거리
순천비날론과 고속도도로의 음향으로
우리의 하늘땅이 얼마나 진동하는가를

혁명의 시대가 투쟁의 노래를 낳고
그 노래가 영웅들을 위훈으로 불러
비약과 전진의 숨결 드높은 내 나라
나도 이 땅에서 마음 터쳐 노래부르며
궁지높은 공민의 희열 한껏 누리나니

노래여
너는 숨길수 없는
만백성의 마음이라더라
너는 가리울수 없는
시대와 세월의 얼굴이라더라

《김정일화》

《정일봉》의 노래 울려
강산이 뚫고
만민의 심정
파도같이 설레이는 땅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여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영광스런 당을 따라
일심단결로 미래를 앞당기니
노래도 많아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만민의 송가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열렬한 찬가

높이 울려 메아리치라
사랑과 은정의 노래
충성과 효성의 노래
투쟁과 신념의 노래
그 노래속에 길이 번영하리라
주체의 나라-어머니 나의 조국은

밝고 빛나는 영상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출판보도물이나 영화문헌에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1968년 6월 25일에 있는 일이다.

이날 중앙통신사의 한 사진기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전화종소리가 울리기에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 전화기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에 넘친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미처 인사의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이께서는 그 기자를 곧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부르시었다.

그는 서둘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갔다.

그이께서는 방안에 들어서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시고 나서 서가우에서 무엇인가 소중히 쓴것을 내리시더니 외국에 나가있는 동무들이 사진기를 보내왔기에 이것을 동무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시며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사진기를 받아든 기자는 어쩔바를 몰랐다. 그사진기로 말하면 아주 귀중한것이여서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의 기자들도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최신형고급사진기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몇달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기자가 촬영한 행사보도사진을 보시고 몹시 안색을 흐리시였다.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인데 화면이 밝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그의 어깨에서 사진기를 벗겨드시고 오래도록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 한 사진기자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최신형사진기를 마련해주신것이다.

이날 그이께서 주신 그 사진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리 출판보도물에 더 밝고 빛나게 모셔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충성심이 깃들어있었다.

× ×

1980년 1월초순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자연과학부문에서 일하는 몇몇 연구사들과 설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영화문헌으로 수록하는 당중앙위원회 영화문헌편집사를 찾아왔다.

전문가들을 맞이한 편집일군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방진렌즈를 내보이면서 찾아오게된 사유를 이야기했을 때 편집사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연인즉 이런것이였다.

영화문헌편집사업에서는 한가지 풀수 없는 난제가 있었다.

그것은 달리는 무개차우에서 촬영한 영화문헌의 화면들이 흔들리는것이였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심려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몇해전에 자연과학부문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촬영기가 임의대로 움직이고 진동하여도 피사체만은 흔들림없이 받아들이는 렌즈를 창안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신임을 받아안은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함없이 충성의 전투를 벌려 드디어 성공의 실머리를 찾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나의 근심을 또 하나 덜어주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곧 평양에 올라가 편집사동무들과 함께 마저 완성하라고 하시였던것이다.

방진렌즈를 받아든 편집사일군들은 너나없이 모두 가슴이 뜨거워 눈시울을 붉혔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해 그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진렌즈를 마련하여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송고한 충성심앞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 ×

이것은 몇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실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산간지대에서 천리마조선의 현실을 따라배우려고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의 한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수행했던 기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길에서 외국대표단과 사업하시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사진필름을 빨리 본사에 올려보내려고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그날따라 밖에서는 번개가 일면서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한동안 망설이던 끝에 비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으시었다.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읍소재지로 간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비내리는 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번개가 치기때문에 사진전송이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은 한점의 티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승용차를 내줄테니 읍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평양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여주신 차는 뜻밖에도 자신께서 타시는 승용차였다.

그는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올라 차마 차에 오르지 못하고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등을 가볍게 떠미시며 비가 계속 올것 같은데 조심해가라고, 보도를 기다리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물에 옷이 젖는것도 잊으시고 승용차가 산굽이를 에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그곳에서 평양은 700 리, 높은 령, 험한 계곡을 넘고 돌아 그 먼길을 달려가는 기자는 후더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잘 모시기 위해 700 리 길에 자신께서 타시는 승용차까지 내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헤아려졌던것이다.

× ×

1975 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를 방문하셨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수행한 보도일군들은 수

령님의 력사적인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사진화면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촬영한 그 사진들을 조국에 보내자고 하니 난처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진을 전송하면 화면에 금이 가고 얼룩이 지기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어떻게하나 사진의 질을 높여보려고 몇번씩 다시 전송하여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나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을 그대로 조국에 보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몹시 안타까웠다.

이럴때였다.

한 일군이 급히 기자들에게 달려오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동무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특별비행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어서 사진필름을 가지고 비행장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 먼 이국땅에까지 특별비행기를 보내주시다니!

기자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여 뛴뛴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채 비행장으로 달려갔다.

얼마후 그 나라 비행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대외활동을 수록한 사진필름을 실은 특별비행기가 조국을 향하여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기자들은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잘 모시기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었다.

특별비행기는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오고갔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라에 머무르시는 전기간 매일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리하여 당시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나라출판보도물들에는 멀리 외국에 가시여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전송사진으로써가 아니라 사진필름을 직접 가져다 정중하게 그리고 밝고 빛나게 모실수 있었다.

먼 나라의 하늘밑에서

박인서

하늘도 낮선
이국의 수도에서
그 이름 세상에 알려진 대학을 돌아보노라
물질보존의 법칙이 나온 시대로부터
수많은 문호들과 과학의 대가들을 낳았다는
그 오랜 연혁을 들으며...
승강기안에서도 복도에서도
제법 류창하게 혹은 서투르게
이 나라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
피부색 각이한 못나라 류학생들도
분명 이 대학의 자랑이런듯

허나
내 가슴에 젖어드는 뜻깊은 감회를
금발의 짧은 안내원이야
어찌 알수 있으랴
내 조용히 마음속에
묻고 대답하는 속삭임소리를
여기 그 어느 대리석원주에
짧으신 그이의 영상 비끼였을가
여기 그 어느 복도와 계단을
친애하는 그이께서 밟으셨을가

오늘도 이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오는
뜨거운 음성이어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먼 나라 하늘밑에 오시여서도
순간마다 조국의 숨결로 호흡하시며
위대한 수령님 모신 우리 민족의 존엄으로
숭고한 의지를 선언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아, 조국은 예서 수만리여도
문득 내 눈앞에 다가오는가
룡남산 기슭의 눈부신 종합대학청사
수수한 교복을 단정히 입으셨던 그이 모습

처음으로 뵈옵던 영광의 교정이!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맹세의 노래를
심장으로 따라부른 그날부터
향도의 태양을 따라
우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한길을!
내 오늘 가슴 들먹이며
그 숭고한 신념의 노래 다시 듣는듯

...참관을 마치고
우리는 정원으로 나왔다
정향꽃향기 흠날리는 이곳엔
세기와 세기를 넘어오며 이 대학이 낳은
명인들의 조각상이 서있는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금발의 안내원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내 비록 이름없는 시인이건만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아들로서
금지높이 대답했노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노라고!

순간
-아!
경탄의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머리를 끄덕이며
두손 마주잡아 힘껏 흔드는 너인
그 얼굴에, 눈빛에 넘치는 경의여

오, 여기 머나먼곳에서
조국의 하늘 그러보니
룡남산이어
그대 모습 얼마나 높은것인가!
그대 모습 얼마나 숭엄한것인가!

아리고싶은 대답

박미성

은하수 흐르는 밤
삼라만상을 잠재운 고요
내 붓에도 깃들었는가
움직일줄 모르는데

낮에 만나뵈온 그이의 영상
따뜻한 빛을 뿜던 그이의 눈빛
지금도 내 눈앞에 삼삼해
설레는 마음 진정할수 없고
생각은 끝없이 깊어만저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물으실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공지높이 대답올렸건만
어떻게 좋은 노래 쓸수 있었는가
다정히 물으시는 그 말씀엔
내 왜 대답드리지 못했던가

동무도 종합대학을 졸업했는가고
그리도 반가워하시며
학창시절을 즐겁게 추억하실 때
노래를 잘 썼다고 치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실 때
내 왜 대답올리지 못했던가

생각할수록 민망스러워
대답 아뢰지 못한 자신을 꾸짖으며
때늦은 지금
이 붓으로 아뢰이고싶어
내 이렇게 책상을 마주했노라

그 마음 알아서인가
저 추억만의 별들도
아쉬워말라고 위로하듯
어서 붓을 달리라고 재촉하는듯
부드럽고 조용한 빛으로 속삭이누나

어린 시절 내 꿈을 싣고흐르던
저 멀리 고향마을 시내물도
이밤 내 붓끝에 달려와
이제라도 어서 아뢰이라고

정겹게 맴돌며 재촉하누나

오, 그래서인가
진정할수 없는 마음 가다듬으니
그 소중한 말 이제서야
마음속 깊은곳에서
봄썩처럼 움터올라라

위대한 사상리론의 독창성에 심취되고
현명한 령도에 경탄하며
뜨거운 인간애에 감동되어
그이를 우러러 따르는 마음
그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이

그래도 내 붓은
선뜻 내달지 못하여라
그 대답 너무 평범한것 같아서
세상이 다 아는 레사로운 말 같아서

어떻게 그런 노래 쓸수 있었던가
스스로 그 물음 다시 외우는데
수도의 웅장화려한 거리에서
문화주택 아담한 농장마을에서
다정한 이웃관 벚들의 가정에서
내가 본 모든 사람들
마음합쳐 부르던 노래 들려와라
순간 그이를 만나뵈옵던 때처럼
그 노래 내 마음 설레게 하는데
잠을 깬듯 내 붓도 거침없이 달려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위인의 탄생은 언제나
위인의 노래를 낭기마련입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이여
그이께 드리는 나의 이 노래 전해다오

내 고향 작은 시내물이어
나의 이 진정의 노래싣고 흘러다오
세월을 넘어 후세에 길이 전해다오

백두의 깊은 수림속에

서봉제

천만 눈길들이 바라보는
하늘가에 솟지 않았다
천만 발걸음들이 흘러가는
강반에도 서지 않았다

이 땅의 한끝
가장 멀고 험한 산발들이 모여선곳
백두의 깊은 수림속에
투사들이 새겨놓은 글발을 안고
설레이는 구호나무

백두산에 백두광명성 솟았다
백두광명성 삼천리를 비친다

먹빛이 수수한 네 글발
현란한 금문자로 새기지 않았어도
어찌하여 마음은 이리도 후더운것이나
대리석을 다듬어 바로 세우지 않았어도
어찌하여 생각은 이리도 깊어지는것이나

울울창창 천리수해도
다 받아안기엔
너무나 크나큰 기쁨
너무나 크나큰 영광을 간직하고
강토를 흔드는 구호나무

저 한자한자에 어려있는것 아닌가
눈덮인 백두의 그 2월에
위대한 탄생을 맞아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바라보며
환희에 넘친 투사들의 그 눈빛이

저 한자한자에 고동치는것 아닌가

짓밟혀 신음하면서도 오직 한분
장군님만 따르던 겨레의 그 심장
백두광명성 우러러
만방에 터친 민족의 그 자랑이

한그루 너 백두의 구호나무여
그 자랑, 그 넋을
네가 선참 받아안았고
네가 안아 삼천리에 펼치였기에
이 세상 억만그루에 비길수 없고
이 세상 억만금에도 바꿀수 없는
너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

아, 그때문에 그때문에
눈비면
엄혹한 눈비를 다 맞으면서도
비바람이면
드세찬 폭풍을 다 안으면서도
네 글발 지워지지 않는것이 아니더냐
세월이 갈수록 더 빛발치는것이 아니더냐

금문자로 새기지 않았다
옥돌로 다듬지 않았다
하건만 이 세상
금빛으로 새긴 글자보다 더 소중한
진주보석으로 쌓은 탑보다 더 승엄히
천만 가슴들 너를 우러르나니

아아, 천년을 솟아
만년을 솟아
세기를 이어 영원히 빛날
력사의 천연기념비
백두밀림위 불멸의 구호나무여!

대탕지의 전설

오영재

온천으로 이름 높은
양덕땅 대탕지에
해마다 봄이 오면
골안에 차넘치는 꽃향기

더운 물안개 서려오르는
양지바른 산기슭엔
온갖 산파일나무들
열매 맺기를 서두르고

연록색 나무아지들 사이론
산뜻한 봄웃차림의 료양객들
우짚는 산새소리에 귀기울이며
즐거이 오솔길을 거닐어라

노래하듯 흐르는 개울물은
물이랑마다 봄빛을 가득 담고
기슭에 피어웃는 꽃잎마다에
하얀 물구슬을 뿌리며
한가히 노니는

봄
대탕지의 이런 봄날이면
이고장 양덕사람들
못잊을 추억에 잠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라

해방된 이듬해
바로 이런 봄날에
대탕지를 찾으셨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머무르신 나날은 오래지 않았어도
40 여년 세월이 흘러온 오늘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그이께선 그날에 남기셨거니

그 이야기 들려주며
그 이야기 전해들으며
사람들 몽쿨해오는 뜨거운 가슴
한없는 그리움에 적시며
존경하는 그이의 영상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보더라

1

해방이 되어
기쁨도 컸고 감격도 컸건만
너무도 안겨진것이 아름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설레이던 그 시절

분여받은 제땅에 돌아난 새싹들이
이랑마다 그리도 탐스러워
아낙네들 온종일 발머리를 못뜨고
아직은 학교가 없는 아이들
등성이라 골짜기라 마구 쏘아다니며
부잡스런 장난으로 해를 보내던
그 어느날

길가의 언덕에 서있는 돌배나무에서
아지가 마구 흔들리는 소리에
아낙네들 일손을 멈추었으니
크고 높은 그 나무우에
어느새 올랐는지
어떻게 올랐는지
나어린 마을의 소년 하나

세차게 아지를 흔들 때마다
와수수 떨어지는 가냘픈 나무열매
그것을 주어 땅채먹기에 쓰러는지
아니면 철없는 아이의
할일없는 심심풀이인지

그 나무밑으로
아낙네들이 모여든다
저마다 다른 목청으로
한꺼번에 터치는
산골 아낙네들의 거칠은 욕설

못된 짓은 도말아한다고
씩 내려오지 못하겠느냐고
올러대며 왁작 떠드는 소리에

잠시 흔들기를 멈춘 그 소년
자기에게 쏘아뿔고있는 그 욕설에
그만 역증이 났는가
더 세차게 흔들어대는 돌배나무아지

풀안에 일어난 큰 사변인듯
 떠돌고 혼드는 소란한 광경
 끝날길 없는
 어른과 아이와의 싸움을
 군너맹위원장과 함께
 읍에서 돌아오시던
 그 걸음 잠시 멈추시고
 한동안 지켜보고계시던 김정숙동지

항일의 그날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언제나 가슴속에 안고 산
 그리운 조국산천
 사랑하는 인민들이였기에

광복된 이 땅에서 바라보시는
 조국의 풀 한대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귀중했고
 로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장한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이제는 모든것이 자기의것으로 된 세상
 제 나라를 제 힘으로 일떠세우고
 제 살림을 제 손으로 꽃피우는
 주인된 그 마음이 곳곳마다 넘치는데
 여기 양덕의 아이들에게
 산이 높아 못미쳤느냐
 풀이 깊어 그 마음도 묻혀버렸는가

산에서 가난만을 보고
 산에서 《보물》을 아직도 볼줄 모르는
 이고장사람들의 못미친 그 생각을
 저 소년의 모습에서 보시며
 저으기 가슴아프신 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돌배나무밑에 이르시여라

2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입으시고
 정숙하게 나타나신 그이를 뵈옵자
 떠들던 아낙네들 소리를 멈추고
 그만 점적한듯 머리숙여 인사를 올렸거니

그분이 뉘신지는 다 몰랐어도
 낮이면 밭에서 함께 김도 매시고

밤이면 어지러운 노전도 허물치 않으시고
 방등불의 심지를 돌귀가시며
 해방된 녀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리도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던 《평양손님》

나무우에 웅크린채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 소년을
 그이께선 자애로운 음성으로 부르시고
 나무가지에 굽힌 자옥이 하얀
 소년의 허리를 안으시여
 땅우에 조심스레 내려놓으신 그이
 그 무슨 죄를 크게 지은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있는 그를
 이윽도록 여겨보시여라

먼지오른 더부룩한 머리
 앞이 헤쳐진 저고리에
 무릎이 보이는 바지
 신이라곤 신어본것 같지 않은
 거칠은 맨발

그이 앞에 서있었다
 나라없이 이 외진 산촌에 내쫓기여
 버림받은 이 나라의 한 소년이
 배움의 학교가 이 세상에 있다는것조차
 생각밖으로 멀어비리고
 문맹의 어둡고 피로운 산길을
 가시에 찢리우며 맨발로 걸어온
 불우했던 한 어린이가

서있었다
 장군님 찾아주신 새 나라를
 이제는 미더웁게 떠메고나가야 할
 미래의 역군이
 이 돌배나무와
 산마다 가득한
 잣이며 머루며 다래며...
 그 모든것들이 온통 보화가 되여
 인민에게 안겨질 그날의 새 주인이

불에 묻은 검댕이도 닦아주시고
 풀어진 저고리단추도 채워주시며
 그이께선 다정히 물으시여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돌배나무입니다.》

떨어진 대추알만한 열매를 주어드시고
 《이것이 얼마나 커질가?》
 소년은 자기의 작은 주먹을 내보이며

《커집니다, 이만해집니다》
《언제?》
《가을에요.》

《응, 그래!》

그이께서는 이 모든것을 처음 아시는듯
그 모든것을 잘 알고있는
산골아이의 《지식》에 부러우신듯
가벼이 미소를 지으시며
그 애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여라

너무도 소탈하고
인정깊이 대해주시는 그이 앞에
어려움이 어느덧 가셔진 소년
별방에서 오신 이 《평양아지미》에게
자랑할것이 생긴듯
물지도 않은 말까지 보태여라
가을에 잘 익은 돌배는
여간 맛이 있지 않다고

《그런데 애야
나는 평양에서 살다나니
그 돌배맛을 못보겠구나》
못내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는
그이를 딱한듯 올려다보던 소년
《가을에 또 오시나요》
《그럼 돌배맛을 보여줄래?》
《예!》
기쁨에 넘쳐 올리는 소년의 대답으로
《평양아지미》와 산골소년사이에는
생각지 않게 하나의 약속이 맺어졌어라

그러자면 나무가 상하지 않게 잘 돌보고
한알의 열매도 허실없이 잘 가꾸라고
거듭 소년을 타이르시던 그이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잔등을 가벼이 두드려주시다가
또다시 거치른 맨발에 벗어선
그이의 눈길

《너와 약속한 기념으로
내 무엇하나 주고갈까》
보자기를 푸시니
읍에서 사들고오시는 운동화 몇켤레
발벗은 이런 아이들에게 신기시려
일부러 장마당에 들렀다 오시는 길

발에 맞는 신을 골라 신겨주시고
맞는가 앞코도 눌러보시고는

마음이 좀 놓이신듯
돌배나무언덕을 내려서시여라

난생처음으로 신어보는
희한한 신을 보며
울먹이던 소년
신을 다시 벗어 두손에 갈라쥔채
인정넘진 《평양아지미》를
넋없이 지켜보며 서있는 그 모습
아, 가슴이 아프시여 되돌아보시는
그이의 눈엔
그가 나어린 한 소년으로만 보이지 않으셨어라
그것은 산그늘에 가리워
빛을 모르고 이날까지 살아온
이고장 인민들의 모습이었어라

3

비오면 열매가 떨어질세라
달려와보고
바람불면 아지가 꺾어질가
한밤에도 나와서 살펴보며
소년이 정성담아 가꾼 돌배나무

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산열매향기로 넘치는 가을날에
탐스럽게 익은 돌배를
소년은 바구니에 따담으며
읍에서 뻗어온 한길을 지켜보고

몇광주리 잘되게 움안에 넣어놓군
동생들이 손을 대지나 않았는가
아침저녁 세여보며
안타까이 한길을 살렸어라
오늘이면 오실가
래일이면 오실가

그러던 어느날
소년에게 한장의 편지가 왔네
올가을에 바쁜일이 많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연
이 다음에 꼭 약속을 지키겠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평양아지미》의 편지

그 편지를 함께 보던
마을의 너인들
그렇게 지체높은분이
한 산골소년과 하신 약속
그리도 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모두 허를 찔렀단
그보다도 더 놀라운것은
편지의 맨밑에 쓴
《평양아지미》의 이름
《김정숙》

아, 그이가 바로 그런분이었던가
장군님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우시던
항일의 녀장군
총 잘 쏘시는것으로
항간에까지 그 소문 자자하게 퍼진
백번 쏘아 백번 맞히시는 명사수

그런분이 이 산골을 다 찾아주시다니
허물없이 함께 김도 매시다니
너무도 꿈만같아
이야기에 이야기를 이으며
한밤을 꼬박 새운 마을의 녀인들

그분의 말씀이야
장군님의 뜻인데...
마을사람들 이날에야 깨달았어라
그날에 그 약속 그 당부는
어린 소년 한사람에게만 하신것이 아님을

해방이 되여
발가는 농민들에게 땅도 나누어주었던만
산밖에 없어
변변한 제땅을 못가진 사람들

비탈진 땀기밭에
언제나 다름없이
오늘도 가난을 심어야 할
산골농민들의 살림을 두고
그리고 크신 장군님의 심려를 안으시고
날과 날을 보내신 김정숙동지

산골사람들도
별방처럼 잘살게 하고싶은
얼마나 큰 뜻이
이 어린 소년과의 작은 약속에
간절히 깃들어있었던것인가

4

산세 험한
양덕땅 구지골을 찾으신 수령님
몸소 치마대에까지 오르시여
《황금산》의 열쇠를 쥐여주신 그날로부터
온 나라가 산에 올라

산열매따기로 흥성이던 가을

잘 익은 돌배를 알알이 골라
광주리에 정히 담으며
소년은 길차비를 했다
(나라일에 바쁘신 그분을
이 산골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으니
왜 내가 일찌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고이 당반우에 간수하고있던
운동화를 내리우긴 했어도
차마 그것을 거칠은 발에 꿰기가 죄스러워
한동안 들여다보노라니
눈앞에 떠오르는 그날의 그이 모습

손에 처마가 닿는 집에서
머슴살이 신세를 한탄하는
할아버지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란
이 고장 토배기아이

어린날에 일찌기 어머니마저 여의어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을 모르고
때이르게 휘감기는 찬바람에 몸을 떨며
이 세상엔 매정한것밖에 없음을
어린 피부로 느끼며 거칠어진 소년

만나뵈온 시간은 너무도 짧았지만
인정이 그림던 메마른 가슴을
처음으로 따사로이 적셔준 그 손길
남들이 평생을 두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순간에 받아안으며
너무도 인자하신 그 사랑의 품에
벌써 제 몸을 송두리채 맡겨버렸거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어머니
단한번이라도 더 뵈고파
자기 손으로 가꾼 이 산열매
그이께서 맛보시며
그리고 밝게 지으실 그 미소
다시금 우러르고파
돌배광주리 등에 지고
소년은 역으로 걸음 다그쳐간다

골짜기를 내려 굽이돌아
멀리 역사가 보여오자
더욱 성급해지는 그 걸음

그런데 웬일이냐
어느때없이 역전이 비좁도록 모여선 사람들

역에 들어서니
전주에 내건 고성기에서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방금 끝나고
이어서 울리는 비장한 음악

소년이 떠나게 된
그 사연을 알고도 남은 이고장 사람들
새 운동화를 신고 돌배를 지고온
그 애를 보자 설음이 더 북받쳐
참았던 울음을 터친다
-애야 이런 일도 다 있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단말이나
그분께서 그만 세상을...

순간
소년은 그자리에 주저앉고
쏟아지고 흩어지는 돌배알들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주위에서 울리는 모든 소리도
하늘과 땅은 온통 어둠뿐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역사도 전주대도 모여선 사람들도
때마침 들어서는 평양행렬차의 우람찬 동체도

넋을 잃고
발버둥치며
소년은 웨치고 또 웨쳤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 평양에 있어요
그 어머니 찾아 평양에 나는 갈래요

5

세월이 하오래 흘러
그날에 서있던 돌배나무들
이제는 아름답기로 자라
대탕지의 언덕마다에 늘어섰고
그때에 살던이들 많이도 없어
그 누구라 딱히
이 나무를 가리키는 사람 없어라

그 어디이라
그이의 인자하신 그 모습
정다운 음성이 깃들어있는
그 나무밑에

잘 익은 돌배를 무드기 담아놓고
울고울어서 눈이 부은채
해종일 소년이 앉아있던 그곳은

그 소년도
이제는 로년에 이르렀으련만
이고장에서는 찾아내지 못했거니
전쟁의 날 화선에 나가
용감히 전사했다 하기도 하고
전후복구의 날
먼 개발지로 떠나갔다고 하기도 한다

하나 그이께선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에 차넘치는
여기 산골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여
돌배의 맛만이 아니라
그이 그토록 바라시던
인민의 행복을 함께 맛보고계시는듯

그 어느 나무밑이여도 좋으리
그이는 그날처럼
깜장치마에 흰저고리를 받쳐입으시고
보화로 주렁진 행복의 《황금산》에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고계시여라

끝안에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초물공장에서 울리는 북바디소리
온갖 산과일식료품들이
큰배아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아담한 문화주택 즐거운 창문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를
기쁨에 넘쳐 듣고계시여라

이제는 사람이 유족해지고
별방다름없이 문명해질수록
세월을 거슬러 더욱 뚜렷이 그려지는 모습
돌배를 등에 지고 역으로 발걸음 다그치던
그날의 소년처럼
그이께로 그이께로 오늘도 향해지는
인민의 마음이어

아, 김정숙동지
한평생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것처럼 정을 기울이시고
뜨겁게 사랑을 바치신
그이의 고결하신 모습은
조국땅의 끝깊은 외진산촌
소박한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영원히 살아 빛나고계시여라

1989 년 10 월 양덕에서

간석지의 봄

최윤의

시누런 감탕만이 끝없이 깔린 무연한 간석지, 높고낮은 기복도 없이 일매지게 펼쳐진 이 벌에는 한점의 그늘을 던질만한 수목하나 없다.

태양의 반사광만이 망망한 바다에 내던지운 불모의 이 땅을 회롱하며 빈찍거리는데 바다는 이 감탕판을 삼켰다 뺄었다 하면서 투정질하는 아이마냥 심술을 부린다.

비릿한 해감내만 물큰거리는 그 감탕판에 때로는 바다의 숨결도 밋고 납덩어리같은 무거운 대기가 드리워 두리가 피피하기도 하다. 그러다 돌연히 휘몰아치는 태풍이 큰 파도를 일으켜 그 땅을 물어뜯고 짓뭇개며 이 모든것을 휩쓸어간다.

겨울이 오면 바다가 얼어붙어 산악같은 얼음덩이들이 밀썰물에 드나들며 개펄을 굽어내는가 하면 썰물과 함께 얼음덩이들은 몸뚱이를 드러낸 감탕판을 미친듯이 두들겨패기도 한다. 예로부터 돛배에 몸을 싣고 고기를 낚은 어부들에게는 이 감탕판이 이름할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기도 했다.

썰물이 져던 감탕판에 밀물때를 기다려 바다물이 들어오면 만선의 돛을 달았던 배가 감탕판에 걸려 그대로 닻을 놓고 다음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이 얇은 물에서 때때로 태풍이라도 들이닥치는 날엔 길길이 솟구치는 물결과 함께 뒹가라앉았다 하다가 감탕판에 짓쫄여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감탕판을 《풀》, 《개펄》, 《해판》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

갈대숲이 설레이고 물오리때만 날아들던 땅, 모기떼가 날아들고 숨막힐듯한 열기로 숨이 콕콕 막히던 땅, 보이는건 갈밭과 하늘뿐이요, 들리는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뿐인 스산한 그 땅, 길다란 초막과 멀건 콩포레죽으로 《인부》들을 맞이했던 이고장, 원시인들처럼 새끼오리를 풀어 판자사이에서 끼워 마구 비벼서 불을 붙이던 이고장, 찌물에 배앓이 하고 갈그루에 발이 찢려 티눈이 생기고 죽어서도 편안히 누울 땅 한때기 없어 물에 가려고 거적매기에 싸이던 원한의 고장... 그 간석지가 이제는 전야로 되었다.

제방을 경계로 아득히 펼쳐진 넓은 벌에서는 트랙포가 봄갈이를 하고있고 방풍장을 둘러친 팽상모판에서는 비닐박막들이 봄벌에 유리처럼 반짝인다. 멀리 염전에서는 봄날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우로는 물오리가 떼지어 날아지나는것이 아스라니 보였다.

한껏 무르녹은 돌기운에 취해 무심히 걸음을 옮기던 한성보는 문득 옆에서 걷는 작가의 존재

를 의식하며 땅우에 파랗게 돌아난 풀을 가리켰다.

《이 풀이 소금기가 있는 간석지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재기우다. 이건 자오라기, 그리구 저건 통통마디라는 풀이구요, 저것들은 돈이면 저렇게 푸르다가도 가을이면 꼭 불이라도 묻는듯 빨강게 되지요. 옛날에는 이곳 사람들이 저 풀로 식량보탬까지 했수다.》

간석지생활을 체험하며 소설을 쓰려고 온 중년의 풍채좋은 작가는 한성보의 말을 들으며 소금기가 내배여 희끄무레한 땅을 발끝으로 찍어보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소금땅에서 식물이 자라고있다는것이...》

작가가 감탄하는것을 보고 한성보는 성수를 냈다.

《하지만 더 놀랍기는 사람이지요. 저 앞벌이 전에는 다 바다였수다. 그때는 이곳에 물오리때가 수태 날아들어 그것들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밤잠을 못샀지요. 그 바다를 밀어내고 논밭을 만들었으니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주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예서 섬까지 몇리나 됩니까?》

《물길로는 한 삼사십리 잘되지요.》

《삼사십리라...》

작가는 한성보의 말을 되받아 외워보고는 다시 물었다.

《섬에 낚시터가 있습니까?》

《섬 전체가 좋은 낚시터지요. 그런데 낚시질을 즐기시우?》

《예, 하지만 강에서만 해봤지 바다에선 못해봤습니다.》

《그럼 언제 나하구 같이 낚시질을 잡시다. 비온 뒤끝에 밀물을 따라 물으로 들어오며 하는 낚시질이 해저무는줄 모릅지요. 달빛아래서 하는 밤낚시질도 좋구요. 지금은 한창 조개철이지만 고기도 많수다. 우레기, 병어, 농어, 송어, 뱀장어, 망둥이... 낚시대는 내가 마련해드리리다.》

그러는 사이에 두 사람은 부두가에 이르렀다.

부두에는 섬으로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성보와 작가 역시 섬에 있는 간석지 건설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길손들의 차림새며 가지고있는 짐들을 보면 섬으로 무얼하러 가는가를 알수 있다. 대부분은 간석지 건설장으로 가는 청년들이고 측정기구함을

든 해양연구사가 있는가 하면 기록영화촬영가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다. 애들과 아주머니들도 보였다.

아직은 밀물이 들어오지 않아 배들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있었다.

작가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넓은 벌을 바라보더니 또다시 감탄했다.

《옛사람들은 철석같은 지조를 <뿔발이 변하여 바다가 될지언정>하고 비유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은 바다와 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간석지에는 훌륭한 시와 소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성보는 작가의 흥분이 이해되었다. 그도 이별에 나설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뜬다. 그러니 타고장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이 간석지땅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옛날은 옛날대로 이야기가 있고 오늘은 오늘대로 이야기가 무수하다. 그 모든것을 글로 써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머리속에는 문득 딸애의 책에서 본 동화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득한 옛적 섬가성을 가진 봉우리형제들이 어머니당의 넓은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있었다. 어느날 땅이 울고 강산이 몸부림치더니 봉우리형제들은 땅의 품에서 떨어져 바다속의 외로운섬들로 되었다. 하여 마주 바라보면서도 다시 안길수 없는 리별의 슬픔속에 수억수천만년 세월이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리별이 아니었으니 언제부터인가 물으로부터 뻗어온 거인의 역센 손이 바다를 밀어내고 어머니대지와 섬봉우리형제들을 이어주었다. 동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하였는데 그때 한성보는 글쓰는 사람들은 참 신동하고 묘한 사람들과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간석지막은 이야기를 옛말처럼 재미있고 구수하게 만들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뿐이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소설을 쓰려 왔단다. 하기가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들이 이 간석지에 있는가. 갈밭을 헤치고 마을을 세우고 결혼식을 했으며 초물을 길어다 앙금앓힌 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래일의 전야에 대한 희망으로 즐겁던고장, 잔물에 절어 신발과 바지가랭이가 며칠이 못가서 거덜이 나고 감탕물에 옷이 마를사이 없으면서도 온 나라를 비단으로 뒤덮고 간석지에 옥곡이 물결치는 땅을 꿈꾸며 희망에 넘치던 이고장,

《기러기 떴다 갈베러 가잔다》의 구슬픈 노래와 함께 처참히 놀리워오던 해방전의 이 땅, 이고장에 깃든 그 모든것을 이 작가선생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이 감탕판에 지금은 얼마나 뜨거운 인간의 체취와 무궁무진한 힘이 약동하고있는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부두가에 박혀있던 배들이 흥פק이기 시작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한것

이다.

예선 한척이 툭툭거리며 부두가로 다가왔다.

배가 가벼운 충격과 함께 배부른 허리를 잔교에 비스듬히 대자 저마끔 떠들며 갑판위로 뛰어올랐다. 마감사람이 오르자 한결 무거워진 배는 기관을 부르르 떨며 선수를 올리더니 섬을 향해 파도를 가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이불과 고물쪽에 갈라서서 혹은 담소를 하고 혹은 멀어져가는 산발이며 떠나온 기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품치는 물결이 이따금 갑판우에 물바래를 튕겨올렸다. 한정보는 짐을 안쪽으로 옮겨놓고나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그는 왼손에 쌈지를 왼채 서서도 숨쉴있게 엽초를 맡았다. 그걸 보고 작가가 실수라도 한듯 서둘러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이걸 피십시오.》

《아니우다. 난 이게 좋수다, 바다에선 잎초맛이 유별하지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도 좀 피워봅시다.》

작가는 담배갑을 도로 집어넣고 한성보의 담배쌈지에 손을 내밀었다. 한성보는 제가 피우려고만 담배를 작가에게 주고 다시 맡았다. 이윽고 맞불질로 담배를 피워문 두사람은 다시 간석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작가가 말했다.

《난 간석지에 처음 와보기도 하지만 상식조차 변변히 없습니다. 개고라는 말의 의미조차 똑똑히 모르지요.》

한성보는 량입귀로 담배연기를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작가의 허심한 고백이 마음속을 너누룩하게 하였다.

《개고란 바다물길 이지요. 바다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굽이지요. 제방을 쌓아가다가 마감이 거기를 막는데 헐치 않습니다. 개고마감막이에 제방전구간을 쌓는품이 든다고 하지요.》

《네.》

작가는 이해되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물었다.

《장석작업반에서 일한다고 하셨지요?》

《예.》

《이 간석지에서 일한지 오랫동안이까?》

《전쟁직후부터니까!》

《그러니 간석지건설에 있어선 첫세대에 속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한성보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한생이란 길고도 짧은것이다. 이 간석지 땅에 첫 발자국을 찍은지가 어제같은데 벌써 30여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 30년 세월에 파연 무슨일인들 없었으랴...

한성보는 그 나날이 생각났다.

그때 섬의 청년들은 휴일이나 명절이 오면 물때를 기다려 물에 건너와 사탕구경을 하고 사진관에도 들렀다. 개고를 건느기 위해 짝감(썰물이 다나고 개고에 물이 제일 적어지는 시각)을 리용했다. 밀썰물의 운동에 따르는 그 시간이 날마다 50 분씩 드리다보니 섬으로의 출퇴근시간이란 대낮이 될 때도 있었고 재밌증이 될 때도 있었다.

겨울철에는 바지가랭이를 부르짖고 살얼음이 진 감탕판을 걸거나 얼음장과 얼음장 사이를 건너뛰다간 빠져 온통 물침봉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이제는 옛말로 되었다. 정녕 30 년세월은 이 간석지땅에 얼마나 많은 옛말을 만들어냈는가. 그 옛말- 변혁의 력사속에는 한성보자신의 인생기도 어느 페이지엔가 적혀있는것이나.

아득히 멀어진 어슴푸래한 기억속에 잊을수 없는 시절의 추억이 밀물처럼 차오른다.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고 의지가지랄데 없는 몸이 된 한성보는 전선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온것은 아버지의 전사통지서였다. 그것은 1951 년 늦가을이었다. 사람들은 한성보를 학원에 보냈다. 그러나 이미 방랑생활이 몸에 배고 성격이 이그러진 그는 학원생활에 쉽사리 익숙할수 없었다. 학원을 뛰쳐나가고 다시 붙잡혀오는 과정이 여러번 반복되었다. 또한 그 러는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한성보도 썸이들었다.

학원을 졸업할 때 동료들은 모두 새 청년탄전개발지로 떠나갔다. 그러나 한성보만은 여기 간석지 건설장으로 왔다. 어떤 남다른 포부나 희망이있는것은 아니었다. 탄광이나 광산의 좁은 갱속에서 생활하게 되는것이 마음들지 않았고 보다 넓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간석지건설장을 선택하게 하였을뿐이었다. 그것은 전쟁기간에 몸에 밴 방랑생활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간석지에서 그를 맞이해준 사람은 송창호라는, 이마가 시원히 넓고 순박하면서도 정열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통성을 하듯마듯 한성보를 열메터되 나마나한 제방쪽에 데리고 나가 열심히 설명했다. 저 바다에 있는 저 여섯개의 섬을 한바퀴 빙 돌아막으면 돌레가 백리도 훨씬 넘는다. 그걸 우리가 해해야 한다. 그 제방건설이 끝나면 저 바다물 자리에 넓디넓은 새땅, 웅근 하나의 큰 군이 들어갔을 전야가 생긴다고...

《옛날보다 지금의 생활은 많은것이 달라졌지요.

그러나 지금의 생활이라 해서 안정되고 호화로운 생활이라고는 할수 없습지요. 하나의 건설이 끝나면 다음 간석지로 옮겨가서 새 생활터전을 꾸려야지요. 살림살이가 발을 불일만하면 다시 이사짐을 싸야 합니다.

끓었을 때는 그저 새고장에 간다고 해서 기쁘

기민 했지만 사실이야 힘겨운 일이었지요.

우리는 일생을 물우에서 떠다니며 살았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그저 고착된 울타리같은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근심할뿐이지요. 그게 지금은 제일 큰 근심이지요.》한성보는 생각에 잠겨작가에게 나직이 말했다.

한성보는 간석지에서 도망쳤던 청년시절의 일 이생각했다.

제방건설은 힘겨웠다. 간석지는 바다바람이 세찼다. 겨울의 바다바람을 차라리 여린 칼날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한뼘 망망한 바다한가운데서 그런 칼바람을 맞으며 간석지를 막아야 할 일을 생각하니 한성보는 기가 막혔다. 내 청춘이 과연 이런 으스스한 감탕판에서 시들어야 한단말인가.

지칠대로 지친 몸을 끌고 숙소로 돌아온 어느 날저녁 그는 탄광개발지로 떠나간 학원의 동료들을 부럽게 생각하였다. 갱속이라면 차라리 바람질이없고 춥지라도 않을것이 아닌가. 그래 그는 그들을 찾아 떠났다.

그가 섬을 떠나 물에 올랐을 때였다. 그때 거기에 굴착기를 섬으로 가져가려고 부두에 나와있던 창호가 있었다. 그는 한성보를 보자 날듯이 반가와하였다. 창호는 자기 일을 거들어주려고 마중나왔는가 생각했던것이다. 한성보는 까닭도 모르고 반기는 그 청년을 보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기가 막혔다.

그러나 자기가 피해온 그 건설장으로 굴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한 인간을 보자 호기심이 났다.

한성보와 같은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람을 보았다.

창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의 청춘을 이 감탕판에 내맡기려 하는것일까 .

성보는 그때 창호앞에 모든걸 숨겼다.

《성보. 자, 잡으라구. 이 굴착기를 이제 배에 싣고 섬으로 가세. 그리고 배에 그냥 올려놓고 일하세. 감탕속에 빠지면 그밑에 통나무로 빨대목을 할거 있나? 배우에 그냥 올려놓고 물이 들어오면 물우에서 일하고 물이 나가면 그냥 가라앉은 배우에서 일하면 될거 아니야. 방사포처럼말이야.》

그는 성보에게 로브를 던졌다. 성보는 열결에 그것을 받았다.

배는 인차 섬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창호는 성보가 도망치려던것을 알았는지 물랐는지 섬에 거의 이르렀을 때 혼사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정신차리고 일할 때가 됐지... 이 땅이... 이 바다에... 누구의 피가 스며있나?》

한성보는 창호를 보기만하였다. 그후 그는 섬을 뜨지 않았다.

이 땅에 누구의 피가 스며있는가 하던 창호의

말이 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후 30 년이 흘렀다. 섬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섬에 그 누가 한발자국 들어놓으면 서로 한가정처럼 산다. 그들도 자기네 섬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알아보고 서로 가까워지려 한다. 그리고 서로 도와준다. 한성보도 창호의 그 도움 속에 살아왔다. 성보는 창호를 잊을수 없었다.

사품치는 물결이 물방울을 그의 짐우에 뿌려던 것이다.

한성보는 짐을 한쪽에 옮겨놓았다. 작가도 그와 함께 짐을 옮겨놓았다. 그 짐은 간석지마을 출판물보급원이 부탁한 짐이었다.

작가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 짐을 보았다. 그 짐을 보자 한성보는 작가와 함께 섬으로 나오기에 앞서 간석지마을 출판물보급원을 만났던 생각이 났다.

출판물보급원의 집주인은 간석지건설장 준첩선에서 일하였다. 요즈음 개고막이전투가 시작될판이라 바빠서 물에 오지 못했다.

그 집 주인인 영길이는 물에 가면 자기 집에 꼭 들려달라고 하였다. 일이 바빠 섬을 뜨지 못하는 자기 소식을 전해달라면서...

《그 아주머니가 신혼살림이라 했지요?》

작가는 한성보에게 물었다.

《글쎄요.》

한성보는 대답했다.

《마을에선 신혼살림이라 하던데...》

《아버님, 우리 애아버지보고 애가 앓았다는 말씀을 말아주세요.》

출판물보급원이 그때 그에게 짐을 부탁하며 말했었다.

《그래 그러지. 그러나 애는 관심을 두고 키워야 하네.》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았어요. 이제는 열이 내려요.》

출판물보급원은 당황해하며 말했다. 애가 감기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때 작가가 웃으며 던지시 말했었다.

《내가 집주인보고 다 말하겠소. 오늘 아바이하고 섬에 나가자고 하는데 다 말하겠소.》

출판물보급원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설레설레저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이는 밤 썰물때를 기다려 달려올거예요. 부탁이에요.》

온 마을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다. 떨어져살면서도 서로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부부의 마음씨에 탄복해서였다.

한성보는 생각에 잠겼다. 신혼살림, 그는 간석지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작가에게 말하고싶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애뜻한것인가. 그것은 물을 그리워하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마음속에 자

리잡은것이였다. 그들의 집이 있고 그들의 안해와 자식, 그들의 사랑이 기다리는곳인 물, 그곳에 그들은 자기 마음의 많은것을 남겨두고 왔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은 그 물과 섬을 하나로 잇기 위해 일생을 보내왔다.

한성보는 자기가 첫사랑을 하던 때가 떠올랐다.

...어느날 그는 수령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처녀는 수령판에 물리운 아래 도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어기어기 두다리에 힘을 주고있었다.

밀물과 썰물때문에 감탕이던 땅이 시간에 따라 바다로 변하고만다는것을 처녀는 잘 알지 못하고 개고를 넘다가 봉변을 당했다. 처녀는 어쩔줄 몰라했다. 성보는 처녀에게 달려가 익숙한 숨씨로 동쪽으로 끌어올렸다.

감탕판이던 그곳은 어느새 바다가 되였다.

그날저녁에 알고보니 그 처녀는 창호의 사촌녀 동생이였다. 처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사촌오빠를 찾아 간석지에 왔었다. 처녀는 전쟁시기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왔었다.

처녀는 그후 간석지에 눌러앉아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일터에서 한성보와 그 처녀사이에 사랑이 싹텔고 부부가 되였다...

첫 살림을 꾸릴 때 창호가 그들이 들 첫 집을 지어주었다. 창호는 구들장을 놓고 불꽃을 손질했다.

구들장밑에까지 (밑은 감탕이였다) 흙을 쌓아 좁은 곳을 지어주어야 불길이 방고래로 잘 넘어 간다면서 두번 세번 덧손질해주던 그였다. 그 아궁이에 불을 지켰을 때 물기서린 아궁안은 연기 속에 파묻혔다가 이윽해서 빨간 불길이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신혼부부의 행복도 그렇게 타올랐다.

그후 해가 지나고 나이 먹어 한성보의 이마에도 주름살이 지고 늙어가자 안해는 한성보에게 더 극성스럽게 정을 쏟았다. 한성보 역시 그러는 안해를 위해 집에 갈 때면 몸에 좋다는 굴을 한 배낭씩 따서 지고 갔다...

《저 청년들은 간석지건설장 청년들입니까?》

작가가 물었다.

배이물쪽에서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청년들이 노래들 부르고있었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밤

백리제방 바라보니

구슬땀 흘린 청춘의 보람

가슴에 넘쳐나네...

청년기동선동대원들이였다.

《애들이 노래와 춤을 준비해가지고 건설장으로 갑니다.》

성보는 말했다. 작가는 알만하다는듯이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섬이 보였다.

《섬이다.》 옆의 사람들이 소리쳤다.

한성보는 멀리 앞쪽을 바라보았다. 섬은 점점 크게 나타났다.

영화촬영가가 촬영기의 렌즈를 맞추었다. 그쪽에서는 배 한척이 창파를 헤가르며 러객선을 마주해 왔다. 배우에서는 마이크를 든 처녀가 이쪽에 대고 무어라고 웨치고있었다.

애들이 환성을 질렀다.

《아버지앞에서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옆의 부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섬은 하늘을 떠 이고있는상싶었다.

《이물쪽에 서있는 저 처녀도 간석지건설사업소에 있는가요?》

작가가 물었다. 한성보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배이물쪽에서 처녀의 분홍빛머리수건이 바람에 날리는것이 보였다.

《측정계기를 든 처녀말입니까?》

《예.》

《해양연구소 연구사입니다. 바다물을 측정하지요. 해일도 연구하고... 섬으로는 별사람들이 다찾아옵니다.》

《해일을 만난 일도 있겠습니까?》

《있지요. 큰물은 자주 있지만 큰 해일은 수십년에 한번씩 일지요. 해일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웬만한 제방쪽은 단숨에 허물어 내리지요.》

《그런 해일을 체험해봤습니까?》

《해보다뿐이겠습니까?》

한성보는 그것이 생각나 작가에게 이야기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가. 전후에있는 일들이었다.

간석지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번쩍이는 삽날들과 달리는 흙밀차들이 보였다. 청년들의 함성소리도 높았다. 붉은 기발이 휘날리고 질통이 넘치도록 흙을 진 사람들이 줄을 지어 동쪽을 향하여 파도처럼 밀려가고 또 밀려왔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하고 잔등에 진 질통에는 흙물이 새서 줄줄 흘렀다.

허나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몇시간을 달렸으며 몇십리를 달렸는지 몰랐었다.

200 짐이면 105 리, 그보다 더 달려 110 리 짓밟히고 또 짓밟히운 감탕은 처음에는 강엿처럼 찢득거리다가도 오래지 않아 죽처럼 늪어져서 무릎까지 쑥쑥 빠져버렸었다.

수백 수천의 대렬, 흙밀차들...

다시 새길을 열고 새땅을 밟고 다시 내달리는 그동안에 흙구멍이는 깊어지고 흙발은 차츰 멀어지건만 그럴수록 청년들은 더욱 용을 쓰며 소리치며 기운차게 내달렸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앞에서 누가 달리는지 뒤에서 누가 달리는지

자기의 질통에는 흙이 얼마나 담겼는지 모른다.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시간을 다투어 달린다.

청년들은 한가스레 앉아서 음식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물때가 멀지 않았다. 바다물이 또 밀려올때가 되었다. 달리는 녀인들이 청년들결으로 음식버치들을 날라간다. 판매원들이 청년들의 호주머니에 알사탕을 넣어주고 파자봉지를 안겨준다. 그들도 흙밀차를 밀고 함께 달린다. 리발사들도 손님이 없어 리발기를 걸어놓고 삽자루를 쥐고 달린다.

썩아- 처절썩 파도가 밀려든다. 파도는 용을쓰며 달려든다.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은 태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는 길길이 솟구치며 공사장의 모든것을 휩쓸어갔다.

작업장은 파도에 덮쳐워 뒤죽박죽이 됐다.

배우에 고정시켜놓고 물이 들어오면 물에 떠서 작업하고 물이 나가면 바닥에 내려앉아 작업하던 그 굴착기가 위협했다.

창호가 그때 그 굴착기 몸체를 쇠바줄로 다른데 의지하여 비끄러매다가 세찬 파도에 휩싸여 바다속에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뒤 그를 찾아내여 그의 몸에 갇힌 옷주머니를 뒤졌더니 자그마한 수첩이 나타났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선에서 사진을 찍은 전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전투원들은 창호의 전우들이었다. 그는 그 청년에게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었다.

사진을 보고 그는 전쟁시기 전선에 나간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겠는가를 생각했다. 사진 뒤장에는 전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날자가 찍여져있었다.

창호는 그 굴착기를 가동하기 위해 수많은 비겁분자들과 싸웠다. 수단도, 로력도, 자금도 부족한 그때였다.

먼 래일에나 할 일이라고 떠벌이는 사람들에게 창호는 말했다.

《우리는 해야 하오. 그 먼 래일을 위하여 지금 해야 하오.》

한성보는 그것을 작가에게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는 마치 그 모든 일이 바로 어제일인듯이 생각되었다. 아니 그것은 먼 나날의 일이 아니었다. 오늘이라고 왜 그것을 전설처럼 이야기할수 있던 말인가.

작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열성스레 무엇을 적어나갔다.

《창호란 사람이 죽은후이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간석지건설장에 오셨던 일이 생각나우다.

그날은 비가 몹시 퍼붓는 사나운 날이었소.

어버이수령님께서 배를 타시고 몸소 간석지에 오시었는데 그이께서는 수수한 군인용비옷을

입으시었소.

수령님께서는 질척거리는 감탕관우에 큼직큼직한 발자국을 찍으시며 간석지를 돌아보시었소.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이 간석지땅을 내다보시다가 갑자기 이 간석지건설장에 송창호란 사람이 있는가고 물으시었소.

사람들은 모두 놀랐소.

그이께서는 전쟁시기 전선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백송리에서 만났는데 전후간석지를 막을 전망을 이야기하니 선참으로 간석지건설장으로 달려가겠다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 청년이 송창호였다고 말씀하시자 지배인이 그의 회생에 대해 말씀드렸소. 그때 수령님께서는 간석지땅을 멀리 내다보시지만 하시었소.

<남반부에 고향을 둔 동무였소. 우리는 그의 꿈을 아직 실현시켜주지 못했는데...>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말씀을 안하시다 다시 이으시었소.

<그때 내가 이 간석지건설은 100년을 작정하고 대를 이어 밀고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대경륜이라고 하자 창호동문 기념비적인 이 사업을 자기가 맡아하겠다고 결의하여나섰더랬소.>...

그때 사람들속에 끼여 우리는 눈물을 흘렸소.

우리는 송창호가 속절없이 남모르게 일생을 바쳤다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창호는 죽어서도 빛나는 영광을 지녔소. 우리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소?>

그는 방불스레 안겨오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는 듯 두눈을 잔조롭게 좁혀보고 멀리 앞쪽을 바라보았다.

배가 섬에 닿았다. 성보는 작가에게 말했다.

《작가선생, 준첩선에 저와 함께 갑시다.》

《거기 그 영길이란 청년이 있는데 말이지요?》

《예.》

《그럼 준첩선에 먼저 갔다가 섬에 넘어갑시다.》

제방 저쪽에 함선같은것이 보였다. 준첩선이였다.

준첩선에 배가 가까이 갔다. 그러자 갑판쪽에서 한사람이 걸어 나왔다.

준첩선에 대고 러객선쪽의 선장이 소리쳤다.

《여보게, 손님이 왔네.》

그러자 준첩선에서 상대방이 응답했다.

《오, 반갑네.》

배가 준첩선에 다가들자 성보는 준첩선에 뛰어올랐다. 작가도 뛰어올랐다. 천마력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진동에 준첩선은 고르로이 떨고있었다. 웅크리고있으니 말이지 군함과 다름바가 없었다.

갑판장이라 하는 사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한성보는 갑판장과 작가를 서로 인사시켰다.

갑판장은 그들을 데리고 배앞쪽으로 갔다. 배앞

의 조종실문을 열더니 안에 대고 소리쳐 영길이를 찾았다. 조종실에서 한 청년이 일어섰다. 귀가 크고 눈썹이 짙은 순박해보이는 청년이었다.

영길은 성보를 보자 반가와했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의 소개를 받은 영길은 벌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청년은 그들을 자기 선실로 안내했다. 선실은 조종실밑에 있었다. 벽쪽에 침대가 두층으로있었고 가운데 책상이 있었다. 침대는 모두 여섯개였다. 선실에 드리운 휘장이 흰색바탕이여서 선실은 더욱 산뜻한 맛을 자아냈다.

《평양에서 온 작가선생이네. 자, 젊은이들, 인사하게. 영길이, 자네 처가 이걸 보냅네.》

성보는 선실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인사시키고 나서 꾸레미와 편지를 전해주었다.

책상우에는 대학교과서들이 펼쳐져있었다.

《대학수업을 받으니까?》

작가가 물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선생님들이 찾아와 강의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를 대학강의실로도 꾸렸습니다.》

다른 청년이 덧붙였다.

《우리는 해병들이였습니다. 군함에서 준첩선으로 옮겨왔지요. 장래 수십만정보의 간석지를 막자면 이 준첩선들이 큰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간석지를 개간하는 때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 준첩선에 대학강의실을 개설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동그런 유리창밖으로는 출렁이는 바다가 내다보였다.

준첩선은 힘있게 부르르 떨며 감탕물을 제방쪽으로 쏘아내고있었다.

건설장의 장엄한 정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크나큰 산을 허물어 내고있었다.

굴착기가 쉬임없이 팔을 휘두르고 《자주호》와 대형자동차들이 그 주위를 오가고있었다. 계선장에서는 배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돌을 실은 짐배들이였다.

오색기발과 함께 힘있는 구호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긴 제방 눈뿌리 아득해진 그쪽에 배들이 가는 것이 보였다.

성보는 창호가 남녘땅 서해기슭의 섬들을 막을 공상을 하던 생각이 났다.

쫓기개라는 큰 개울이 바다에 잇닿은 그의 고향마을앞에 무연한 간석지가 있었다 한다. 그 간석지에는 조개섬, 대추섬, 마늘섬이 있었다.

고기배들이 나들고 철새들이 날아들었다는 그의 고향마을은 8.15 직후만해도 한산하고 험벗은 옛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창호는 그 고향 바다가에 가지 못했다...

《편지를 좀 볼수 있겠습니까?》

작가가 편지를 보는 영길에게 말했다.
《이 편지 말입니까?》 영길이가 머리를 들고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영길이는 쑥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편지와 작가를 번갈아보았다. 그는 낮이 불덩어리가 되어 난처해했다.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영길이는 주뭇거리며 안해에게서 온 편지를 작가에게 보였다.

작가는 웃으며 그 편지를 보았다. 깨알같은 글씨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전해올려요.

일이 바빠진 모양이군요. 당신이 이야기한대로 정보아버님에게서 부루씨를 얻어 터발에 뿌렸어요.

집의 복술개도 새끼 여섯마리를 낳았어요...》

《헤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가가 물었다.

《보름밖에 안되었습시다.》

《보름밖에 안되었었다? ...》 작가가 중얼거렸다.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이제는 6년이 되어웁니다.》

《6년?》

작가가 놀라운듯 머리를 들었다. 그는 잠시후 의미있게 말했다.

《신혼살림, 신혼살림이라...》

연분홍빛머리수건이 언뜻 창문밖에 내다보였다. 작가는 눈을 가느스름히 쏘프리고 그쪽을 내다보았다.

작가의 시선을 쫓던 한 청년이 말했다.

《이고장 해양연구소 연구사입니다. 우리 준첩선의 한 동무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제방 한쪽에서 청년과 그 처녀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작가는 그 연분홍빛머리수건 임자가 아까 배우에서 보던 처녀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제방우에서는 예술공연을 하는것이 보였다.

배에서 본 아주머니와 애들이었다.

그들이 공연을 하는 모양이었다.

한성보는 늘 보는 정경이지만 간석지건설장의 정경을 다시 보자 가슴이 울렁거려왔다.

아, 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투쟁을 하여왔는가.

지나간 그 모든 일들이 사무치게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간석지가 어떻게 비단섬으로 전변되고 이 간석지들이 어떻게 전야로 전변되었는지 모든것이 전설같이 여겨지기만 한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준엄한 나날에, 가장 어렵고 힘들던 그 나날에 오늘의 번영을 가져올 아버지들의 수고에 대하여 머리숙여 인사를 보내야 한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에 보면 다 영웅들이다. 그 전야에 지금은 새들이 날아든다. 그 전야에 지금은 씨를 뿌리고있다.

이 몸도 이 웃음도 이 준첩선도 그들이 창조했다.

수령님께서 간석지를 돌아보신 그 이듬해였다.

바다물이 또 밀려들었다. 바람세가 부쩍 사나와졌다. 물이 예정시간보다 더 빨리 지는것 같았다. 파도가 밀려들어 동쪽을 때리며 튀겨오르고 물바래를 일으키며 동쪽에 휘뿌려졌다.

바다의 광란은 이미 시작된것이였다.

만조시간까지 몇분 남지 않았다. 동쪽이 위험했다.

바람은 기발들을 찢어놓을듯 불어댔고 세찬 함성으로 작업장을 때리며 사람들을 후려갈겼다.

동쪽은 허리를 시큰거리며 긴 몸을 굽혔다 폈다하는것 같았다.

《동무들, 흠가마니를 흠가마니를...》

수십수백의 청년들이 안쪽경사면에 엮터 동쪽을 타고있기도 하며 바다를 안은것처럼 와와 일제히 쪽을 내밀었다.

《동무들... 끝까지 사수합시다.》

《사수합시다.》

동쪽을 타고넘는 물갈기들이 우박을 쥐여뿌리듯 그들의 머리에 등어리에 가차없이 내리뿌렸다.

《물러서시오, 위험하오.》

사람들이 달려와 그들을 밀쳤다. 사람들은 물러섰다.

그때 동쪽허리가 옆으로 탁 비틀어지며 하늘이 뒹뒹 무너지는것 같은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터져나간 동쪽대목으로는 광란하는 바다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구 아무것이나 설것어안고 달려갔다.

모든것이 삽시에 눈깜박할사이에 벌어졌다.

작업장의 광경은 눈뜨고 차마 바라보기조차 참했다.

군중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으흑 하고 흐느꼈다.

그 첫울음에 오염이라도 되듯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어깨를 들먹였다.

벌써 몇번째인가...

그 나날에, 패배감이 온 간석지마을을 뒤덮고있던 그 순간에 성보는 사람들앞에서 소리쳤다.

《동무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요. 이 땅과 이 바다에는 조국을 지켜 피를 흘린 사람들의 넋원이 깃들어있소. 그래 우리 인민이 무엇으로 원썬들과 싸워이겼소?》

이걸 막아야 먹고 입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있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전투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선실휘장에 수놓은것이 무엇입니까?》

작가의 물음에 한성보는 머리를 돌려 침대옆의

해보를 보았다.

해보에는 새들을 수놓은것이 보았다. 한 새를 작가가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원앙이지요. 바다원앙새, 물에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사람들은 비비취라고 부르지요.》

《실지 어떻게 생겼는지...》

《부리와 말이 빨간걸 젖혀놓고는 신통히 까치를 방불케 하는데 제일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지요.》

《그 새들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쌍쌍이 날아다니지요. 한쪽을 잃어버리면 남은 한마리는 슬픔에 못이겨 죽는다구들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사는 새가 아니라도 여기에 수를 놓았습니다. 바다의 원앙 비비취라고...》

《수를 잘 놓았습니다.》

영길이가 뒤덜미를 쭉쭉 문대며 판창을 한다.

작가는 웃었다. 덧이발을 살짝 내보이던 영길 이치의 그 수집어하던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웃었다. 아마 그 녀성이 이 수를 놓았는지 모른다.

한성보는 비비취를 보자 간석지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작가에게 이야기해주고싶은 생각이 났다.

간석지사람들은 물을 그리워하는것만큼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 사랑은 그들에게 있어 생활과 함께 이룩된 귀중한 산물이었다.

사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희생시킬줄 아는것이 간석지사람들의 성격인지 모른다.

한성보는 창호 생각이 났다. 창호는 전호속에서 사친 녀동무가 있었다. 부대가 새로 편성되면서 그들은 헤어졌다. 그들은 한고향 동무였다.

그런데 그후 소식을 잃었다. 그 처녀는 전사했다.

창호는 그러자 그후 장가를 오래동안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권고했지만 왜서인지 가지 않았다. 바다의 원앙새 비비취처럼 너무도 가슴속에 깊이자리잡았던 그 상처를 인차 아몰리지 못해 그랬는지...

창호는 전쟁이 끝나자 간석지에 와 오래있다가 전선에서 자기의 한 전우가 죽으면서 남긴 한 사내애를 데려다 길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도 갔다. 그 애가 영길이었다.

《약소하지만 많이들 드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아버님, 왜 드시지 않습니까?》

영길이가 집에서 보내온 떡보따리를 풀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성보에게 맥주를 권했다. 준침선에서 내주는 맥주였다.

작가가 그를 보고 미소를 짓고있었다.

《간석지에 오니 마음에 듭니다. 언젠가 한 장편소설을 본 생각이 납니다. 그 소설에는 간석지를 아주 처절하게 그렸습니다. 옛날 왜놈들이 있을때는 사람들이 간석지에 와서는 갈대밭에서 갈을 베다가 모기에 뜯기우고 병마에 시달리다가 쓰러진다고 했지요. 물에서는 그의 처들이 남편들을 기다리고...》

그러나 많은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긴긴세월 안해들은 남편들이 파도에 씻기고 병마에 시달리다가 거적때기에 싸여 돌아오는것을 보기가 일쑤라고 했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듣던 한성보는 어제밤 뒤척이며 잠못이룬 일이 생각났다.

젊은 시절에는 파도소리가 울리는 섬에서도 깊은 잠에 들곤했지만 그 밤에는 정적이 깃든 자기 집에서 잠을 이룰수 없었다.

군관이 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들은 편지에 썼다.

당비서가 몇번이고 권고했다는데 왜 물에 들어오시지 않는가, 왜 섬에 그냥 출근하는가, 아버지가 아니라도 새 사람들이 자라났다, 그런데 왜 그냥 섬에 나가는가...

한성보에게는 네 아들딸이 있었다. 첫째는 군관이고 둘째는 연구사고 셋째는 대학생이었다. 그것은 그의 안해와 딸애의 권고이기도 했다.

한정보는 그날밤 자리에서 입이나 담배를 붙여물었다. 불이 꺼지면 또 붙여물었다.

한성보는 30년전에 창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일이 생각키웠다.

《기러기는 오고 토요일은 또 가지...》

창호가 그때 말했었다.

멀지 않은곳에서 밤기러기들이 와글범씩 고아대며 덤뻤다쳤다.

창호는 밤물이 들어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밤중도 가리지 않고 되걸어 돌아오는 저 밤물이 려로에 지쳐 굶아떨어졌던 기러기들을 깨워놓았던것이다.

《가아, 가아, 가아.》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무질서와 혼란속에 떼다가라앉았다 하는 밤기러기들로 해서 더욱 소란

스러웠다.

《밤기러기들이 왜 저렇지요?》

성보는 창호에게 물었다.

《다 제소리들이지. 밤물이 들어오는 징조야. 기러기들이 차츰 높은데로 자리옮김을 하노라고 저야단이야. 여름철엔 낚물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밤물이 많아지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맞받아 막아야지 .》…

한성보는 어제밤 처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물에 들어오면 어떨까? 로친네하고 함께 늘 출근도 하고… 영화구경도 같이 가고 저녁이면 산보도 같이 하고…》

마누라는 대답이 없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야지.》

《궁상맞은 소릴 …》

마누라가 하는 말이였다.

《왜 궁상맞은 소리야 ? …》

한성보가 되물었다.

다음날 안해가 싸주는 점심이 든 구력을 들고 한성보는 섬으로 나왔다. 안해는 그를 정겨운 눈길로 배웅했다. …

《해거름이야!》

준첩선 창구에 섰던 한 청년이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모두 밖을 내다보았다.

한성보도 생각에서 벗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서쪽하늘이 장엄한 노을빛에 물들어있었다.

크게 부풀어오른 저녁해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하늘과 바다가 맞붙는곳에 등실 떠있었다. 그 해는 물결과 더불어 바다우에서 여러 쪼박으로 흩어져 넘실거리고있었다.

바다가 용광로의 쇠물모양으로 펄펄 끓고있었다.

마치 그 바다가 하나의 커다란 쇠물의 바다인양 사뭇치고있었다. 바글거리는 쇠물은 물결우에서 발버둥치며 떴다 가라앉았다 했다.

수천수만의 검들이 수면우에서 춤을 추었다. 큰것, 작은것, 누운것, 선것, 천태만상으로 뛰노는 그 검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칼부림하는것 같았다. 락조로 불태우는 저녁경치는 바라볼수록 아름다웠다. 눈앞에 펼쳐진 장쾌한 바다를 보는 한성보는 흥분했다. 그 바다가 이제 설레이는 전야로 될것이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는 가슴이 흐뭇했다. 그날은 멀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물에는 벌써 봄이 왔다. 이 섬우에도 봄이 올것이다. 그 봄은 점점 가까이 오고있다.

한성보는 그 봄을 맞으며 자신이 점점 더 젊어져간다는것을 새록새록 느꼈다. 간석지에 봄이 왔는데 왜 그에게도 봄이 오지 않겠는가. …

한성보는 선실을 나왔다.

그는 준첩선 갑판옆에 떠있는 전마선우에 올라노를 잡았다.

전마선은 천천히 섬제방에 가닿았다. 한성보는 섬에 뛰어내렸다.

그우에는 바로 그가 한생을 바쳐 일해온 그 일터, 바로 그 일터가 있었다…

가사

왕재산의 새마을은 북변의 리상촌

안정기

두만강의 물소리 봄노래 불러불러
향도의 자옥마다 꽃수를 놓았는가
백살구 향기속에 창문들 반겨웃는
왕재산의 새 마을은 북변의 리상촌

나라 없던 세월엔 눈물 많아 심청리
류량의 마지막길 와당은곳 예 아닌가

프락또르 노래속에 벼바다 춤을 추는
왕재산의 새 마을은 북변의 리상촌

유서깊은 참나무는 영광에 설레이고
봉화탑의 불빛은 누리를 밝혀주네
우리 당의 해빛 안고 공산주의 내다보는
왕재산의 새 마을은 북변의 리상촌

시조

대학시절, 청춘시절

홍현양

룡남산마루에서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고싶지 않은 산마루
바람이 옷자락을 날리며
자욱자욱
깊은 뜻을 심어준다

푸른 숲의 설레임에
마음도 한껏 부풀어오르는 여기
세월도 지울수 없는
위대한 자욱이 새겨져있어
조선의 영광이 하늘로 열렸다

그 하늘
가없이 펼쳐진 한끝에서
타오르는 노을은
조선혁명 책임진
그날의 맹세를 아로새겨 그리도 붉은가

세월의 이끼로도 덮을수 없고
추억의 갈피에서도 력력한
위대한 자욱
조선을 빛내여갈
룡남산의 그 맹세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주체혁명의 한길우에 첫 자욱을 댄
종합대학의 이 언덕
학창의 첫 시작점이며

잔디 푸른 이 산마루
여기에서 맞는 대학시절은
영원한 청춘시절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는
인생의 참된 뜻 소나무처럼 청청하다

한번 내짚어
천리를 달리는
백두의 슬기가 여기에 차넘치고
천지기슥의 고산초 향기가
룡남산기슭에 그대로 스며인 땅

내리는 눈송이도
백두밀영의 흰 눈빛
대학의 창문들도
밀영의 고향집 띄창을 닮아
비낀 하늘에 룡남산이 솟아있다

아마도 그래서
한번 밟으면
다시 내리고싶지 않은가
아, **김일성**종합대학
여기에 백두의 뜻으로
혁명에 청춘을 피워주는 불멸의 언덕이 있구나

영광을 주고
행복을 주고
먼먼 길에 지칠줄 모르는
위대한 스승의 자욱을 이어주는
룡남산이며

대학거리

그 어느 가로수밑이더나
내 공상에 잠겨 걷던 대학거리여
오늘도 변함이 없이
피끓는 청춘
대학시절에 차넘치고있구나

꿈만 같이
이 거리를 활보하던
학창의 나날이
어쩌면 나의 젊은 시절처럼

웃음속에 흘러가고있느냐 푸른 교복에
넥타이를 맨 낮모를 대학생도
이 거리에선
구면처럼 반갑구나
한번 말을 건네고싶구나

가로수에 등을 대고
열심히 읽고있는 그 책을
내 동창의것처럼
한번 슬쩍 빼앗아

읽고싶은 충동이 뚫어오르는 거리

어디 가도
정녕 그 어디에 살아도
내 잊을수 없구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김일성 종합대학 휘장을 달고
젊음을 자랑하던 이 거리를

어디에서 로교수를 만나든
이 거리에서 인사하던
그때처럼 아, 그때처럼
허리굽혀 절하고싶은 마음

여기에서 익힌 걸음새로
조국땅을 밟으며
고마움에 목이 메일수록
대학거리여 너는 떠나 못살

세월이 가도
만나면 한학급시절
그대로인 동창의 벗들
얼굴엔 주름살이 생겼지만
익살은 청춘시절 그대로구나

저 층높은 대학계단을 오르며
탄전의 실습지 막장에서
우정을 나누고
지혜를 함께 되운 그 걸음새
나이드 변하게 하진 못했구나

학교 교실의 창문을 통해
생각속에 바라보던 푸른 하늘
룡담산마루
향기론 잔디밭에 덩굴며
부푸는 가슴 달래길 없던 눈빛들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내 확장의 고향길이었구나

박격포가를 메고
락동강을 도하했던 나의 옛 학급장도
지금도 차에서 내려
다시 밟아보는 저 가로등밑
인생의 청춘시절인 배움의 추억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의 사랑이 있어
저 백두밀림 로장의 아이들도
이 거리를 밟으며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세월과 헤어졌구나

내 머리우에
벗들의 머리우에
흰서리를 모르는 추억을 주는 거리
여기서 발맞춘 그 청춘이 오늘도 피고있구나

동창의 벗들

시간이 가는줄도 몰랐구나
탐구로 지새우는 밤이면
누가 먼저 불을 끄자
제기할줄도 모르던 마음들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밝히시면 탐구의 밤
그 시간속에
심장도 숨결도 맞추며
청춘의 한모습
벗으로 사귀 우리

그 마음들이
대학의 그 불빛을
탐구자의 한생애 밝혀놓고 살았구나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한학급 한 책상에 앉은 때처럼
동창의 벗들로 걸어왔구나

그 누가

시대의 멀리에 떨어져 살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밝혀준
과학의 등불을
한시도 끄지 않고 살아온 벗들아

어깨걸고
손목을 잡고
대학의 층계를 함께 밟아
동창이라면
그것은 아니된 말

책을 번지며
수학공식도 같이 풀던
깊은 밤의 그 우정을
탐구와 발견의 세계에서 함께 꽃피워
빛이 나는 동창의 벗

벗이란
조국앞에
우정앞에 성실할 때
대학의 문을 같이 나선
피땀은 심장도 붉게만 뛰여라

렬차는 정시로!

9월의 새벽
렬차는 정시로 들어선다
이 땅의 모든 역들에서
개학의 날을 맞으며 오른 대학생들
그들의 푸른 희망을 싣고 들어선다

그 언젠가
나의 대학입학의 나날도
이렇게 순간도 트림없이
머나먼 인생행로에
자기의 시간을 맞추며 들어섰으리

할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산촌의 작은 역에서
책 몇권을 안고 떠났던 시절이어
그 시간이
나의 가슴을 두드린다

기억속에서도
멀리 사라져버린
렬차의 시간표가
어이하여 이처럼 못견디게
심장속에 파고드는것이냐

아, 얼마나 많은
꿈많은 청춘들이
이 시각에도 대학의 문을 향해
조국땅 모든곳에서 오고있는가
나의 희망도 싣고왔던 렬차여

평양역 홈에서
그 기적소리를 다시 듣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였던
대학의 그 밝은 창밀으로
나를 안고왔던 그 목소리

포연탄우속에선
영웅전사들을 다시 백송리의 교정으로
전후의 재더미우에선
대학의 새 교사로
대학생들을 싣고오던 이 시간

이 시간속에
렬차는 정시로 들어선다
9월의 새벽
개학의 시간표에 맞춰
내 추억의 그 시간표와도 트림없이...

한초도 어김이 없어라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태어난
나의 아들도
먼먼 날의 후손들도
이 영광의 시간속에 대학의 문에 들어설것을...

렬차는 정시로!
조국이 열어준
대학의 문을 향해
봄날같이 삶이 만발한
웃음이 쏟아져내린다
열정에 단 발걸음들이 내린다!

그 시절에 산다

그 시절에 산다
세월은 갔다
졸업증을 받아안고 떠난
대학의 구내길이 저 멀리
추억속에 아물거려

그래도 언제나 그 시절에 산다
우리 언제 한번
기억속에 지워버린적 있던가
대학출석부에 올랐던 그 영광

어디서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 운명
조선의 청춘이어서 받아안은 그 행복을...

백두의 눈길우에 설피신고
피흘리며 쓰러지며
항일의 투사들이 진대를 넘어
숙영지의 나무들에 새긴 불멸의 구호를
우리는 전적지 우등불가에서 시로 읊은 첫 세대

우리의 학창
값높은 대학의 나날은
강선에서 천리마가 나래쳐오른
조국이 허리 펴고 일어서던 년대
우리의 배움은
조국의 그 숨결을 피줄에 새기던 그 진리!

고요한 강변에
낙시대를 드리우는 오늘에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
물속에 몸을 잠그고 석축을 쌓던
구리빛 팔뚝, 구리빛 얼굴들을

아,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날에 흘린
대학생의 진한 땀으로
탐구의 열정
배운 지식을
기념비로 이 땅에 세운
그것이 우리의 일숨씨!

어찌 잊으랴
세월이 천만년 간들
우리와 함께 목고를 메고
땀도 함께 흘리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장에 남기신 행복한 그 웃음을...

만약 정적이 깃든
도서관의 밝은 서재에만
우리 학창의 나날이 있었다면
어이 대성산 솔숲을 거닐며
대동강의 수양버들밑을 지나며
대학시절의 랑만을 생각하랴

깨진 벽돌장을 밟으며
조국이 시련의 고비를 넘을 때
친애하는 그이따라
대학생 우리의 발자욱도
그속에 뚜렷이 찍혔기에
우리는 그 시절에 산다

눈부신 미래로 그려보던
오늘의 행복을 안고
머리에 흰 서리 내리는 이 순간에도
대학시절, 청춘시절
그 삶의 언덕에 영원히 뿌리내리며 산다
조국의 아들로! 강선의 정신으로!

내 조국이 빛나는것은 외1편

김희종

내 소년시절
교실의 지구의를 돌려보다가
문득 눈길을 멈추고
생각깊어지던 일 잊혀지지 않아라

파란빛 누른빛 넓은 령토들속에
크지 않은 내 나라를 짊어보며
땅이 컸다면 이렇듯 짓밟혔을가
스스로 마음속에 묻던 일

내 오늘 지구의앞에서
내 조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나니

고요히 아침노을이 비껴올 때도
받아안은 은정에 가슴이 후터워지고

하늘가에 철새들이 날아갈 때도
떠나서는 못살 그리움이 젖어와
불을 비비며 안기고싶은 정다운 품

문노니 조국이어
땅도 변함없는 그 땅
사람도 다름없는 그 민족이건만
어찌하여 내 가슴 이다지도
존엄과 긍지로 부풀어오르는것인가

하늘땅이 넘쳐나게 솟아오른
대기념비들의 웅자
그 자욱마다 위훈의 숨결이 뜨거워
무심히 디디지 못할 소중한 이 땅

하늘과 바다로 5대륙의 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흥성이는 강산
번영하는 생활의 꽃물결을 일렁이며
온 인류의 넋을 흔들어 깨울 때

환희에 목매이며 눈물겹도록 쓰다듬고 싶더라
조국이어 내 조용히
그대가 떨치는 높은 존엄을 생각하면
어느덧 누리를 가득히 채우는
주체의 해발 승엄히 어려와라

그 빛발을 지니어
그대의 넋은 세기의 한끝까지 나래치고
그대의 힘은
산악도 바다도 뜻대로 옮기더라
그 빛발을 지니어
그대의 품은 봄날처럼 따사로워
사람마다 밝은 미소로 꽃피거니

그 빛발만이 가질수 있는
가장 불타는 넋으로 힘으로 사랑으로
하늘가 아득히 받들어 올린
그대 존엄의 높이를 어찌

령토의 넓이로 헤아릴수 있으랴

누리는 영광 끝없어라
인류사상의 정점에 노을처럼 피어난
주체사상의 빛발
그 위대한 진리의 고향으로 빛나는
나의 조선

공전하는 지구의 새로운 축을 보며
나는 당당히 이 땅을 짚어보노라
자주시대의 만발한 화원을 보며
끝없이 이 땅을 걷고싶어라

그렇다
땅도 그 땅이 아니여라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여라
령토의 계선 넘어
민족의 한계를 넘어
세기를 밝히는 빛이며
만민을 한품에 안은 땅이며 하늘인
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내 조국이어

옛말하며 걸어가자

옛말하자 옛말하자
험하여 못가던 길도
높아서 못넘던 령도
우리 옛말하며 걸어가자

들을 가르며 후련히
지평선에 뻗어흐른 이 길은
비만 내리면
사람도 차들도 밭목 묶이며
갈길이 천리갈던 진펄이었단다

발파의 더미구름 피여올리며
반달처럼 휘우듬히 넘어선 이 길은
고개고개 열두고개
넘다가도 그 몇번 걸음 멈추고
후 가쁜숨 내뿜던 령이었단다

오, 평양-개성사이 고속도길이어
연연 흐르며 수백리
그 많은 산도 들도 강물도
곧추 흐르고 헤가르며
대대로 걸어오던 고달픈 사연을
얼마나 많은 옛말로 남겼는가

하지만 옛말중에 큰 옛말은
처음으로 이 길이 시작되던 이야기
위대한 지도자 친애하는 그이
세상에 제일 좋은 길을 그려보시며
산맥도 계곡도 강물도 하나로 이어가는
곧은 선을 그어주신 이야기

그 선이 청학산줄기에 닿아서는
밝고 화려한 차굴이 열리고
그 선이 례성강 넓은 강폭을 질러서는
하늘의 선녀들도 사뿐히 내려앉을듯
여덟쌍 무지개다리가 놓이고

흘러흐르는 그 선은
들이면 변모하는 락원의 새 풍경
산악이면 신비로운 풍운조화미
골짜기면 백화만발한 향기들
한길우에 다 모아 명승지를 펼쳤나니
옛말하자 옛말하자
그림처럼 아름답고
노래처럼 즐겁게 흐르는 이 길을
옛말 없이야

더더구나 시작에 깃든 그 이야기 없이야
어찌 가벼이 걸음을 옮길수 있더냐

걸으면 조선이 걸어가는
광활한 미래가 한눈에 안겨오고
걸으면 온 겨레의 환호성이 터져흐르는
통일의 광장이 지척에 어려오는 이 길

아 우리 행복의 영원한 나래침인듯
땅이 아니라 세월의 한끝까지 흘러가는듯
걸어도 옛말처럼 끝없는 이 길이
마음에는 자꾸만 자꾸만
향도의 해발을 따르며 가는 길로 보이누나

평양을 위하여

리금녀

하늘이 이렇게 높은줄
층층 아득한 지붕을 보며 내 알고
땅이 이토록 넓은줄
창광거리 광복거리
가없이 뻗은 이 길우에서 깨닫게 되는
평양

늘 보던 버들이건만
여기선 송엄하도록 푸르르고
눈에 익은 꽃이건만
그앞을 좀체로 못떠나게 되는
수도의 유원지 아름다운 기슭이여

한조각한조각 다듬어보낸
뒤산의 흰돌이
여기 만년대계기념비
대리석기둥으로 솟아나고
분초를 아끼며 짜보낸 비단필이
살림집창가에
무지개처럼 비졌나니

승강기동음 고르로운 집집의 현관
어느 문을 열어도
기다리는 마음의 뱃이 있는듯
어느 방안 어느 미닫이문에도
내 성실한 땀이 스며있어
진정 모두가 내 사는 보금자리인듯

마음에 티를 가지고서는
대동강 맑은 물넋에 나설수 없기에
시대앞에 지닌 사명 다하지 못하고는
바라볼수 없는
만수대언덕이기에

아 평양
그 이름 노래처럼 외우며

우리 어머니들 아기의 첫 걸음
평양을 향해 떼여주고

평양
그 이름 희망이기에
분계연선 농장원처녀도
백두산밑 선로공아바이도
이 거리에 서보기를
이 길을 걸어보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하는 수도여

평양에 떠나는 한사람 대표가 있어
온 마을이 명절처럼 끓으며
은빛궤도를 따라서고
평양에서 돌아온 한사람 두리에 모여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으로
이 땅은 환희로 이어지고 이어지거니

평양의 숨결로 숨쉬고
평양의 걸음으로 걸으며
해쫂는 아침을 우러러맞이하듯
온 나라의 마음
오직 평양 평양으로만 달리는
인민의 수도

위대한 수령님 여기 모시고
우리 당중앙 여기 받들어
심장처럼 순간도 못떠나는
마음의 고향

여기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을
평양
삶과 운명의 전부가 여기 다 있는
혁명의 수도여

북방의 봄

주윤훈

안해가 여기 철길공사장에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리영덕은 반가운 심정은 둘째치고 우선 당황한 마음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웃음을 지을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라 먼구스러워질 낮이 벌써부터 후끈해나는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보다 나이가 우이면서 아직미혼인 《로총각》 중대장 강운철이 있는 자리에서 간혹 결혼문제와 같은 화제가 나올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마는 청년돌격대 소대장 리영덕이니까말이다.

리영덕과 안해는 지금 중대병실의 침대우에 걸터앉아있었다.

그앞 다른 침대 즉 리영덕의 잠자리에서는 엄마의 등에 업혀오느라고 피곤에 몰린 사내애가 썩썩거리며 세상모르게 자고있다. 아들이 어서 깨어나 재물을 부리며 제 품에 안겨들 시각을 초조히 기다리면서도 리영덕은 수백리길을 아이까지 돌쳐업고 차에 부대끼며 온 안해한테 벌써 세번째 똑같은 말을 푼고있었다.

《런치두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아이를 업구 여기가 어디라구…》

기차를 두번 갈아타고 해산에 와서도 300리를 더 와야 하는 길을 자동차로 어렵게 왔건만 안해 경순이는 할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채 앉았을 뿐이다.

영덕은 안해의 옆얼굴을 보았다. 첫 아이를 등에서 풀어놓으니 솟제 아주머니꼴이란 어데도 없다. 그저 애어린 처녀같기만 하니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때이른》 결혼을 강조해주는듯싶어 여느때 같으면 은근히 자랑으로 느껴질 안해의 복성스런 얼굴조차 지금은 차라리 화를 돋군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리영덕은 늘 중대장앞에서 자기의 결혼을 때이르게 느끼곤했는데 이렇게 안해가 오고보니 그런 감정이 갑절 더해진것이다.

마침 휴식날이다. 리영덕은 모두들 영화보러간 사이 제가 직일근무를 서는 때에 안해가 들어선게 다행으로도 생각되었다. 아까 중대병실앞을 지나려단지휘부쪽으로 간 두대의 자동차에 별로주의를 돌리지 않았었다. 요즘 각 시군에서려단으로 지원물자를 실은 자동차들이 수없이 들어왔기때문이다.

한데 녀성병실 직일을 서던 중대위생지도원 선희가 뛰어와서 방글거리며 말했다.

《1소대장동지, 집에서 왔어요!》

《집이라니?》

《경순동무가 왔어요! 순철이 엄마…》

《뭘, 뭘요?》

리영덕은 짜장 곁에서 폭탄이 터지는것만치나 놀래였다.

안해는 남편이 속한 중대가 령하 3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얼음물속에 뛰어들어 감탕을 파내며 로반기초공사를 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나서 그날밤 잠을 자지 못했다는것, 마침 군에서 여기로 오는 자동차가 있어서 집에서 기르던 백기로짜리 돼지를 싣고 운전칸에 앉아왔다는것이였다.

남편의 눈치를 보던 경순이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제 사흘 있으문 무슨 날인지 알아요?》

허나 영덕은 눈을 껌벅거리며 안해를 뻔히 바라보기만 했다.

경순은 방싯 웃어보였는데 마치 이런 말로 남편의 마음을 풀어줄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을 기뻐하는것만 같았다. 경순은 자는 아들애의 얼굴을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첫돌인줄 모르세요?》

영덕의 얼굴에는 그것을 감감 잊고있었다는 자책보다 안해의 말이 던지는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움이 더 컸다.

영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다.

경순은 더듬거리듯 띠엮띠엮 말했다.

《그래서 검사… 수고하는 중대원들을 위해… 돼지두 잡구…》

영덕은 수건을 벗은 안해의 이마에서 몇오리의 머리카락이 나불거리는것을 뻔히 내려다보며 말을 못했다. 뭐라구 말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다 할지, 도담하다고 할지…그러니 결국 아이의 돌을 자기와 함께 여기서 쇠려고 온 속심이 아닌가 말이다.

허나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좀 같았은 영덕은 우선 안해가 여기로 온 정당한 리유,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될수 있는 명분이 머리속에 명백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안해는 북부철길 건설장에 돼지를 싣고 온 지원자이다. …그렇지, 손재봉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돌격대원들의 작업복도 고치구 덧양말도 깎구. 재봉침으로 할일이 오죽 많다구. 정말 안해는 특색있는 지원을 할수 있는셈이다. 중대장과 소대원들 앞에서 아이의 첫돌이란 말은 입밖엔 내지 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나니 영덕은 마음이사뭇 유쾌해지기까지 했다.

그제야 영덕은 천리길을 어떻게 왔는지 한마디도 안해한테 다정하게 묻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래 도중에 별일은 없었소?》

경순은 호-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해산까진 그럭저럭 왔어요. 백암령을 넘을 땀 막 무서웠겠지만... 한데 해산에서도 여기까지 300리 넘는다지 않아요. 풍양리를 지나 자동차가 고장나서 반나절이나 지체됐어요. 여기서 오느라 다른자동차도 보이지 않더군요. 난 어쩐지 제 날까지 못올가봐 막 조바심이 나서... 그래서 운전사가 말리는것두 마다하구 패지를 몰구 걸어서 떠났지오워. 돌덩이같은 순철이는 그저 등에서 자기만 했어요. 30리쯤 걸었는데 내가 탔던 자동차가 고장을 고치구 따라왔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그제야 안해는 봄철자케트 호주머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자기의 수고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듯 남편앞에서 어리광어린미소를 띄우는것이였다.

영덕은 여기까지 찾아온 안해의 이악스러움에 놀라는 한편 아련하기만 하던 안해가 아니라는것에 일종의 대견함과 흐뭇함을 느끼다가 정신을 차린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영화 끝날 시간이 돼오오. 중대장동무랑 오겠는데 아무래두 저쪽 녀성호실로 옮기시오.》

이제는 안해앞에서도 당황한 마음을 숨길수 있어 스스로도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안해한테 당부했다.

《선희한테두 일체 다른 말은 더 마오. 첫돌이 구워구... 녀성동무들이 여기서 어떻게 수고하는가 그거나 좀 들어보우. 당신과 고등중학교 동기생인 선희는 돌격대원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저는 벌써 얘기까지 낱구 집안에 들어왔었다가 고작해서 지원자지.》

제스스로를 면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리영덕은 안해한테 여러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리구 중대장동물 만나면 인사를 좀 잘하오. 중대장동문 강운철이라구 군사로청에 있다가 나왔소. 잘 모를게요. 군대에서 제대돼서 인차 이리로 나왔으니까. 나보다 뒤살 우인데 아직 총각이요. 무뚝뚝하지만 일에서는 내밀성이 있소.》

《꼭보이구 원칙 하나만 알면서 좀 메마른 사람같이 생각돼요.》

《건 또 무슨 소리요? 선희가 뭐라구 함데?》

《선희가 편지에서... 물론 선희가 중대장을 극력 좋은 사람이라구 썼어두... 나한테 어쩐지 그가...》

《쓸데없는 소리 마오. 돌격대지휘관으로선 드러난 동무요. 》

영덕은 제가 중대장의 성격을 리해는 하면서도 수궁은 하지 않는다는것까지는 안해한테 말할수가 없었고 다만 자신과 안해를 동시에 납득시키듯 이렇게 말했다.

《한창나이 청년들을, 그것두 군내 여기저기서 모여온 몇십명을 통솔한다는게 어디 간단한줄 아

오?... 선희와의 관계는 좀 다른 문제이구.》

《그런데 중대장동문 왜 선희같은 처녀를 몰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선희만큼 똑똑하구 빠진데 없는 처녀가 어디 있다구 글썽. 학교때두 이모저모 학급적으로 으뜸가더렸는데...》

《가만. 가만...거, 사랑이란게 수학공식처럼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거야 잘 알지 않소. 우릴 좀보오. 목장에서 일하면서 나와 동문 수화상국이었던지. 한데 우리가 이렇게 될줄이야...》

리영덕이 얘기를 안고 안해는 그결에 나란히 서서 녀성호실로 향하다가 서로 마주보며 소리없이 웃는다. 바빠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으니 여기서는 부부의 사랑을 숨기고싶은 그들이였다.

리영덕이 청년돌격대에 탄원해올 때 안해는 만삭이 된 몸이였다. 그후 안해가 해산할무렵 군에 약품 가지러 들어갔던 남선희가 안해를 데려다 입원시켰고 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선희가 여기로 날라온것이다.

중대에서 선희는 리영덕이를 친오빠처럼 대했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허물없이 터놓기도 했다.

포대기에 썬 아들애를 안해한테 넘겨주어 그를 앞세우고 녀성호실에 들어서며 리영덕은 속으로 다시금 이렇게 생각했다.

(선희보다 한살아래인 당신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돌쳐업고 여기 왔단말이지. 그러면서 아이의 돌이 어찌구 저찌구... 내 참.)

영덕이한테는 웬일인지 중대장앞에서 안해의 도착을 보고하는것이 다시금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처녀와도 같은 안해가 여기에 나타났으니 그럴 수밖에...

저으기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으로 자기가 동무들을 대하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상상해보는 리영덕이였다. 선희가 여전히 방글거리면서 포대기에 싸인 아기를 받아안아 침대우에 눕히고는 애가 깨날세라 살그니 그옆에 앉더니 주위를 둘러보는 안해한테 오느라구 수고했다는등, 어린애를 계속 운전칸에서안고 왔겠다는등, 군에서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는 등 애써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경탄과 호기심으로 뒤바뀌는 물음들을 연방 퍼부어댄다.

안해도 선희한테 끌려들어 저네들끼리 설새없이 조잘대였다.

(너자들이란 할수 없어.)

너자들끼리만 뒤두고 잠시 밖으로 나온 영덕은 마당가 아래로 흐르는 압록강가 평퍼짐한 너럭돌우에 다가섰다.

봄을 맞은 여울물소리가 열렬히 또는 간절히 무엇인가를 속삭이는데 협곡우에는 푸른 하늘이 내굴안개도 없이 맑게 열려있었다. 산기슭과 절벽에 만발한 진달래꽃구름의 연분홍빛같이 강의 물빛조차 물들이는듯싶었다. 물소리만 아니면 사

위에 너무나도 고요한 정적이 깃들 봄날의 한낮이었다.

한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애기의 캐드득 소리와 선희의 밝은 웃음소리는 중대장과 만날 난처한 생각만 다시 리영덕한테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중대장에 대한 불만이 선희한테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한테도 명백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중대장과 선희의 이상야릇한 관계가 자연히 되새겨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첫 전투명령을 받고 돌격대의 기발을 날리며 해산에서 후창계선까지 300여리를 강행군해오던 그때였다.

압록강의 칼바람소리를 누르며 울리던 중대장의 구령소리...

《떨어지지 말것! ... 이게 뭐요? 이런 눈길에 었어지다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격대에 탄원했소?》

려단에서 명령한 시간까지 당도하기 위해 중대를 사정없이 다물아대는 강운철이었다. 눈덮인 미끄러운 행군길에서 쓰러질뻔한 녀동무들은 다 그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영덕이가 녀동무들의 배낭을 자주 메주었다. 중대장의 처사에 말없이 항의라도 하는 듯이 보였을 것이다.

사실 그때 강운철이를 알게 된지 얼마 안되는 리영덕은 중대장이 지내 매정스러워보였다.

후창에 도착한 뒤 대소한추위속에서 첫 작업이 시작되었다. 령하 31도... 압록강의 여울물소리도 침묵을 지킨지 오래고 물은 오직 얼음으로써만 존재하는 듯싶었다. 니탄발을 파제끼고 거기다 막돌을 다짐하고 로반성토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전투임무... 얼음에 뒤덮인 300리산길을 굼벵이걸음으로오는 굴착기와 기계화수단을 기다리며 세월 없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해빙기가 되면 또 그것대로 굴착기는커녕 사람도 들어서기 힘들다는 진필이여서 그때는 품도 더 들고 더 많은 구간을 파내야 한다. 그러니 아예 얼어붙었을 때에 해제끼자는 것이었다. 너비 8미터, 깊이 4미터...

그런데 한미터도 못돼서 물이 차기 시작했다. 얼음을 까고 물속에 뛰어들려고 덤비는 청년돌격대원들을 향하여 려단안전참모는 《작업중지!》의 구령을 목이 쉬게 몇번이고 내렸으나 누구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중대위생지도원인 선희가 중대장의 앞을 막아나서며 그와 마주섰다.

《안돼요!》

날카롭게 웨쳤고 다음은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대원들을 말려야 할 중대장동지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강운철은 밤새 얼음으로 덮인 니탄발 물탕을 쏘아보며 말했다.

《대원들에게 명령할 수는 없으나... 내 자신에게는 명령할 수 있단말이요!》

선희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강운철이 이번

에는 간청하듯 말했다.

《제발 좀 나서오. 이러다간 로반기초구덩이가 몽땅 얼음속에 잠기구말겠소.》

선희는 물론 안전참모도 그를 제지시켜낼 수가 없었다. 그의 뒤로 리영덕이도 따라 뛰어들었다. 흑한의 얼음물속에 20분정도로 견딜 수 있다. 거기서 나와서는 즉시 방송차로 중대병실에 실려가 야만하는 감탕파기전투에서 바로 강운철이 앞장 선 것이다.

그런 정황에서도 선희가 어디선가 구해온 60프로짜리 술 몇병이 동상방지약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냈던가. 강운철이도 리영덕이도 그 뜨거운 술을 몇모금씩 마시고 더 오래 얼음물속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런이어 중대는 차굴공사장에서 일했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병실까지를 달려서 와도 그새 벌써 석수에 젖은 신발과 바지가랭이가 얼어서 소가죽처럼 된다. 돌가루가 엉켜붙은 중대장동무의 신발을 보고 선희가 밤사이 씻어서 중대병실화구앞에 앉아 말리워놓았다. 아침에 그것을 알고 강운철이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중대위생지도원의 임무는 온 중대를 보살피는 것이요.》

엄격하다기보다 너무 무뚝뚝해보였다.

다음날부터 선희가 석수에 젖은 남동무들의 신발을 밤새 깨끗이 말리워놓곤 하였다. 속보에 선희를 칭찬하는 내용이 실렸지만 중대장은 그 속보판 앞을 너무나 덤덤히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처녀돌격대원들의 섬세한 마음의 표현을 볼 때면 강운철이 리영덕에게 말했다.

《이 거치른 자연과 싸우는 철길공사장에선 역대우같은 사나이들의 힘과 담력이 필요한 거요. 녀성들을 여기 보낸 건 아무래도 잘된 처사 같질 않아.》

인정이 많고 성미가 두수한 리영덕이는

《지금돌격대엔 처녀들이 얼마나 많소? 내 생각엔 우리가 놓은 두줄기 레루중에서 한쪽은 녀성들이...》 하고 말하다가 강운철이 어찌나 세차게 핵 손을 내젓고 사라지는지 미처 말끝을 맺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중대장이 선희네가 해놓은 창안을 두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토운차에 흙을 실어나르는 작업에서 소철레루 한선으로 도무지 능률이 오르지 않아 저마다 소철레루길을 늘리고 지선을 파내었는데 하루는 처녀들이 (흔히 말하듯이 녀자들의 갑작궁리가 은을냈는지. 아니면 린절려단에서 하는걸 얼핏 보았는지 하여튼)철레루가 딸리니 나무각재로 레루대용을 할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한데 땅에 나무레루를 고정시키는게 문제로 되자 선희의 휘동하에 처녀들이 밤에 압록강 얼음구멍을 뚫고 물을 길어다 두줄기의 나무각재에 부어놓았다. 령하 30도추위에 퐁퐁 얼어붙어 아

침에나가보니 멋진 레루길이 되었다.

너동무들은 온종일 얼마나 신나게 일했던지 칠부지소녀처럼 깔깔거리며 웃어냈고 입김을 날리며 내내 노래를 불렀다.

저녁총화때 중대장 강운철은 말했다.

《수공업적이지만 괜찮소.》

남을 칭찬하는것에 린색한게 아니라 말이 모자라 그러는것 같았다. 지시를 주거나 총화를 지을 때 그는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한다.

《수공업적》이란 즐겨 그가 쓰는 말이다. 일한 이시원치 않으면 《수공업적인데》 하였고 오락회 때도 흥이 오르지 않으면 《너무 수공업적이구만》 하였다. 좋게 생각하면 모든 일을 판이 크게 적극적으로 현대감이 나게 하려는 지향이지만 늘 봐야 너무 단마디병창이었다.

어느 소대를 불러일으킬 때에는 《소대장동무, 이번에 한번 소리쳐보라우.》라고 말하며 또 누구를 보고는 긴 설명이 없이 그저 《그때처럼 한번 소리쳐봐야 할게 아닌가.》라고 한다. 소리쳐보라는건 본때를 보이라는 말이다.

중대장인 그와 위생지도원인 선희는 상론할 일이 자주 있지만 강운철은 언제나 선희의 시선을 피한채 듣고 대답하는것만 같았다.

잊혀지지 않는 그날, 지북이 쌓인 자리눈우에 다시 눈송이들이 떨어졌다. 오후에 눈은 점점 더 퍼부었다.

그런데 중대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은 선희가 저녁이 되도록 어디에도 없다는것이였다. 누군지 그가 눈이 쏟아지기전인 오전에 산에 오르는것을 보았다고 했다. 공사장에서 돌아오던 중대원들은 그야말로 산개대형을 치고 험한 산비탈의 눈속으로 올라갔다.

중대 병실 가까이에 약초포전을 가꾸겠다고 하던 선희이니 겨울에 약초뿌리를 찾아 산에 올라갔다고 단정할수밖에 없었다.

허나 눈속에 묻힌 그를 찾아내었을 때 그의 랑쪽옆구리에는 각기 불룩한 배낭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안에 잣송이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선희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배낭끈을 감쳐쥐고 기신없이 누워있었다. 남자들도 오르기 힘든 산턱의 잣나무숲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다람쥐들이 가져가고 남은 송이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모았는지... 눈속에서 갑대가지를 찾아들고 두드리다가 종내는 미끄러운 나무가지에 겨우겨우 바라올라갔을 그 정상이 상상될뿐이였다.

더구나 그 잣이 어디에 당장 소용되는지는 몰을수가 없었다. 후에야 영덕이는 그 잣이 어디에 필요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파로로 입맛을 잃은 강운철에게 잣죽을 쑤어먹이려고 했던것이다. 입맛을 돌아서게 하는데는 잣죽만한 병약이 없다고 했다

허기진데다 산비탈로 굴러떨어져 눈속에 묻혔던 선희는 중대부엌 치료실의 자그마한 침대우에

누워있었다. 사실 어린애처럼 즐거운 기분에 시작했던 일이 중대를 비상소집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빚어내리라고는 선희자신도 생각지 못한것이 분명했다.

선희가 어지간히 기운을 회복했을 때 강운철이와 리영덕이 방안에 들어섰다. 중대장은 선희를 맞바로 보지 않고 어딘가 벽쪽을 바라보며 침을 하게 랭정히 말했다.

《동문... 왜 보고도 없이 행동하오?》

이 순간 리영덕은 강운철이 결코 무규률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밥맛이 떠진 중대장을 위해 잣송이를 따왔다고 아무리 표방한다 해도 어차피 중대장동무를 위해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했던것만큼 선희의 행동이 누구를 위한것인지는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선희는 떨리는 음성으로 간신히 말했다.

《중대장동지, 제 생각만 하구... 집단에 근심만...》

강운철이를 따라 리영덕이도 밖으로 나왔다.

강운철은 흘끗 리영덕을 돌아보고나서 툭 내쫓듯 말했다.

《너자들이란 참...》

그 말은 흡사 《보오. 너자들이란 그 압솔한 인정으로 종종 큰일을 그르칠수 있단말이요.》 하는듯이 들었다.

강운철이는 가고 리영덕은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고있었다.

《선희...》

리영덕이 불렀으나 선희는 대답이 없었다.

선희의 그 눈물은 자책의 눈물이 아니였다. 흔히 처녀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지내 드러내보였다고 생각할 때 후회는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존심의 손상으로 몸부림을 칠 때 흘리는 눈물일것이었다...

그렇다. 이렇게 지금 강운철이와 남선희의 관계를 새삼스레 더듬게 되는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안해의 도착으로 리영덕은 확실히 소심해지고 중대장을 만나기 두려워하면서 중대장의 성미를 《타매》 하려고 서두르는것이였다.

리영덕은 흐르는 강물에서 눈을 들어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물황철나무 우듬지에서 까치들이 깍깍거리고 압록강의 물결이 해빛에 반짝이며 너럭바위와 처절씩 부딪치다가는 거침없이 흘러간다.

리영덕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지금은 사랑, 결혼, 가정 같은것을 알고고도 하지 않는것같은 인정사정 볼줄 모르는 중대장밑에서 쫓수에도 어울리지 않는 소대장노릇 한다는것이 조련치않은 일이 아닌가말이다.

생각은 자연 강운철이와 남선희의 관계를 《조절》해보려던 자신의 부질없는 행동으로 쏠리였

다.

얼핏 보면 그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날것만 같았다. 처녀의 사랑은 깊숙이 숨겨진듯 처녀는 남들앞에서 더욱 명랑하고 쾌활한 티를 보이려고 애쓰는것이 험동하였다.

바로 착송이사건이 있은뒤 처녀의 복잡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짐작하는 영덕이 한번은 이렇게 선희에게 말했다.

《운철동문 남자는 남자지만 너무 무뚝뚝하고 냉정한 친구야.》

그러자 선희는 눈을 깜빡이며 리영덕을 뵈히 쳐다봤다. 처녀의 길다란 살눈썹들이 상대방의 시선을 찌르듯 부채살처럼 활짝 쳐들리었다. 그 눈빛은 명백히 반박과 원망의 속심을 내비치고있었다.

《글쎄 속에는 불뎡이를 품었는지는 모르지만서두...》

영덕은 당황히 중얼거리며 선희의 눈을 피하면서 생각했다.

(여전히 사랑하는구나...사랑해도 이만저만 아니게. 그를 사랑하고있구나. ...너자들이란 참 모르겠어. 저런 독박쇠를 짝사랑하다니. 하지만 싸움은 말리구 뭐는 어찌했다구...)

영덕은 이미 결혼한 남자의 경험과 대범성에 등대고 중대장과 얘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어느날저녁 중대부에 찾아간 리영덕은 중대장을 조용히 불러내었다.

《중대장동무... 한 처녀가 동물 사랑한다는걸 알고있소?》

어둠은 중대장의 표정을 알수 없게 했다. 웃는지, 성내는지, 무표정인지...

《대답 좀 하란말이요.》

중대장한테 이렇게 강경히 독촉할수 있다는 자체가 소대장 리영덕에게는 유쾌한 일이었다.

《중대장동문 목석 한가지란말이요.》

그러자 강운철은 사정하듯 리영덕의 팔소매를 잡았다.

《됐소. 됐소. 후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빨리 철길을 봐야 할게 아니요. 언제 그런 문젠 생각할때요?》

리영덕은 화가 나서 제 팔소매를 뿌리치듯 뺐아냈다.

《이걸 놓소. 그럼 나같이 장가간 사람은 철길두 못놓겠소? 예? 제발 중대장동무, 이 일에서만 내가 선배요. 사랑이란 귀중히 여겨야 하오. 또 사랑을 신비하게 생각지 마오. 나두 한뎌 그랬소. 우린 목장에서 사료분쇄기를 설치한다 가동시킨다하면서 티각태각하다가 결국 둘이 정이 생겨났단말이요. 부끄럽게두 좀 일찍 장가들긴 했지만. 중대장동무, 자연을 정복하는 이런 철길건설장에서 사랑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디서 생겨난단 말이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이런데서 생기는 사랑이야말로 변심없는것이구 일생의 튼튼한 주

추돌이 될게 아닌가말이요. 그런데두 그렇게 외면하구 모르쇠를 내다니. 내 원.》

스스로도 놀라우리만큼 말이 저절로 술술 나가면서 난생처음 남을 혼시하는 말을 한바탕 시원히늘어놓는 영덕의 가슴은 지어 후련하기까지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는 중대장을 보는것이 통쾌했으나 바로 그 순간 강운철이 대답을 앓고있다는것이 새로운 의미로 느껴졌고 선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것만 같아 기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때 며칠전 일도 머리속에 떠올랐다!

야간작업을 조직하면서 중대장은 선희를 비롯해서 자원해나선 처녀들을 빼놓았었다. 처녀들은 분개해서 입술만 오물거리었다. 선희는 머리를 숙이고있어 그의 표정을 볼수가 없었다.

작업조직이 다 끝나 단돌이 남자 리영덕은 강운철에게 말했다.

《남자들과 똑같이 어렵구 힘든 일에 앞장서오던 녀성들을 이제와서 갑자기 그들의 제기를 무시하다니. 난 이해할수가 없소.》

《무시하는게 아니요.》

《그럼 뭐요?》

《그들은 요즘 지쳤소. 휴식이 부족하단말이요.》

《녀성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아끼는거라는 말이겠소?》

《그렇소.》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강운철이 처녀들 모두가 아니라 선희만을 아껴주기라도 한듯 마음이 별스레 즐거워났던 리영덕이었다...

어쨌든 이래저래 강운철이 불만스러울수록 리영덕은 자기의 안해가 온것을 그가 진심으로 이해해줄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안해란 녀자가 얼마나 새빠진 행동을 하였는가...

그렇다. 아이의 돌생일같은 말은 아예 입밖에 낼수도 없는 일이라고 확고히 결심한 리영덕은 강가에서 물러나 완성되어가는 로반우에 올라섰다.

다른 동무들은 영화구경에서 돌아오고있었으나 중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동무들에게 묻기도 했다.

《중대장동무를 보지 못했소?》

영화도중에 중대장이 밖에 나갔다는 말도 들렸다.

녀성병실쪽에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났다. 거기서 급히 멀어지려는듯 영덕은 로반우로 걸여갔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레루가 놓이지 않은 로반... 하지만 저기 콘크리트라입까지 말끔히 끝낸 차굴의 입구에서 여기까지 로반이 잇닿은 그 사실자체가 철쭉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창조물의 형태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중대장을 마중하여 로반을 걸어가던 영덕은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차굴가까이 철쭉의 물넘이공사현장에 중대장이 서있는것 같았다.

차굴공사에 뒤이어 로반공사를 마무리하느라고 더욱 팽팽하고 과묵해진 중대장동무가 저기에 서있었다! ...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빛, 나이에 맞지않게 웅심깊어보이는 그 얼굴표정을 당장 마주 대하게 될게 아닌가.

리영덕은 로반우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중대장한테 안해의 도착을 알리는것이 거북하여 차라리 지금은 피하고도싶었으나 그렇다고 남들이 먼저 그 말을 중대장한테 보고하게 내버려두고싶지는 않았다. 선손을 써서 중대장한테 보고하는것이 지원자로서의 안해의 목적을 명백히 인식시키는 것이 한결 나을것 같았다.

정오의 해빛은 따사하기까지 했다. 산기슭 전 나무숲에서 산비둘기들이 구구거리고 강변의 황철나무들 상가지를 맴돌며 여러마리의 까치들이 여전히 극성스레 깍깍거리었다.

보위색차림의 중대장이 어깨에 비자루 같은것을 메고있었다. 자그만 싸리나무단갈기두 했다. 그는 여전히 거기 물넘이공사장을 여기저기 주의깊이 살펴보고있었다.

물넘이란 철쭉우로 물을 넘기는 소구조물인데 막돌기초까지 깊이 2미터, 물도랑의 길이는 대체로 그리하듯 6미터반이나 된다. 저 물넘이만 끝내면 이 몇백미터구간의 로반공사는 끝나는것으로 된다.

며칠전에 오작휘틀때문에... 아니 별로 오작이라고까지야...

한데 중대장은 물넘이의 《L-6》번 휘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소대장동무! 이걸 누가 했소? 가름대규격이 1센치나 작소.》

《그저 물도랑인데 1센치쯤이야 타입하면 다 떼 뉘칠수도 있지 않소?》

《무슨 말이요? 다시 하시오.》

중대장은 돌아서 갔다.

다시 해놓은것을 보고 중대장은 말했다.

《정말 수공업적이구만. 이렇게 땀땀기식으로 해서야 어디... 왜 와락 뜯어 다시 할 생각은 못하오? ...불합격이요.》

그 휘틀제작에 선회도 참가했다는것으로 더욱 알곳은 심정을 느낀 리영덕은 한편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것으로 하루동안 그대로 놔두었다.

달밝은 봄밤에 중대장이 제혼자 뜯어놓고 시작하자 영덕은 그리로 다가가 중대장의 손에서 슬그머니 공구를 빼앗지 않을수 없었다...

차굴에서 이어져나온 로반은 마치 중대장의 엄격한 요구성에 정비레하듯 인제는 리영덕이 선 뒤를 지나서 다리공사장까지 몇백미터구간을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한데 별치 않은 마지막 물넘이공사가 좀 애를 먹이었다. 판은 골재용자갈이 문제였다. 자갈이면

자갈, 모래면 모래여야겠는데 무슨 부스럭돌 같은게 그리두 많은지.

싸리나무단을 댜쳐 서성거리는 중대장한테로 리영덕이 다가서자 중대장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왜 여기까지 나왔소? 직일근무중에 무슨 일이 있었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국경경비대원들이 군견을 데리구 훈련중에 중대부마당에서 잠깐 쉬었다간것하구...》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는듯한 중대장의 눈총에 급해난 영덕은 서둘러 말했다.

《군에서 자동차 두대가 지원물자를 싣구 왔습니다.》

《그럼 소? 떠난다는 기별이 있는지 며칠 됐는데... 그래 따찌까와 전동기두 실었는지 모르겠소?》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러단지휘부마당에 서있어서... 그러구...》

《그리구 또 뭐요?》

《저... 그 자동차편에 우리 집에서 지원을 나왔는데... 돼지를 한마리 싣구...》

《집에서 부모님이?》

《아니 글썄 처가... 집사람이...》

《오, 그럼소?... 알겠소.》

중대장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의 낮빛은 류달리 시꺼먼 눈섭조차 두드러져보이지 않을 정도로 별에 타서 검실검실했다. 그것을 밝게 해주는 듯 미소가 떠올랐다.

(속으로는 어처구니 없어 웃을거야. 촌녀자가 남편을 보고싶어 천리길을 왔다고...)

영덕은 황급히 주어대기 시작했다.

《순재붕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재봉일로 돌격대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제가 몹시 수다스러워진것 같아 못마땅해난 영덕은 상대방의 미소를 보며 줄곧생각했다.

(아니야, 재봉기를 가지고 지원을 온다는 미명아래 남편을 만나려고... 남편한테 아이를 보이고 싶어 안해가 왔다고 생각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랴.)

영덕은 안해가 아이까지 돌쳐업고 왔다는것을, 젖먹이여서 떨켜두고 울수도 없다는 말을 도저히 할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어린애를 업구 왔다는건 이제 알게 될텐데...)

중대장은 어깨에서 싸리나무단을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받아드는 영덕이한테 순순히 맡기는것이였다.

《재봉기까지 가지고와 지원하다니. 참 좋은 생각을 했구만. 그러지 않아도 모두 작업복이랑 손이 갈데가 많은데. 특색있는 지원사업이요. 기동대가 온다, 기관, 기업소에서 지원온다, 자식들을 찾아 부모들이 지원을 온다 하는것 하구두 다르구 어쨌든 중대의 경사요.》

이 순간에 영덕은 안도의 숨을 후 내쉬었다. 뒤살우인 중대장이 적어도 자기보다 생활경험을 10년은 더 가지고있는 사람으로 형편없이 돋보였다. 야단스러운 칭찬이 아니건만 눈물이 날 지경으로 고마왔다.

《한데 거처를 정해야 하겠는데...》

중대장이 이렇게 뒤더수기에 손을 얹으며 속궁량의 티를 남한테 보이는것을 영덕이는 처음 보았다. 그는 말을 막았다.

《중대장동무, 제발 좀 그만해두오. 거처라니 젠장, 남들을 웃기지 마오.》

영덕의 얼굴은 거의 울상에 가까운 표정이 되었다. 영덕은 말머리를 댄데로 돌리려고 서둘렀다.

《한데 이 싸리단은 대체 뭐요? 비자루는 아닐거구.》

하지만 중대장은 고집스레 제 말을 반복했다.

《머칠이나 있겠는지 어느 농가에 거처를 정하도록 합시다. 먹는거야 중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면 되는거구... 창고자라를 립시 재봉소처럼 꾸리구...소대장동무는 좀 가만있소. 내가 해주는대로 말이요. 제발 날 사람들의 사정도 모르는 목석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말아주오.》

중대장은 더 다른 말은 말라는데 마주선 영덕이를 지나쳐 걸어가려고 하더니 잊은듯 뒤돌아보며

《그 싸리나무는 자갈을 치는 채를 만들자는게요. 쇠줄채로는 규격을 맞출수가 있어야지.》

하고는 다시 스택스적 걸어갔다.

영덕은 싸리단을 둘러메고 다쫓아가며 말했다.

《이거 참. 싸리나무대로 채를 만들면 여러가지 규격으로 구멍을 조절할수 있구만요. 하 이거야 간단한건데. 그놈 자갈은 무슨 부스럭돌이 그리 많은지. 자칫하면 콩크리트혼합물을 영 망친다니까. 글썄 별치 않은 이 물넘이가 마지막까지...》

괜한 말을 주어심긴다는것을 스스로 뻔히 알면서도 철근조립이요 혼합기속도요 하며 영덕은 신이나서 중대장의 걸을 걸어가며 말수더구를 피웠다.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며 리영덕은 중대장의 팔소매를 잡았다.

《중대장동무,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지원해온 돼지를 말이요. 이삼일이면 물넘이까지 다 하고 로반공사를 끝내겠는데 그때 잡는게 어떻겠소?》

중대장은 멈춰서더니

《아 그게 좋겠소. 오늘 휴식날에는 이미 다른 절루 시작한거구...》 하고 못내 기뻐했다.

리영덕은 속으로 턱을 내리쓸며 무릎을 쳤다.

(그렇지! 신통히두 로반공사가 끝나는 날하구... 맞아떨어질수도 있어.)

리영덕은 선손을 써서 중대장을 눌러놓았다고 흐뭇한 생각을 했다...

사흘동안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다. 중대는

로반의 미진작업에 모든 력량을 기울였다. 굴착기의 기관소리가 설새없이 울리고 물넘이를 비롯 한 소구조물들도 거의 완성되어갔다. 굴간에서 다리공사장까지 600여메터, 러단채육경기때 룽상종목도할수 있게 반반히 로반다짐을 해나갔다.

한편 중대부에 붙은 창고자리에 《재봉소》를 꾸리었다. 밤늦게까지 거기서는 따르락거리는 재봉기소리가 들리었다. 밤이면 처녀들이 부르는 항일유격대재봉대원들에 대한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농장작업반 탁아소에서 보육원이 나왔다. 탁아소 규정이 법으로 되어있어서 외지에서 온 아이를 받을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모르는체할수는 없다고 하면서 낮에 교대로 와서 아이를 봐주고 갔다.

밤에는 녀성병실에서 처녀들의 손에 애기가 떠받들리워 다니었다. 언제 한번 아기는 침대에 누워불새도 없어 그만 시끄러워 자지리지게 울어대는것이 제발 물러나라고 웨쳐대는것만 같다. 그러면 처녀들이 손벽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어대었다.

그러나 한편 영덕은 속으로 남몰래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첫 아들의 첫돌에 아버지로서 무엇을 아기한테 줄수 있을가고...

지금 당장 농장상점분점에서 딸랭이나 샀지. 아들한테 무슨 신통한 돌선물을 마련할수도 없는 것이었다.

우연한 일치로 다행한것은 아들의 첫돌까지 로반공사가 끝나게 되고 그날에 백키로짜리 돼지가 지 잡게 된것이다.

그날까지 물넘이공사도 끝남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래 영덕은 밤에 나가 싸리나무채에 자갈을 쳐서는 규격자갈로 골재를 준비했고 그다음날은 오전까지 세개의 물넘이콩크리트 덧판을 멋지게 타입 해놓았다.

바로 그 덧판을 물넘이도랑우에 밀고가려고 리영덕과 두명의 소대원은 통나무굴대를 메여다놓았다. 덧판을 어떻게 굴대우에 올려서 밀어다 채자리에 이맞게 놓겠는가를 의논하고있는데 화물자동차 한대가 로반아래 도로로 와당탕거리며 굴러갔다. 러단지휘부자동차의 적체함에는 남선회가 타고있었다. 풀색복철자케트에 꽃수건자락을 팔팔날리며 이쪽으로 손을 들어보인다.

《어딜 가오?》

누군가 소리쳐 묻자

《약품 타러 가요!》

하고 대답하는 선회의 맑은 목청이 날아왔다.

이미 사랑의 고민을 초월하듯 처녀는 전보다 더욱 명랑해진것 같다. 아니 그렇게 보일뿐이다. 상대방의 랑랭한 태도에 그만 어쩔바를 모르던 사랑의 열정은 흔히 자기의 인격을 상대방보다 높이려는 강한 요구성과 자신에 대한 반발로 잠시 뒤로 물러서는 법, 그때는 도리어 처녀들이

일부러 명랑한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것처럼 일종의 위선적인행동으로 자기의 감정을 감추기도 하는것이다.

자동차가 사라지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중대장이 다가왔다.

《제1소대가 이까짓 물넘이덧판을 놓고 너무 우물거리는것 같애. 앉아몽개지 않던 소덴데 웬일이요?》

소대장인 리영덕은 통나무굴대를 평행되게 가지런히 옮겨놓고있을뿐이고 소대원들이 저마끔 중대장한테 들이댄다.

《수공업적이라는건가요?》

《중대장동지, 1센치 드림도 없이 이 물넘이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보장하느라구 좀 머리를 쓰는중입니다.》

그랬으나 별루 응답도 없이 중대장은 급히 다른소대 작업장으로 가버렸다. 그도 사회주의경쟁에서 다른 중대를 확고히 따라 앞섰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어느 다른 중대에서 먼저 《소리치지》않을가 조바심이 나서 서두르는게 분명하다.

저쯤 사라지는 강운철의 뒤모습을 보며 리영덕은 속말을 했다.

(중대장동무, 1소대는 걱정마슈. 어쨌든 이 물넘이는 늦어도 래일로 끝낼테니. 내자신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길래 그러우.)

실상 영덕은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의의있게 아이의 첫돌 생일을 맞을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날이 로반공사를 끝내는 날이다! 저녁에 중대원들과 푸짐히 《축하연》을 나누고나서 안해가든 농가집에서 아들애를 무릎에 앉히고 안해와 함께 돌격대원-아버지의 류다른 기쁨을 남몰래 조용히 맛볼수 있지 않겠는가!

이튿날 오전중으로 로반공사를 끝낼수 있게 되었다. 12시가 가까와올무렵 리영덕이네는 물넘이 주변에서 로반경사면의 잔디땀기들을 입히고있었다. 본래 입힌것들이 흐트러진걸 바로잡고 공공다짐해놓는 일이었다.

그런데 중대취사장에서 날아온 소식에 의하면 점심은 로반우에서 야외식사로 한다는것이였다.

로반공사를 끝낸 《축하연》이 저녁에 있는줄 알았는데… 날씨도 따스한 점심시간에 밖에서 하는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것 같았다.

리영덕은 아무도 모르는 아들의 돌생일이지만 로반공사를 끝낸 지금 집에서 지원해온 돼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펴놓는다니 이거야말로 체면도깎이지 않고 땀땀이 얼굴을 쳐들수 있는 일이 아닌가고 생각했다.

리영덕은 선회가 두번인가 중대취사장쪽에서 올라와 강운철에게로 다가가 무슨 지시인지 받고는 부랴부랴 내려가는것을 보았다. 희디흰 살결의 팔목을 휙씩 걷어붙이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내뿜힌 취사복차림의 선회가 머리에 꽃수건을 쓰고 바빠 취사장으로 사라지는것을 보며

리영덕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리영덕은 로반을 따라 강운철이한테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이미 예견되였던 러단적인 《특식경기》도 겸해서 오늘 하는것이 아닌지 그것을 알고싶었다. 그러자 강운철이 바빠 리영덕이를 마주 걸어오는것이였다.

한데 중대장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의 표정이다. 그와 마주섰을 때 영덕은 그의 웃고있는 이발이 얼마나 하얗고 탄탄하며 가쁜한가를 비로소 보는것만 같고 자꾸만 두손을 마주 비비며 무엇인가 찾으려는듯 주위를 살피는 중대장의 흐트러진 거동도 거의 처음 보는것이였다. 소대장 리영덕의 눈치나 표정을 세심히 가늠하는것도 중대장에게서 별로 없던 일이다. 항상 엄격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오히려 이쪽에서 긴장해지는 때가 있는것처럼 리영덕은 눈을 껌벅거리며 서있었다.

강운철이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듯한 어조로 묻는다.

《영덕동무, 오늘이 아이의 첫돌 생일이 아니요?》

《뭘, 뭘요?》

한순간 영덕은 입이 굳어져 말을 못하다가 급기야 더듬거렸다.

《아, 아니… 누, 누가 그러디까. 우리 집사람이?》

《누가 그러긴… 내가 그만한 기억력두 없는줄 아요? 선희동무가 그때 사들이나 늦어온것두 작년 이 때구…》

《그래두 이 거야…》

《동무와 미리 상론하지 않길 잘했소. 아이아버지가 괜히 이러구저러구 할거라구 하더니…》

강운철은 더 말을 말라는듯 손을 내흔들었지만 그래도 아이아버지와 상론하지 못한것을 사죄하듯 미안해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동문 좀 가만히 있어주게나.》

《젠장, 이거야 어디 청년돌격대원이란게 얼굴을 들고나설수 있나. 정말 망신이요… 이건 도대체 어찌자구 나하구 토론두 없이…》

《가만 있으란데, 그 앤 중대의 전투원이나 같은셈이요. 게다가 중대는 새로운 전투임무를 앞두고있소. 또다시 암반, 석수, 버력과 싸워야 하오. 정치지도원동문 돌생일을 새 전투에 진입하는 계기루 보는데 이왕이면 그것두 좋은 일이지.》

영덕은 중대장의 말소리가 어딘가 멀리서 울려오는것처럼 귀가 멍멍해짐을 느꼈다.

《한데 선희동무가 이 일에 어떻게나 발벗고 나서는지…》 하고 강운철은 흡사 이 모든 일을 제가 생각해내지 않고 다른 누가 그러기라도 하는것 같이 선희동무요, 정치지도원동무요 하고 거들었다.

그 순간 영덕은 선희와 강운철이 아이의 돌생

일을 두고 오손도손 의논하는 광경이 눈앞에 밝혀왔다. 강운철이 선희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손세를 써가며 호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강운철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해산에 나가는 자동차두 있구 해서 선희동무가 나가서 색동저고리와 돌생일선물을 약간 준비해왔소.》

자동차적재함에 앉아 노래부르며 선희가 약품타러 간다고 하더니...

강운철의 말이 선희는 해산에 나갔다가 더 좋은것들을 고르고 구하느라 뺄스를 놓치였다는것, 마침 지나가는 자동차를 타긴 했으나 나중에 30리길을 걸어 재삼중에 왔다는것이였다.

(이거야 참. 언제부터 저네키릭... 여보게 동무네 둘이 짹짹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불부은듯한 생각이지만 짜장 마음이 상쾌해지는것도 같다.

그러나 두사람은 오래 서있을수가 없었다.

12시가 되자 거의 군대와 같은 기동으로 려단후방부장의 인솔하에 린근중대들이 여기 완성로반으로 모여다. 특식경기에만 참가하는줄 알았던 그들은 리영덕소대장의 아들애의 첫돌생일이라는 바람에 《와-》 환성을 올리였다.

려단후방부장이 아이의 돌상을 빨리 차려놓지 않고 뒷들 하느냐고 《호령》을 내리자 바빠맞은 강운철이네 중대원들이 허둥지둥 더 뛰어다니였다.

리영덕은 그저 어안이 병병해서 서있는데 강운철이 다가왔다.

강운철의 손에는 전기기관차모형이 들려있었다. 나무로 깎아 라크칠을 하고 바퀴가 달리고 허리에 《소년호》라고 빨강게 써여진것이였다.

《돌상에 놓자구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소. 정치지도원하구 합작품이요. 재간이 이밖에 더 없으니...》

중대장위 얼굴엔 어둡은 미소가 떠올랐다. 흔히 누구든 지혜 창조품을 평가받을 때의 그런 소심한 표정, 랑철하고도 자신만만한 그한테 일찌기 찾아볼수 없던 얼굴빛이다.

허나 그것은 멋진 놀이감, 놀이감이라기보다는 기관차공장의 전시품모형과도 같이 훌륭한것이였다.

리영덕은 그제야 강운철의 손가락에 형겅봉대가 감겨져있음을 보았다. 적어도 몇밤을 품들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무부각을 저렇듯 섬세하게 해낼수 있던 말인가.

강운철은 형겅봉대에 감은 손을 슬그머니 뒤로 감추며 말했다.

《이렇게 형편없는걸 만들어놓구두 난 아이가 돌상에서 이것부터 손에 집으려고 할것 같이 생

각되누만... 마음에 드나? 선희동문 괜찮다구 하던데...》

《음...》

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리영덕은 말했다.

《선희의 마음에 드니 중대장동무의 마음에 들구 그러니 내 마음에도 드는거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말마오. 중대장동무... 그러니 중대장동문 선희한테 손을 들었던말이지?》

《뭘, 뭘?... 이 친구 보라... 내가 손을 든건 자네한테야, 언젠가 자넨 말했지. 유리가 놓는 철길 이 한쪽은 남자들이, 다른 한쪽은 처녀들이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구. 그래서 녀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거야.》

《엎어치나 메치나 갈구같은 말이야.》

리영덕은 생각같아서는 이렇게 웨치고싶었다.

《젠장, 오늘 돌잔치가 자네들의 약혼식으로도 된다면 난 더 의견이 없소!》

리영덕은 드디어 안해 경순이를 보았다. 색동저고리를 입힌 아들애를 포단에 싸안고 로반경사를 따라 올라오는 안해를 보며 속으로 욕했다.

(저건 그저... 바보처럼 헤식을 웃음만 띠우고 있구나. 보통때엔 툭툭해뵈더니 툭툭히 처신해야 할 이런 때 저렇게 얼굴표정이 풀려가지고는...)

즐거운 정오, 밝은 한낮이였다. 산기슭과 절벽에서 타는듯이 피어오르는 진달래의 연분홍꽃구름은 로반에 더욱 바투 다가섰고 압록강의 여울물소리도 한결 세차지고있다.

특별히 깨끗한 모래를 깐 로반우에 돛자리를 퍼고 모포를 깔고 아기의 돌상이 차려졌다.

상은 소박했지만 중대원들의 고향인 두만강연안지대의 풍습대로 갖춰졌는데 이런 때 있어야 할것들, 레컨대 떡, 고기, 과일들이 다 놓였다. 상옆에는 돌선물인 자그마한 털조끼며 뜨개실로 만든 알락달락한 모자 그리고 팔랭이며 큰 오토기도 있었다. 격식대로 레식을 갖추기를 원하는 축들의 주장대로 돌상상에 아이를 혼자 앉혀놓고 사진부터 찍었다. 한데 어디 아이가 한자리에 가만 앉아있으려 하는가. 돌격대에는 묘한 재간군들이 다있는 법이어서 어느 한 친구가 수탉의 울음소리를 내여 아이의 주의를 겨우, 그것도 한순간 사진기렌즈쪽으로 집중시켜 놓을수가 있었다.

청년들은 놀이감기관차를 아이한테 미리 보이지않고 적당한 시간에 내놓았다. 이러니 아이가 그것부터 집을것은 뻔했자만 그래도 청년들을 그것으로 아이의 운명이 자기들이 건설하는 새 철길과 결부되는 좋은 상징이나 암시 같아서 와-환호를 울리며 기뻐서 박수갈채를 열렬히 보낸다.

로반에 퍼놓은 모포우로 기관차모형을 아들이 벌써 부둥켜안은 아이가 한발 또 한발 걸음마를 옮기자 웬일인지 이때는 청년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주시하고있었다.

강운철이 아기의 앞에서 두팔을 벌리고 허리를 굽힌채 뒤걸음을 쳤다. 걸으며 다가드는 사람들을 막으려는듯도, 아기의 앞길을 퇴위주려는듯도 싶었다.

(운철이, 자넨 불덩이야. 엄격하구, 랭랭하구 때로는 메달라보이는것 같기도... 하지만 자민 가슴속에 불덩이를 품은 사람이야.)

영덕은 강운철의 모습이 어롱어롱해보이면서 눈앞에 뜨거운 물기가 어리었다.

강운철이 넘어질뻔한 아이를 제격 안아들더니 두팔을 한껏 쳐들어 아이를 하늘로 추켜올린다. 봄날의 태양을 향해 조마구름 흔들며 아이는 연신게득거렸다. 해빛에 눈이 시그려워서인지 윤철은 눈을 습벅인다.

머리우에 추켜올린 아기를 쳐다보며 지금 윤철이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볼것인가. 그 곁에는 선희가 서서 같이 올려다보며 웃고있었다.

태양을 향해, 아이를 향하여...

(이 기쁜 날에 그대들의 사랑이 약속되는게 아닌가 말이요. 윤철이! 이 거칠고 시련많은 철길공사장에 사나이들의 힘과 내밀성만 아니라 저렇듯 다정하고 부드러운 처녀들의 마음이 있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은 영덕은 심각한 느낌에 휩싸이듯 머리를 숙이며 생각했다.

(아 로반의 한쪽레루는 청춘의 담력으로 뻗어가고 다른 한 레루는 우정과 사랑으로 뻗어가는데...윤철인 담력과 사랑을 다 함께 심장에 지녔어...아, 엄혹한 자연과 싸우는 담력이 결국 뜨거운 정을 낳는구나... 그런데도 난 그저 윤철이를 똑보라고만 했지... 선희가 나보다 사람을 더 잘 볼줄 알아...)

식사가 끝나자 한쪽에서는 출판이 벌어졌다. 노래소리도 우렁찼다.

...산천에 피는 꽃 나를 불러도
나는야 돌격대의 그 총각 좋아
에헤야 에헤야 그 총각 일숨씨
꽃에다 비기랴...

(북부철길건설장 그 어디서나 불리우던 노래였다.)

처녀들도 총각들도 어울려 춤을 추며 쌍쌍이 돌기도 한다. 남자들끼리 해학적인 룰동을 맞추기도하는데 《흐아, 흐아》 웃음소리가 노래소리를 누르기도 한다. 강운철이도 멋지게 춤을 춘다.

선희와 윤철이는 우연히 맞닿들린듯 서로 춤가락을 맞추다가는 급히 물러나고 그러다간 다시 다가서고... 리영덕이도 뛰어들어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쳤다.

바람도 한점 없고 한낮의 해별은 파스하였다.

출판이 끝날 때였다.

잠이 든 아이를 품에 안고 안해 경순이는 의젓한 몸가짐을 가지고 서있었다.

아기를 안고있는 순간에 어머니들이 가장 대담하고 현명해진다는,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안해를 보는 리영덕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순간에 바로 안해자신이 뜻밖에도 불쑥 목청을 높여 당당한 어조로 말을 하는것이였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애나 제가 아닙니다. 이런 새 철길로반을 쌓는 여러분들 청년건설자동지들입니다...》

안해는 아직은 레루가 놓이지 않은 휘우뚝뚝 뻗은 로반, 저기 험산을 뚫은 차굴입구를 바라보더니 재차 용기를 되찾고 침착해진듯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건설합니다. 이 애가 첫 걸음을 땀 이 로반을 바라보면 이 애의 앞날이 저기로 펼쳐져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이로반을 따라 걸음을 땀... 이애의 앞날두 행복하구...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화창한 봄날처럼 ...》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시인이라도 된게 아니야. 내 심정까지 어찌면 저렇게도...)

리영덕은 눈곱이 뜨거워나며 주위의 광경이 온통 어롱거리기만 했다.

점심시간도 거의 지나가고있었다.

마감무렵에 유쾌한 론쟁이 벌어졌다. 아이를 가운데 앉히고 중대의 집체사진을 찍자는것인데 누가 아이를 안고 중심에 앉는가 하는것때문이였다. 리영덕과 오경순, 그들 부부의 주장은 중대장이 아이를 안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것이고 중대장자신은 그럴수 없다고, 부모들이 안고앉아야 한다는것이다. 청년들은 큰 중대사를 론하듯 한참 떠들썩했다.

마침내 사진기를 켜 돌격대원이 제잡담이 문제를 판가름해나섰다. 그는 일부러 병어리나 된듯 입을 꼭 다물고 무작정 한사람 한사람 자리에 끌어다앉히였다. 결국 리영덕의 품에 아들에 순철이 안겨졌고 안해 오경순이 그곁에 앉게 되였다. 《사진사》는 웅당한 자리라는듯 선희를 오경순의 곁에 앉히고 반대편 리영덕의 곁에 강운철이를 앉혔으며 중대정치지도원을 중대장의 곁에 앉혔다. 그리고 작업복차림의 청년돌격대원들을 부랴부랴 뒤에 몇줄로 서게 만들더니 미처 어쩔새 없이 사진을 찍어버렸다.

흔히 그러하듯 거짓말같이 느껴져 모두들 그자리에서 한순간 움직이지 못했다.

리영덕은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가슴속에 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끝없이 물결쳐오는 뜨거운 상념에 몸을 맡긴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았다! 강운철이와 남선희가 함께 찍은 이 사진이 먼후날 이들의 추억속에 류다른 약혼사진으로 되기를...

오늘의 이야기

홍성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을 시원으로 하여 우리 영웅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대를 이어 계승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는 오늘 대중속에서 생활화, 보편화되고있습니다.》

요즘엔 그저 어디에 가나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문에서도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이고 텔레비존을 봐도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여러명의 대원들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의 아침출근길에서도 울리고 산간마을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어지며 별빛 눈동자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학교의 교실안에서도 꽃피어난다.

김광철영웅의 소행이 알려진 때로부터 벌써 여러달이 지났건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멈춤을 모르고 계속되는 이 사실을 두고 나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무릇 사람들을 놀래우는 그 어떤 충격적인 사실도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자연히 기억속에서 희미해지기마련이다.

가령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던 예술작품도 뒤에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그에 화제거리를 양보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거의다가 이렇게 생겨나고 또 뒤로 물러난다.

하지만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크게 번져가니 이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느라니 얼마전 물길공사장에서 만났던 한 군인이 생각한다.

그날 내가 만난 군인은 물길건설장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닥쳐오자 그것을 한몸으로 막아냄으로써 구분대에 알려진 위훈자였다.

그런데 그는 내가 취재수첩을 펼치기도전에 김광철영웅이 바로 자기와 고등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마치도 내가 자기자신이 아니라 김광철영웅을 취재하러 오거나 한듯이...

하지만 나는 어쨌든 기뻐다.

그에게서 필경 영웅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때문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에게는 잊을수 없는 동창생영웅에 대한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추억들이 많았다.

그것을 가슴우에 그냥 묻어둘수 없었던 그는 기

회가 있을 때마다 동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영웅동창생을 가진 남다른 자량과 긍지에 넘쳐서...

그러던 그는 차츰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동창생을 가진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영웅이 지녔던 그숭고한 정신의 높이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영웅의 동창생이라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이제부터라도 영웅을 따라배우기 위해 더욱 분발하리라는 결심으로 굳어졌다는것이다.

그 결심이 그후 군무생활에 하나하나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그 나날에 오늘과 같은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는 그 군인의 이야기.

듣고보니 나는 결국 취재목적을 이룬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자기자신이 위훈을 세우게 된 비결이기도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나는 취재수첩을 선풍 덮을수 없었다.

김광철영웅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혁명임무수행에서 것처럼 위훈을 떨치고있는 군인이 어찌 그 한사람뿐이겠는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듯이 그 어느 초소에서나 이런 군인을 만날수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의 한생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해 다 바쳤다고 꺼리낌없이 말할수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한 김광철영웅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빛내어나가지 못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영웅과 동시대인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영웅을 따라배우기 위해 펼쳐나선 우리시대 인관들의 그 한결같은 지향과 숭결.

사람들이 잊지 못해하는 김광철영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속에는 바로 이 지향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날이 갈수록 그토록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날과 달을 이어 계속 피는것이 아니라.

그렇다, 천만사람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며 충성의 한마음 더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그것은 김광철영웅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김광철》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다.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과 전사-영웅들의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에 대하여-

리봉진

가렬치절한 전쟁의 준엄한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세월은 어언 마흔돌기의 년륜을 력사와 시대 앞에 새겨넣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은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분노를 더 한층 격반시키고있으며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로세대는 물론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하게만 자라온 우리의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장후의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그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크다.

다부작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개시로부터 시작하여 대전해방전투의 승리까지의 첨예한 투쟁의 력사적시기를 작품의 시대적배경으로 삼고 인민군대의 어느한 사단의 공병중대 전투원들의 백절불굴의 영웅적형상을 생동한 화폭속에 빛나게 재현함으로써 전쟁문학으로서의 인간학적품격을 비교적 원만하게 구현한 성과작의 하나로 되었다.

1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이 감화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매혹시키면서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거대한 력사적사변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전사-영웅들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생, 전쟁과 인간문제에 대한 철학적으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높이려고 지향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중한것인가, 그 귀중하다는 말의 진가는 참다운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것이며 어떠한 사람만이 그 참뜻을 심장에 새기고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릴수 있는것인가.

장편소설은 조국과 인생, 전쟁과 인간문제를 펼쳐보이면서 결국 전쟁 그자체에 매달리지 않았다. 전쟁을 취급하면서 결국 전투를 피할수는 없다.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소설은 전투를 취급하면서도 그자체를

보여주는데만 머무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학적요구의 견지에 맞게 그 전투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며 발양되는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 문제에 창작적각광을 돌림으로써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높이려고 지향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전쟁주체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이 주제분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결함은 인간과 생활의 빈곤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인간과 생활이 없다는것은 결코 인간학으로서의 전쟁문학의 품격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일것이다. 전쟁을 그리면서도 전투일면만이아닌 다양한 인간생활의 풍만한 토양우에서 창조한 인간, 전사-영웅들이야말로 전쟁문학의 참다운 주인공으로 되며 그러한 문학만이 인간학으로서의 전쟁문학의 품격을 체현할수 있다. 장편소설은 그것을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전선생활의 철리를 보여줄수 있는 다양한 생활들을 끌어들이고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인 중대장의 본의아닌 실책으로 인한 중대책벌이었다. 작품은 바로 전쟁을 취급하면서 책벌문제부터 시작하고있다. 그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병중대는 한사람같이 원심을 쓰며 모지름을 쓰고있다. 싸움마당에서 전사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하여 표창을 받을수도 있고 때로는 본의아니게 책벌을 받을수도있다. 인간생활이라는 총체속에서 보면 전선생활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며 극적인것이다. 작가는 바로 여기에 창작적력점을 찍었던것이다.

우리의 주인공인 리철훈이의 공병중대는 전쟁첫날부터 사단의 전진보장대로서 격전장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며 남으로 진격해나갔다. 그처럼 용감하고 펄펄 날던 공병중대는 서울해방전투후 본의아닌 잘못으로 책벌을 받고 공병예비대로 떨어 지고말았다.

전쟁에서 공병의 역할은 참으로 큰것이다. 그러기에 공병은 공격전의 열쇠이고 방어전의 자물쇠라고 하는것이다. 항상 부대의 최첨단에 서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영예와 사기는 언제나 충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남들이 해방한 길을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인들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처벌은 뺏겼던것이며 무자비한것이였다.

중대는 혁명앞에, 조국앞에 지은 수치를 벗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러한 나날속에서 그들은 정든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기도 하며 때로는 청춘, 사랑,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심장을 불태우기도 한다. 병사들은 그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이 주는 명령앞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자기 희생성에 대한 각오, 그 어떤 일에서나 심장을 내달줄 아는 투철한 신념과 투쟁으로 꽃피워야 한다.

전쟁에서는 이런 성실한 전사들만이 싸워이기는 법이다.

마침내 공병중대 전사들은 불명예스러운 과오를 씻고 성장한다.

우리의 조국은 바로 이런 병사들의 위훈속에 떠받들리어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길이 영생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전사-영웅들의 주체의 인생관이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필요하고 조국을 위해서만 귀중한 것이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전사들이 그것도 책벌을 받은 그들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 전쟁의 철리를 체득하고 마침내 영웅으로 성장하는 거기에서 문학적인 종자를 찾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높일수 있었던 것이다.

장편소설은 또한 전쟁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간들의 생활에 창작적각광을 돌림으로써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었던 것이다.

항일투사이며 인민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인 사단장 최무현, 입에 수류탄을 물고 자폭하여 부대의진격로를 개척한 노동자출신의 부소대장인 천관석, 용감한 유격대원이었던 아버지와 부녀회원이었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전쟁에 참가한 간호장 진달래, 농민출신의 병사 리만복, 엄대근, 공업대학 교원이며 지질학자인 윤사둔, 학생출신인

림순동 등 각이한 계층, 다양한 군상들의 생활들을 종자와 구성, 엮음새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화롭게배합하고 예술적으로 잘 처리함으로써 인민군전사-영웅들의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과 그 원천의 사상적기초를 생활적으로, 예술적으로 확증해주었을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전쟁문학의 인간학적높이를 보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소설을 읽고나면 조국과 인생전쟁과 일간의 의미를 예술적인 즐거움향기로써 감득하게 되며 인생은 오로지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만 귀중하다는 생활의 고결한 진리를 가슴뜨겁게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이룩한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이 있으며 그 철학적깊이가 있다.

2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현

시점에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였을뿐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시대의 인간, 병사, 영웅들의 전형적성격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전쟁문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하였다.

문학의 발전력사는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격창조의 력사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격창조를 떠나 문학의 발전력사에 대하여 그리고 문학의 인식교양적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간문제는 생활과 투쟁에서 그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본보기적이고 모범적인 인간, 다시 말하여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해서만 정확히 밝혀질수 있다. 작품이 아무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격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밝혀지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다. 오직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새롭고도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격창조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간성격창조문제는 언제나 우리 문학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로 된다.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이런 견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작품의 하나라고말해야 할 것이다.

이 장편소설은 해방후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주체형의 새 세대 청년들의 성격적특징을 새로운 경지에서 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리철훈을 비롯한 공병전사들의 영웅적인 성격형상이 잘 말해주고있다.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성격적특질은 한마디로말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리철훈, 천관석, 리만복 등 공병중대원들은 어머니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한 사람같이 인민군대에 탄원하였으며 한달음으로 이 어려운 전투마당에 달려온 전사들이다. 바로 그러한 그들이기에 부대가 송천시가를 해방하고 남으로 전진하고있을 때 본의아니게 중대가 범한 과오로 하여 사단의 공병예비대로 물러나긴 하였지만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는것이며 그것을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전투적위훈으로 씻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온 중대가 끓고있는것이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이러한 전투적량만과 체취는 오직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인 우리의 인민군전사들만이 체현할수있는 본질적속성인것이다. 그러한 그들이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인 방침을 높이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성스럽고 의로운 길에서 자기들의 숭고한 리상과 포부, 희망을 찾는것이다. 우리의 주인공 리철훈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리상과 행복, 희망과 포부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을 옹호보위하는 성스러운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되는것이였다.

소설은 그의 성격미를 처음부터 격식화하거나 개념화하지 않고 처절한 싸움마당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다양한 생활과 우여곡절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고수하고 아름답게 꽃피워나가는가 하는것을 성격형상을 통하여 현실그대로의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구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희생된 전우의 복수를 위해 명령도 없이 중대를 돌격으로 이끈 본의아닌 파오로 하여 전진보장대가 아니라 공병예비대로 떨어졌을 때 주인공의 심리세계는 참으로 복잡한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여기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내면심리의 복잡한 파동을 타당한 생활적전제들을 잘 조성하면서 그의 성격발전을 더욱 깊이 추구해 들어가고있다.

장편소설은 주인공의 세계관발전과정, 성격발전과정을 부단한 우여곡절속에서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그가 참다운 수령님의 전사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계기들을 조성하면서 그의 성격형상화에로 지향해나가고있다. 주인공의 의식발전과정, 성격장성과정을 추진시키는데서 기본은 혁명적실천투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식발전과정, 혁명화과정을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는것은 성격발전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성격형상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장편소설은 우리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자신으로서의 전투에도 용감하고 명령수행에 충실한다고 하면서도 본의아니게 탈선되어나가는 의식발전과정의 제약성을 타당한 생활로 충만시켜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주인공은 자기가 전투임무수행과정에서 파오를 범한것만큼 그 어떤 다른데 가서가 아니라 새로운 어렵고 힘든 전투임무수행을 통하여 그 파오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다. 과연 그 전투임무란 어떤것이겠는가. 주인공의 내면심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착잡한것이다.

장편소설은 바로 그것을 장풍리전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문주령길폭과와 북산강철교탈취전투를 통하여 해결하고있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문주령폭과전투임무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큰 전투임무이기도 하였다. 한것은 자기가 범한 파오를 이 어려운 전투임무수행을 통하여 피와 땀으로 씻는데도 있지만 또한 다른편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피맺힌 계급적원썹인 박종필이와 대결하는 판가리싸움이기도하였기때문이었다.

이 단계에 와서 주인공의 성격발전은 그 이전관계와는 다른 질적으로 한계단 발전하는 주인공

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부단한 우여곡절과 거기서부터 환기되는 내면세계의 심리적굴절과 그 체험세계를 극적으로 개방하여 그의 아름다운 성격미를 예술적으로 밝힘으로써 시대적미감과 생활적진실로 충만된 우리 시대의 전사-영웅의 성격을 손색없이 창조해냈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형상뿐아니라 각이한 계층의 다양한 인물형상들도 성공적으로 형상하였다. 사단장 최무현의 형상은 항일혁명투사이며 유능한 인민군대지휘관으로 빛나게 전형화되었으며 천관석, 진달래, 리만복, 립순동 등 새세대 청년전사들의 영웅적인 성격들도 참으로 개성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또한 장편소설에서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반영하는 첨예한 갈등에 기초하여 부정인물들의 형상도 전형화하여 형상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침략성, 멸망의 불가피성을 날카롭게 폭로규탄하였다.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주체형의 전사-영웅들의 성격적특질을 격식화하지 말고 생활과 성격의 논리에 맞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럴데 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자랑스런 결실로 된다.

3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현대적미감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하고있는 점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끌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독자대중들의 사상미학적감정도 그에 맞게 발전풍부화되어가고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창작에서는 발전하는 인민대중이 미적감정에 맞게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편소설은 매우 긍정적서사를 던져주고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장편소설은 전사-영웅들의 극적체험세계를 독자대중의 미적감정에 맞게 전쟁생활에 어울리는 전선생활의 철학을 재현하고있다. 그것은 작품의 소재를 종자의 요구에 맞게 문학적인 이야기로 전환시켜 그린데서 표현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전쟁에 참가한 인간들이 그 전쟁의 시련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의식발전과정에 력점을 찍고 모든 생활선, 사건선, 인물선들을 문학적인 이야기로 엮어 펼쳐나감으로써 인간학적품격을 체현한 전쟁문학으로서의 자기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장편소설은 전쟁 그자체에 빠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그것을 체현한 주

인공의 성격형상을 비롯한 각이한 인물군상들을 개성적으로 부각하는데로 끌고나가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물들의 형상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문제해결을 추동할수 있는 예술적봉우리들을 인간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조화롭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선들이 빈틈없이 물려지고 극성을 체현한 선택된 생활세부 등 형상의 요소들이 여기에 잘 맞물려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전쟁이라는 거기서 탄생하고 성장발전하는 우리 시대 새 인간들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시하며 그들처럼 살고 투쟁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것이다. 때로는 주인공이 겪는 아픔과 고통, 기쁨과 희열을 함께 나누기도 하며 원수에 대한 증오로 심장을 불태우기도 한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고 희망하며 기대하는 장면들과 생활일화들, 인간군상들이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전개된 형태로 색깔과 속도를 조화롭게 맞추면서 부단히 교차되고 심화되면서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에로 독자들을 이끄는것이다.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문제에서 또한 이야기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 시대 청년, 전사-영웅들 리상과 포부,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해결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 장편소설이 독자들의 이채로운 인기를 끌고있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이 소설에서 가장 색깔이 있고 기쁘지고 정서적운력을주고있는것이 이 문제설정과 그 해결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소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고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만 고유한 사상감정과 정서, 그 지향세계를 조국과 인생, 전쟁과 인간이라는 문제속에 체현시켜 현대적 미감과 구미에 맞게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리철훈과 진달래의 사랑선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마당에서 용감성으로 하여 면식이 익혀지고 싹트워지고 자래운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전투적이고 매력적인것인가. 그들은 것처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그 감정에 포로될가봐 겁이 나서 아늑보살하며 마음속으로 꽃피운 순박하고도 소박한 사랑이다. 그들의 사랑은 오로지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원수와 싸우는 사생결판의 격전장에서 리상과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맺어지고 성숙된 혁명적인 사랑이기에 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것이다. 참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청춘과 사랑, 그것은 곧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형성발전하는 충실성의 감정이며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그 뿌리를 내리고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랑은 영웅성과 용감성, 희생성과 불굴성, 성실성과 량만성을

체현하는것이며 거기에는 위훈에 대한 그들의 갈망과 생에 대한 무한한 애착,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공이 자동차에 폭약을 싣고 육탄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폭파시킴으로써 사단의 진격로를 개척하는것과 같은 영웅적인기적을 남게 한것이다. 이런 청춘, 이런 사랑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리상이고 행복이다. 그러므로 이 장편소설은 현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관, 사랑관, 행복관을 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자기의 인간학적품격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이 장편소설에서 현대적미감문제는 전쟁을 정면으로 그리면서도 거기에는 전투생활만이아닌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사랑도 있으며 청춘들이 누려야 할 생활의 모든평이 다 있다는 전선생활의 철리를 예술적으로 확인한데서도 찾아볼수있다. 우리 인민이 진행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이야말로 복잡하고도 간고한 전쟁이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켜우는 엄혹한 혁명전쟁이었다.

이것은 전쟁문학에서 어쩔수 없이 민족적 및 계급적 갈등의 첨예성과 정황의 긴장성, 등장인물들의 극성을 조성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생활적 바탕으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자체만 일면적으로 중시하고 인간학적요구를 소홀히 한다면 작품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게 된다.

장편소설에서는 전쟁이라는 배경속에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며 락관적인 청년고유의 기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품의 구성과 엮음새를 조직하고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현대적미감 특히는 지성적인 청년들의 구미와 체취에 맞게 풀어 나가며 거기에 묘사의 각광과 속도감을 잘 배합하는 솜씨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의 전사들이 있는 곳이면 의례히 능청스럽고 해학적인 익살과 천진스러운 웃음, 걸죽한 룡담과 노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익살과 룡담은 《선동원》이라고까지 강조하고있지 않는가. 전호작업을 하고있는 공병중대의 전투장면만 들여다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은 로동이다. 로동중에서도 가장 힘든 로동이라고 하면서 세상만사에 도통하듯 씨알먹은 소리만 탕탕 치며 전사들을 웃기며 능청스럽게 잘노는 천관석, 전쟁일은 농사일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주근주근해야 한다고 하여 《가을뻐꾸기》로 놀림받는 리만복, 공격같은거야 망치질처럼 두들겨쳐야한다고 날과람을 피우는 한창범, 농사군냄새가 풍긴다고 하여 《갑산배돌찌》로 놀림을 받는 엄대근, 새파랗게 젊은데다가 생활이 익살과 룡담으로 가득차있으며 언제나 요긴한 대목에

가서는 전사들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원봉재 등
등 이처럼 각이한 군상들이 잘 묘사되고있다.

장편소설은 이렇듯 전선생활의 엄연한 철리를
높은 묘사정신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장편소설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
정과 민족적정서에 맞는 현대적미감문제를 잘 해
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전
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

게 한계단 높이 끌어올리는데서 크게 이바지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장편소설의 갈피갈피마다에
는 전쟁문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작
가의 진지한 탐구와 쉬임없는 사색, 고심어린 노
력을 보게된다. 우리의 독자들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것이다. 우리의 모
든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
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숭고한 사명
감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고향의 푸른 물가에서

변흥영

고향에는 다정한 벗들도 있고
가까운 친척들도 살고있어
나는 해마다 늘 다니러온다
그래선지 너의 산기슭에 새로 선 집도
늘어난 프락프르, 개간한 땅의 크기도
내 언제나 다 알고있다고 생각했더니

놀랍구나, 고향아, 이 어인 천지개벽이나
내 어린날 뛰놀던 너의 골안에
한해사이 저수지가 생겨났구나
장마철에나 물이 흐르던 내가에서
내 물장구치며 꿈꾸던 바다
그 푸른 바다가 내 고향에 옮겨왔는가

내 날마다 학교로 오가던
쫄레꽃 하얗게 피어 웃던 그 길은
그 어느 물이랑밑에 누워있느냐
내 잠자리를 쫓던 버들방천은
고요한 물 한가운데 어디쯤이나

봄아지랑이마냥
내 가슴속에 굵시르던 어릴적추억이
저 푸른 물에 다 묻혔어도 아쉽지 않다
한낮의 흰구름이 미역을 감고있는
파아란 물속을 들여다보노라니
출렁이는 환희의 물결에 실려
나의 어린시절도 거기서 웃고있는것 같구나

둘레둘레 정다운 산봉우리들이
시원스레 발을 잠근 물가에 앉아

나는 한웅큼 물을 떠서 얼굴을 적셔본다
얇은 돌을 집어들고 팔매질도 해본다
아이처럼 그저 즐겁기만 하구나
왜서인지 자꾸 목이 메여오는구나

고향아
너의 바다같은 이 저수지물이
정녕 서해갑문의 물이란말이나
산넘고 벌지나 먼 수백리
새 물길따라 시해곡창을 다 적시고
예까지 굶이쳐왔더라말이나

너 이제는 봄내 여름내
물이 적어 가뭄타는 일 없겠구나
해마다 흐늘어진 만풍의 나락으로
사래긴 저 이랑들을 뒤덮고
살진 잉어들이 옥실대는 푸른 물가에선
내 고향사람들 낚시대도 드리우겠구나

아, 이리도 내 눈시울이 시그러운것
물우에 뛰노는 해빛탓인가
고마워... 젖어오는 눈길로
푸른 물을 바라보는 내 가슴속에선
걱정의 세찬 파도가 부서지고 또 부서진다

내 언제나 헤아려도 다는 알길없는
크나큰 사랑의 바다가
내앞에 끝없이 출렁이고있는것이다
전변에 찬 고향의 풍요한 래일이
저 물우에 실려 나를 향해 웃고있는것이다

스승의 모습

김창수

나는 이런 외진 산골에 와서 옛스승을 추억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하였다.

내가 새로운 과학연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위해 광산마을로 가던중 무더기비를 만나 이곳 방목지관리원네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인심 좋게 생긴 집주인은 내가 물에 잠긴 세멘트다리 하나 못건드고 피신해 들어온것때문에 응색해할가봐서인지 이런 큰물에는 그 누구도 다리에 들어설 엄두를 감히 못낸다고, 들어오길 아주 잘했노라고 몇번이나 곱씹어 말했다.

그런데 이때 아래목에 앉아 공부하던 이집 아들이가 투레질하듯 한마디 했다.

《거짓말!》

《영?》

주인은 놀래었다.

《우리 선생님은 다리를 안났을적에두 물난 개울을 건너오시곤했는데. 씨! -》

주인은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깎인것보다 내가 무안해할가봐 서둘러 어성을 높였다.

《이녀석아, 그 선생이야 남다른분이니 그렇지. 설학선생하군 아무나 비기면 못써!》

바로 이때 나는 추억의 쪽대문이 확 열려지는 감을 느끼며 굳어졌다.

(설학선생?)

어느덧-눈앞엔 옛스승의 모습이 구름짙에서 해빛이 새어나오듯 생생히 살아왔다.

작달막한 키, 왼쪽 눈가늑을 줄곧 펴놓는 버릇이 아니라면 별로 인상에 없을 수수한 얼굴...

나는 저으기 설레는 가슴을 안고 주인앞으로 한무릎 다가갔으면서 물었다.

《저... 이자 그 선생 이름이 뭐랬습니까?》

《설학이랬지요.》

《늘 검은 안경을 끼고 다니는 선생이 아닙니까?》

《그런적은 전혀 없는데.》

《?》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도 있는 모양인가? 아니 혹시 선생은 그사이 눈을 고치고 그 《저주로운 안경》을 벗어버린건 아닐까?

산골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던 선생... 그래서 이 깊은 산골에도 찾아왔을것 같은 생각...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내가 살던 벽계촌교단에서 밀려나다싶이했던 설학선생이 과연 그 섭섭한 심정을 다 누르고 더 깊은 이 심산유곡으로 떠나왔을수 있을까? 그렇게 아름답다는 바다가 고향을 버리고? ...

기연미연하는 심정을 안고 옷방에 올라가 누웠으나 옛스승에 대한 추억은 어느덧 나를 철없던 시절의 고장으로 이끌어갔다.

...아찔한 산봉우리들이 눈섭우에 앉히듯하는 내고향 벽계촌에 학교(분교)가 생긴것은 내가 이집아들 금돌이 나이만 할 때였다.

사람들은 자기자식들이 먼곳이 아니라 자기네 동리에서 배우도록 혜택을 베풀 땅에 대한 고마움을 설학선생에 대한 존경심으로 표시했다.

어떻게나 신비한 존재처럼 여겼던지 나는 그해 가을날 우리 아버지와 콩청대를 하는 설학선생을 보고서는 저런분도 입이 아궁이처럼 시꺼매지도 록 먹느냐고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다.

나는 어렸을적부터 멋없이 들까불고 장난이 세 찻던것 같다.

어느날이었다.

그날 나는 장난바람이 일어 담배를 길게 말아 물고 길이 좁다 하며 걸어가고있었다. 뻘꼭새가 불쑥 낮추면서 날아가며 잦은 가락으로 울어대고 메세들이 별안간 야단스럽게 울어대는것도 나에게서는 매우 때 어울리며 마땅한듯이 여겨지었다. 아무렴 벽계촌에 새 《어른》이 나타났는데 새들이라고 놀랍지들 앓겠는가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애들을 데리고 영웅전사의 묘(뒤산에 광춘이라는 우리 마을 출신 영웅의 묘가 있었다.)를 손질하러 나왔던 설학선생이 나를 띠여보고 황황히 달려오기때문에 일어난 소요일 줄이야 뉘 알았겠는가.

비자루같은 담배연기를 막 뿜어올리며 호기있게 덤불을 돌아서던 나는 숲속에서 불쑥 나타나 는 설학선생을 보자 화들 놀라며 굳어졌다.

언제나 웃음만이 떠돌면 선생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펄펄 날았고 가뜩이나 떨기 잘하는 눈섭은 당장 푸들쩍 꼬리를 치며 일어설것처럼 움썹거리고있었다.

떨어질 벼락을 기다리며 간이 콩알만해 졌는데 선생은 문득 놀라우게도 《이게 누구야, 이게?》 하며 황소울듯하더니 어제 내린 비때문에 질척해진 땅도 개의치 않고 내앞에 밀둥 꺾인 나무처럼 털썩 꿰어앉는것이였다.

나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여서 혼맹이가 빠져, 내뿔려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두손으로 내 어깨를 덤석 거머쥐더니 더 격하게 몸을 떠는 것이였다.

와들거리는 두손을 통해 리성을 잃지 않으려고

에쓰는 선생의 모지름이 력력히 알렸다.

(참으시는구나. 아버지라면 벌써 내가 팽이처럼 몇바퀴 돌도록 조겼을텐데...)

고맙다고 생각된것은 한순간이었다.

선생이 무릎걸음으로 다가들면서 《네가 벌써 담배질을 하다니?》 하고 부르짖으며 바위쥬에서 흘러나오는것 같은 허연것을 눈에 가득 담을적에 나는 차라리 매를 맞는것보다 더 아프게 가슴이 찢겨오는것을 느끼었다.

《너 이렇게 크다가 뭐가 되자고 그러는거냐? 부모님들이 아시면 우신다, 우셔!》 하고 선생 자신이 먼저 울적에 나도 그만 철없는 마음에도 감동을 이겨낼수가 없어 선생의 품에 뛰어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추억의 장막은 문득 아래방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홀 걷히고 말았다.

금돌의 부모들은 이 비에는 선생이 건너올것 같지 않으니 이서 방목지나 돌보러 나가자면서 서둘러대고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방에는 다시 소연한 비소리만이 남아 가슴이 눅눅해지도록 향수에 물젖게했다.

나의 상념은 다시금 날개를 펴고 먼 추억의 기슭으로 날기 시작했다.

왜선지 대학으로 떠나던 일부터 눈바투 다가왔다.

...그날 나는 선생과 함께 림철차를 기다리며 흙에 있는 밀둥이 구새먹은 통나무우에 앉아있었다

작별할 때는 고개길이나 나루터가 더 가슴아프다지만 나에게는 이 림철역처럼 서글픈곳이 더 있을상싶지 않았다.

버린듯이 널려있는 통나무들에는 물론, 뿌연 구름속을 뚫고 흘러내리는 설핀 해빛에도 어찌나 애달프고 서글픈것이 있었는지 마치 그것들도 우리의 가슴아픈 작별을 미리 다 알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말이 적은 설학선생이지만 이번만은 어딜가나 외우며 살 귀중한 이야기를 몇마디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참말로 선생은 뜨직뜨직 입을 여는것이였다.

《난 거 요즘...》

나는 가슴에 새길 차비를 하며 귀를 강구었다.

《좋은 소설들이 나와 여간 기쁘지 않더구만.》

《?》

너무도 예상치 않던 소리여서 나는 놀라며 쳐다보았다.

설학선생은 한담하듯 계속했다.

《그 소설들을 읽고나면 우리 민족이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제 목숨이 사태에 묻히는줄 알면서도 광맥을 탐사하구, 한생을

바쳐칠길을 지켜가구... 간밤엔 그 생각때문에 눈물까지 나오더라니까.》

선생은 우리 민족이 지닌 높은 정신세계를 두고<멋>이라고 표현하는것 같았다.

《하지만 소설의 주인공이라는거야 어디까지나 작품속의 인간들이 아닙니까.》

선생은 가볍게 웃으며 내 말을 받았다.

《물론 글속의 인간들이지. 그렇지만 냇이 있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냇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뜻부터 먼저 생각해. 그렇게 살 때만 이사람은 가장 아름다워질수 있다는걸 하나같이 보여주드란 말일세... 영철인 그래 진정 그런 삶에 한번두 매혹된적이 없었던 말인가?》

《없기야워...》

선생은 흥분으로 왼쪽 눈가녀를 바르르 떨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잔 말일세. 응?》

《...》

《왜 자신 없나?》

《...》

차라리 우리 마을 뒤산에 누워있는 광춘영웅이나 요즘 신문들에서 떠드는 어느 한 혁신자를 꼽았더라도 이처럼은 민망하지 않았을것이였다. 글썽 아무렴 리상적인 소설의 주인공들처럼이야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

《허, 자신 없는게로구만... 그러나 이보라구. 사람이란 높은데로 지향하지 않으면 한뼘 웅덩이에서 헤매다 마네. 쉽게 살면 죽도 밥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일세. 한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겠나. 그래서 난 좀 어렵더라도 작가들이 창조해낸 인간들과 견주어볼 생각을 한결세.》

《...》

생활에서 성실성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는 설학선생한테 이처럼 꿈같아보이는 지향이 간직되어 있을줄은 참말로 뜻밖이였다.

그러나 선생은 제잡담 다짐을 두어 계속했다.

《우리 꼭 그렇게 사세. 응? 그저 내 부탁은 이게 달세.》

《명심하겠습니다.》

그후 내가 설학선생을 다시 만난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휴가를 받았을 때였다.

선생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데는 방학기간을 자주 대건설장에서와 인민대학습당에서 보낸 탓도 있지만, 어찌다, 고향집에 휴식하러 내려가면 이번엔 설학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사적지답사나 공장견학을 떠나 없군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학교들마다에서 개학준비로 바쁠때 오는 길이니 설학선생을 만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였다.

기쁘면 좋은 일만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느닷없이 이번에 내려올 때 공업출판사 편집부로부터 해마다 앞날이 특별히 촉망되는 졸업생들에게만 차례진다는 과학연구의 계획과 결의에 대한 원고청탁서를 바로 내가 받은일까지 떠올라 옛스승에게로 달리는 나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해주는 것이었다.

《선생님!》

나는 마침 아이들과 마당에 나와 서있는 선생이 보이자 너른 절하며 달려갔다.

《아니 이게 누군가?!》

실학선생의 얼굴에는 대뜸 환희의 큰 물결이 떠올랐다. 어떻게나 큰 기쁨이 굵이치던지 전보다 더 떠는게 험똥한 눈의 탈조차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선생은 내가 그사이 너무도 몰라보게 달라져 어제날처럼 제자로만 대하기가 서슴어지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만 이윽고 변한 모습에 익숙된 듯 두팔을 벌리고 마주 달려왔다.

선생은 나를 덥석 껴안은 후 너무 격해신지 한 동안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제자들이 오죽 그리웠으면 이렇가.

듣자니 며칠전엔 로총각이 되여오도록 끌어오던 선생의 행복이 크게 굵이 갔다고 한다. 처녀 쪽에서 이 벽촌에다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 아픔을 나눌 제자들이 얼마나 그리웠으랴.

선생은 얼마후에야 걱정을 녹앏힌 듯 입을 열었다.

《보고싶었네. 최우등을 했겠지?》

나는 것처럼 따뜻한 목소리를 어머니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느닷없이 옛날 왕 다음에 선생이고 그다음엔 부모라고 해서 왕승부라 했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 것을 어찌는 수가 없었다.

내가 감동에 젖은 어조로 최우등은 물론 박사원에 뽑혔다는 대답을 하자 선생은 나를 번쩍 안아들고 휘 돌며 하늘쪽에 대고 큰웃음을 뽐어들었다.

어떻게나 눈굽을 지지는 듯하던지 나는 이렇게 인정에 주리게 한 내가 무슨 변변한 제자일가 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아마 이 순간 자신을 평가하는 제자를 키워놓은 것으로 해서 스승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실학선생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 휴식까지 단념하고 출판사로 분연 떠나려는 불같은 결심이 솟구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옛스승을 위해 서두르는 나의 이 소박한 진정이 도리어 선생을 크게 실망케 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하루 목게 될 이밤을 부모곁에서가 아니라 스

승곁에서 지내려고 선생네 집으로 건너와 저녁상을 마주했을 때였다.

선생은 내가 가져온 술을 들며 이건 술이 아니라 불이라느니, 그래도 역시 술술 넘어가니 술이라 부르자느니 하며 그냥 기뻐 어쩔 줄 몰라하던 나만 내가 아주 때마침 왔노라고, 물리실험실 겸 소형발전소를 하나 세우려는데 설계를 곧 해줘야겠다고 거의 지시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

나는 드러내놓고 난감해했으나 선생은 제흥에 겨워 계속했다.

《알아보니 소형발전소라는게 별게 아니더구만. 큰비닐주머니에다 물을 채워넣구서 푹을 막아두 전기를 얻을 수 있대. 하-난 정말이지 요즘 몸이 달아있네. 아이들에게 오죽 좋은 생산실습으로 되겠나. 게다가 집들마다에선 전기로 밥을 짓구 온돌도 덥히게 되네니... 어때? 피가 뛰지?》

선생은 나의 가슴에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는 듯 열렬한 기대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어 가볍게 한숨만 내그었다.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나는 별수없이 출판사에서 원고청탁을 받은 일이며 이 영예는 나의 것이자 곧 선생의 것이라는 데 대하여 력설했다.

《음 내 기쁨이지. 우리 벽계땅의 자랑이야. 잘 쓰라구... 그렇지만 영철이, 어떻게 그리 쉬 떠나다구 그러는 건가. 왔던김에 푹 쉬기도 하구 내일 두 줍 돕구 여기서 글을 써가지고 가게나.》

나는 원고기일을 보장 못하면 출판사에서 다른 필자를 택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할가 하다가 왜서인지 한점 때문지 않고 벌어지는 우리의 이야기에 한가닥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그럼 초벌설계라도 좀 해주구 가게나.》

나는 선생의 애원하는 듯한 어조에서 너자손이 없이 사는 사나이의 고충-매식을 뚫여야 하고 온돌을 덥혀야 하는 진저리나는 신역에 대한 말 못할 하소도 듣는 듯해서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마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튿날 현지를 돌아보고 간밤 나의 대답이 경솔했음을 깨달았다.

석회암동공지대여서 수몰될 구역만이라도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해야 할 것인데 건설에 주로력으로 참가할 예정이라는 학생들이란 그나마 열명되 나마나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이 모든 고생을 둘러질 것이 뻔했다. 더우기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동공구복도안까지 그리다나면 편집부와 의 약속을 리행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 나는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계획하고 결연히 군으로 향했다.

군에는 고향친구인 인수랑 있는터여시 일이 어렵지 않게 풀리었다. 군 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소에서 집들에서 쓰는 전기량보다 도중손실이 더 큰벽계촌 일이라 폐히 설계까지 자기네가 다 맡아하겠노라고 했다. 자기힘으로 하련다는 촌선생의 소박한 결심이 그들을 감동시킨것 같았다.

기쁜 마음으로 방을 나서니 밖은 이미 어둑어둑 황혼이었다.

어느때 같으면 어둠의 장막속에 묻힌 험한 산발들을 넘을 엄두도 못냈을것이였으나 선생이 기뻐할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 힘든줄도 모르고걸었다.

종일 보이지 않는 나때문에 걱정이 앞산만해서 개울 옷쪽으로 오르내리던 설학선생은 군쪽에서 오는 나를 보자 사뭇 놀라와했다.

나는 선생을 앞세우고 방에 들어서는 길로 고생을 안하고 실습용발전소를 세우게 된 사유에 대하여 기쁨에 넘쳐 말했다.

선생도 좋아할것이라고 믿은 나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선생은 고마와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을 쳐다보듯 서글픈 눈길로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누가 뭐 나라에 손을 내밀면 쉬운줄 몰라서 안간줄 아느냐고 물었던것이다.

나는 한무릎 나앉으며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냐고, 그러지 않아도 선생의 객지고생이 너무 크지않느냐고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그러자 선생은 실망조가 더 뿌옇게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섭섭하구만. 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생산실습때문에 그런다구 말했는데두! 원 그렇게 남의 등에 쉬 업힐 생각을 하다니. 음...》

《선생님!》 나는 큰소리로 불렀다. 극도로 억울해서 나는 그 목소리마저 낮은것 같이 생각되었다.

선생은 놀라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명치끝이 비틀리우기라도 하는듯 괴롭게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내 그만 자네 마음을 다 몰랐던것 같구만... 음... 안됐네. 여기 걱정 말구 래일 떠나게나...》

나는 갑자기 웅색스러워졌으나 선생은 아는체도 않고 제잡담 일어나 자자는듯 이불을 내리우기 시작했다.

나는 말 못다한 아쉬움때문에 눕고싶지 않았으나 선생이 불까지 꺼버리니 그결에 눕지 않을수가 없었다.

선생은 온밤 자지 않았다.

나도 잘수가 없었다. 방안에 어둠과 함께 무겁게 드리운 침묵이 나에 대한 선생의 더 큰 맬질

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선생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어째서 이런 억울한 때까지 맞아야 하는지 나는 통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닢이 첫해를 칠 때까지도 입에 빗장이라도 지른듯 다시는 열려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됐을 때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던지 소리없이 일어나 옷을 주어입더니만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따라일어나 내다보니 선생은 어둠이 질게 드리운 뒤산쪽으로 올라가고있었다.

(산속으로는 왜?)

나는 버쩍 의아쩍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는 사이 급히 신발을 찾아신고 따라섰다.

뒤엇킨 나무가지들사이로 눈이 시도록 유난스러이 떨며 빛을 뿜는 별 하나가 울려다보였다.

설학선생은 내쳐 올라가기만 하고있었다.

그새 몽유병이라도 걸리게 아닌가 하는 수상쩍은 생각까지 들었다.

선생은 둔덕쪽에 이르러서야 멈춰섰다.

좁후에야 나는 그곳이 광춘영웅의 묘앞이라는것을 알았다.

(아니 이밤중에 묘지에는 왜?)

나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어 눈 한번 깜박 않고 지켜보았다.

목도라도 드리는데 고개를 떨구고 섰는 선생쪽에서는 뭐라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강구니 억새풀 설레는 소리에도 지워지군하는 선생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귀전에 와닿았다.

《...이사람 광춘이, 자네한테 너무 큰죄를 진것 같애 올라왔네. 자네 간첩놈들을 두름으로 끌어잡히구서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을적에... 벽계촌 애들을 위해 선생이 뒤흔고 했는데 그냥 가자니 원통하다고 했었지.》

《?》 나는 한길 뛰며 놀랐다. 설학선생이 광춘영웅의 전우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선생의 눈탈이 군대에 복무할적에 생긴것이라는것은 모르는바가 아니였으나 광춘영웅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넘어들여와 란동을 부리는 놈들을 쓰러잡힐 때 뇌타박으로 하여 생긴것일줄은 너무도생각지 못한 일이였다.

그리고보면 나는 여직껏 너무도 철부지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있는게 아닌가. 기막힌 허무감마저 드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선생은 봉분곁에 주저앉아 새벽어둠속에서 풀려나오는 앞산을 잠시 바라보고있더니 추억의 줄을 조심조심 당기듯 나직이 계속하는것이였다.

《동무를 대신해서 이곳 애들을 키워보자구 오긴했네만... 난 몸만 왔었어. 마음은 오지 못했었어. 글쎄 내 키운 한 학생의 속을 헤쳐보니 뜨거

운 피라곤 한방울도 없네그려.》

나는 덤불속이라도 기여들고싶었다.

영웅의 묘앞에 와서 그말이 번져지니 나라는 인간은 한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물로 가득 찬인간으로 돼버리고마는것 같았다.

선생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과 얘기하듯 말하고있었다.

《박사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람을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대패질 할수도 없구.…. 다 내가 잘못 키운탓이지. 난 자네를 찾아오기조차 괴롭네.》

모닥불을 뒹집어쓰는듯한 심정을 느끼며 선생의 모습을 죄스럽게 바라보던 나는 더 예리한 창끝에 찔리우는듯한 감을 느끼며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새벽빛 어린 선생의 눈에선 말에서 울리는 어감에서보다도 몇갑절 더 아픈 마음속 몸부림이 흘러나오고있었기때문이었다.

크나큰 놀라움과 자책, 무섭게 다물리우는듯한 심정속에서도 나는 선생이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대학 전기간, 림철역에서 헤어지며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높은 뜻을 안고 장하게 살자고 것처럼 안타까이 호소하던 선생의 간곡한 부탁을 언제 한번도 되새겨본적이 없었다는것에 생각이 미치자 선생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용기마저 잃게 된다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아, 이것만 가지고도 선생은 가슴을 지며 온밤 울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제 리속부터 생각하며 뛰어다닌 제자를 놓고 밤을 지새우는 스승의 몸부림은 백번 당연한것이다.

나는 가슴을 뒤흔들며 뜨겁게 솟구쳐오르는 격동을 이겨낼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선생님!》하고 웨쳐부르며 달려갔다.

이윽고 나는 선생이 언젠가 내앞에서 그랬듯이 털썩 무릎을 꿇고 앉으며 다시는 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제이름부터 생각하는 일이 없을것이라는데 대하여 울음을 삼켜가며 말했다.

선생은 말없이 나를 껴안았지만 그 사려깊은 눈은 언젠가 역두에서처럼 《잘못사는 길은 쉽고 옳게 사는 길은 어렵단다. 그렇지만 어려운 길을 가야 훌륭한 사람이 돼.》 하고 조용조용 속삭이는것같았다.

인생을 꽃밭처럼 생각하던 랑만에 찬 나의 동심은 그후 소형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돌길우와 박사원으로 가는 대리석복도우에 락조처럼 꺼져 내리고 말았다.

그 대신 옛스승이 바라던 수월치 않은 인생길을 기어코 걸어보려는 새로운 결심이 바위처럼 우뚝솟구치는것이였다.

사실 그후부터는 모든데서 남보다 훨씬 앞서나가게 되는것이어서 나자신도 동무들한테 민망알 정도였다.

박사원을 마칠 때는 준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원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긴하게 요구하는 연구과제이고 해서 학위칭호까지 예정되는것이였으나 어느 한 새 시약제품발명이 조런치 않아 차일피일 미뤘더니 논문 접수로만 끝나게 됐었다.

나는 설학선생이 나의 연구사업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있어 다소 아쉬워하리라하는것은 모르지 않았으나 논문을 내왔다는것만으로도 기뻐하리라 생각하며 급히 편지를 썼다.

나는 축하전문이 곧 날아오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헌데 놀라움게도 열흘만에 나의 아버지로부터 삭정이를 끊어 련결시켜놓은것 같은 글체로, 설학선생이 교단을 떠나 바다가 고향도시로 가버렸다는 간단한 소식만을 알려왔다.

실로 청천벽력이였다. 내 고향마을 앞뒤산이 다물려나면 물러났지 설학선생이 벽계땅에서 떠날수가 있는가.

나는 마침 내 찾는 기초시료가 고향마을쪽에 있을듯싶어 늘 한번 내려갔으면 하던차라 행장을 꾸러가지고 분연 떠났다.

언제나 가담가담 풀을 뜯고있는 양무리와 조으는듯한 신비스러운 정적으로 맞아주군하던 벽계촌은 놀라움게도 거창한 대건설의 동음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대수력발전소의 보조언제를 쌓기 위해 큰건설사업소가 병원이며 학교까지 거느리고 들어와있었던것이다.

산기슭과 비탈에 가설집들이 구경스러울정도로 묘하게 들어 앉아있었다.

나를 만난 기업소학교 교장선생은 자기네가 이곳에 5년정도 머물러있게 될것 같으며 보조언제라지만 70리밖 기본언제만 못지 않게 큰 사석언제라고 한참 자랑하고나서 조심히 설학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다.

…교장은 원래있던 발전소학교에서 뒤겨두매를 하다나니 벽계촌에는 며칠 늦어 도착했다.

바로 그때 교장은 매우 놀랍게도 검은 안경을 쓰고 강의를 하려 들어가는 한 낮선 교원을 보았다. 기업소학교에 편입된 이교장교원이라는것은 짐작 못한바 아니였으나 색안경을 끼고 교단에 나서는 선생은 일찌기 보지 못했던터라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당장 불러들일가 하다가 한 교원한테 슬며시 알아보니 리유가 여간만 가슴을 치는게 아니였다.

놈들때문에 생긴 눈의 탈이 요즘 더 악화되어 학생들의 눈길이 칠판보다 거기에 더 가는 관제

로 그 선생은 검은안경을 끼지 않을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새 생활세계라도 본듯 가슴이 들먹거림을 느끼며 미리 알아보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타임직장에 있는 한 학부형이 교장을 찾아와 자기 아이는 설학선생이 담임한 학급에서 공부시킬수 없으니 속히 편학급으로 옮겨달라고 제기했다. 어린 아들이 시켜면 안경이 무서워 그한테선 수업을 못받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웃었다. 그리고 학부형을 잘 타일러 보냈다. 그런데 며칠후 또 다른 학부형이 그를 찾아와 똑같은 제기를 했다.

신통히도 발전소건설과 함께 이곳으로 온 애들의 학부형들이었다.

교장은 병의 물을 거꾸로 쏟아버리듯 들입다 욕도하고 애라서 타이르기도 했다.

한동안 증증해져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어느 날밤 느닷없이 설학선생이 그를 찾아왔다.

《교장선생님.》 설학선생이 말문을 열어놓고 갑자기 목에 돌이라도 가로결린듯 피로와하자 교장은 가슴이 덜컥해서 물었다.

《왜 그러오? 어디 아프오?》

설학선생은 자기 운명앞에 난데없이 나타난 나락의 깊이를 가늠해보기라도 하는듯 잠시 침통한 눈빛으로 굽어보고있더니 마디마디 빚어올리듯 힘겹게 말했다.

《전... 교원생활을... 그만둘가... 합... 니다...》

《아니 뭐, 뭐요?》 교장은 그를 위해 가슴속에 알심있게 둘러쳐던 마음의 울바자가 철썩 나가넘어지는것을 느끼며 뉘척물었다.

설학선생은 고향으로 돌아가려한다고 쓸쓸히 말했다.

부지중 교장은 당장 날아갈 사람이기나한듯 설학선생의 손목을 덩석 붙들며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사정을 다 얘기했으니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허... 교원의 눈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 이상 제 어떻게 더 교단에 선다구 그러십니까. 이번에 알고보니 아이들은 선생의 눈을 통해 자식들의 밝은 미래까지 내다보려 하던데요.》

《그렇지만 선생에게야 사정이...》

《아닙니다.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설학선생은 더 논의해볼 여지도 없다는듯 확고한 어조로 말한후, 고통을 담아 벽계촌아이들의 장래를 부탁한다고, 교장선생이 이곳을 아주 뜰 때는 착실한 선생을 하나 꼭 남겨놓아달라고 당부하고선 더 붙들가봐 겁나는듯 뛰쳐일어나 나가는 것이었다.

그날저녁 교장과 마을사람들은 고향으로 떠나

는 설학선생을 울며 배웅했다...

교장이 아픔을 안고 가까스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슴속에서는 그에 대한 불만이 세차게 끓어올랐다.

설학선생이 아무리 고집을 쓰더라도 붙들것이지 왜 놓친단 말인가, 실로 내 고향 벽계촌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을 잃었는가.

나는 훌쩍 벗어진 교장의 대머리를 잠시 원망스레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길로 산림보호원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당장 설학선생을 데려오겠노라고 덤벼쳤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서 샘물같은 설학선생의 마음으로서야 그럴수밖에 더 있겠는가, 학생들의 거울이 될수 있게 탈을 깨끗이 고치기 전에야 다시 안을 설학선생이라는걸 알면서 가길 어딜 간다고 그러는가고 말했다.

격랑같은것이 움썰대는 가슴을 눅눅히자니 나의 온몸에선 뼈마디들이 드티여지는 소리라도 나느것 같았다.

치료채취에서도 성과를 못보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한테 자주 편지를 띄워 설학선생의 그후 소식에 대하여 알려고 애썼다.

아버지한테선 설학선생이 지금 바다가 고향도시에서 그의 《불행》에 감동된 친구들과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속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노라는 소식이 왔다.

더우기 기쁜것은 제몸의 탈보다도 산골아이들의 앞날을 더 중하게 여긴 선생의 그 보석같은 마음에 크게 감동된 애인이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설학선생의 품으로 아주 돌아왔으며 이로 해서 한순간이나마 마음이 약해졌던 설학선생이 다시 용기백배했다는 그것이었다.

아, 후대를 위해 바친 교육자의 정성이기에 만사람이 함께 가슴을 내대며 돕는구나.

격동은 나도 어서 옛스승에게 힘이 될 무슨 일인가 해야겠다는 불같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했다.

나는 아직 기초치료 하나들 발견하지 못해 연구과제를 마무리 못하고 있던차라 현지에 나가 그것도 찾으며 선생의 약도 구하리라 결심을 하고 분연 출장길에 올랐다.

나는 연구사업 여가에 약방문을 들으려 수십리 발길도 멀다않고 다니였고 때로는 눈병에 좋다는 천리송을 뜯으려 구름길에 솟아있는 산밭을 토틈기도 했다.

구하는 약재들은 현지에서 곧장 소포로 보내곤 했다.

진짜로 값진 약은 현지생활이 끝날무렵 대학으로 돌아오는날 구했다.

합숙으로 들어가 어서 소포부터 꾸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바삐 걸음을 다우치는데 합숙관리원 어머니가 편지 하나를 들고 달려나오면서 지금 막 등기편지가 왔다고 알리었다.

나는 바삐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어느 해안도시에서 한 여성이 보낸 등기여서 나는 저으기 의아해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쪽에 아는 여성이란 단 한명도 없었기때문이었다.

속지를 꺼내는길로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녀성은 서두에 무척 망설이다가 펜을 든다고 쓴후 자기는 설학이라는 사람의 안해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 사모님이었구나!) 나는 천리 멀던 녀인과의 사이가 대번에 한치앞으로 가까와지는듯한 기쁨을 느끼며 바삐 읽어내려갔다.

《...그인 더 큰병원으로 옮겼어요. 눈탈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병때문입니다.》

나는 다시금 심장이 째게 뛰노는것을 느끼며 서둘러 읽었다.

《그인 동지가 현지에 나가 약을 구해 보내준다는걸 알고 처음엔 감사해 했지만 그후부터 무척 불만해하셨습니다. 그인 저한테 말했어요.- 그 어디 있는 구석을 두지 않고 비쳐주는것이 우리 당의 해빛인데 뭇때문에 의사도 아닌 그가 제 할일도 안하구 뛰어다니는지 모르겠구만. 그가 연구하는게 성공만하면 우리 과학은 한계단 더 올라선다던데... 우리 과학이 그자리에 머물러 있어두 아무런지 않다는건지?- 어느날엔 내 모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아직 그 사람에게 몇번이나 더 내려가는 길은 쉬우나 거기엔 한뼘 빠져 헤매여야 하는 웅덩이가 있다는 소릴 해야겠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읽기를 그만두고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굳어져있었다. 참말로 억울했다. 그래 제자가 스승을 위해 이만한 정성도 보일 권리가 없단 말인가?

분함을 이겨낼수 없어 한참이나 어금이를 짹지르물고있다가 다시 흥심없이 글줄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후부터는 싸늘해졌던 심장을 뜨겁게 달구며 피가 다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뜻밖에도 그 병원에 나와 한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가 출장길에 결막염에 걸려 입원했다한다. 설학선생은 그를 통해 내가 아직도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어느 한 기초재료를 찾지 못해 연구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은 퇴원하는 길로 그 도시에 사는 과학자들은 물론 지리, 화학교원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기초시료가 있음직한데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드디어 한 오랜 과학일군의 확신있는 소개를

받고 선생은 해발 2천을 헤아리는 벼랑산으로 용약 떠났으며 중도에서 그만 큰비와 사태를 만나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끌며 그냥 산으로 올랐다는것이였다....

글은 채 끝나지 않았으나 내 가슴은 도끼로 마구 찍히는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몸을 상하고 더 큰병원으로 옮기는 스승의 모습이 저절로 눈앞에 진하게 그려지는것이여서 가슴은 더욱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수일내로 과학자 한사람이 선생이 찾은 기초시료를 인계하러 나를 찾아갈것이라는 마지막 대목을 읽었을 때는 목구멍에서 큰볼덩어리가 구울렀다.

너무도 오래 옛스승의 등에 업혀 살아온다는 생각이 든것은 그때로부터 잠시후였다.

(박사원을 마치게 된 오늘에도?) 하는데로 생각이 와닿는 순간 나는 휩쓸어드는 환멸감때문에 세차게 몸부림쳤다.

아, 결국 나의 삶은 죽도 밥도 아니었구나. 정녕 남의 등에 업혀 오른 산이 그 아무리 높다한들 어찌 그 높이를 진실로 알수 있단 말인가. 열가운데서 셋은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곱은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는것지만 나는 그 열을 다 선생에게서 배우는 알짜 건달군이었구나.

선생한테는 물론 과학앞에서도 큰죄를 졌다는 의식으로 하여 나의 심장은 더 아프게 신음했다.

아마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절망의 싸늘한 재가루만이 아니라 봄날의 새싹과도 같은 푸른 희망이 가슴속으로 비집고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면 마당 한가운데지만 땅을 치며 울었을것이였다.

사실 오늘 비로소, 나에게선 그래도 일없을 생활이 어찌서 설학선생앞에선 속물적인 생활로 되며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되는가를 명백히 깨닫게되는것만도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며 생활의 큰 언덕길에 올라서는 환희로운 일인가.

고마운 설학선생! 정녕 선생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번에도 자신의 운명보다 한 제자의 병든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기며 찢기는 자기 몸의 아픔으로 그것을 밀어냈었다. 아니 선생은 매번 그렇게 비싼값을 치뤄 후대들에게 옳은 길을 잡아주고 눈물 없이는 바라볼수 없는 인생스승의 숭고한 모습을 지켜가는것이 아닌가.

나는 큰산이라도 하나 받아안는듯한 기쁨과 격동으로 온몸을 떨며 먼곳에 있는 선생을 향해 제발 한번만 더 용서해줄것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이후 나는 다시는 스승을 괴롭히지 않을 결심으로 과학탐구의 하루하루를 기름땀으로 절구었다.

밤낮을 모르던 긴장한 그속에서도 나는 누구와

특별한 편지거래를 없었지만 설학선생이 큰병원에서 퇴원했다는것, 그러나 아직 눈때문에 교단에서는서지 않고있다는것, 선생은 벽계촌에 들렀다가 어디론가 썩 먼곳으로 떠났다는것, 벽계촌에는 보조언제가 완성되고 건설사업소는 새 발전소 건설장으로 옮겨갔다는것, 그러나 교장은 그곳 분교 교원으로 자진해서 아주 떨어졌다는 소식 등을 풍편에 들어알고있었다.

벽계촌! 영원히 잊을수 없는 한교원에 대한 귀중한 추억이 아름답게 깃든 정다운 내 고향!

나는 생각하면 속이 울적해지군하여 벽계촌에 대해 되도록이면 생각지 않으려고 애쓰군했다.

그러나 모든것이 과거로 아득히 멀어져가도 언제나 쉬 잊혀지지 않는것은 설학선생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선생의 종적을 딱히 알수 없어 늘 아쉬웠다.

도농촌경영위원회에 있는 인수한레선 설학선생이 시신경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어느 온천마을로 갔다는 소식을 보내여오고, 미생물학자가 된 한 친구한테선 선생이 어느 이름없는 섬마을로 갔다는 종잡을수 없는 소식을 보내여오는것이어서 선생과의 인연은 자연 점점 떠지는것이였다.

게다가 인젠 그때로부터 세월이 너무도 많이 흘렀다.

벽계촌마을은 이미 추억의 먼 기슭으로 밀려나 안개속에 싸여 희미해진지 오래다. 아버지까지 년로하여 몇해전부터 내곁에 와 살다보니 벽계촌과의 련계는 더욱 설피여갔다.

옛스승에 대한 기억도 아무리 눈바투 붙들고있으려 해도 끝없이 다닥치는 생활의 크고작은 파도에 밀리고 밀리우며 어느덧 추억의 아득한 기슭으로 멀어져가는것이였다.

하기야 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은 새 동지들과 스승들을 사귀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 설학선생의 모습은 어두운데서 앞을 밝혀주던 작은 등불이 호화찬란한 대도시에서는 빛을 잃고 말듯이 천천히 꺼져가고마는것이였다.

...추억의 총계를 여기까지 더듬어내리자 나는 곧장 무섭게 엄습하는 려독에 놀리며 잠의 나락속으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꿈도 없는 군잠이였다.

얼마나 갔는지 아래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어렵듯이 깨어났다.

돌아누우며 다시 잠을 청하려던 나는 너무도 귀익은 소리에 화를 놀라며 신경을 강구었다.

《글쎄 내 걱정은 말라니까. 게다가 인제야 개울에 다리까지 놓지 않았나.》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널뛰듯한다.

금돌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랑 곧 들어오시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헛참, 내가 빨리 안가면 국철학생이 그냥 기다린다니까.》

《그 애 공부야 래일시켜두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해놓구 그러면 쓰나. 못된 버릇 붙으면 어쩔려구... 자, 그럼 이자 배운걸 꼭 한번 복습해보구 자도록 해라.》

문 여는 소리... 나가는 소리... 아, 틀림없는 설학선생이다!

누구도 오기 싫어했을 여기... 그러나 선생은 눈탈을 고치는길로 기꺼이 먼 산골아이들을 찾아온것이였다.

그처럼 만나고싶던 옛스승인데도 왜선지 껌짝 일어설수조차 없다.

오늘도 선생처럼 살지 못했기때문인가.

번개가 퍼런 불길로 창호지를 태우고 퇴성은 누군가를 꾸짖듯 무섭게 우르렁거린다.

하늘은 심술쟁이가 함지박의 물을 내갈리듯 무더기비를 퍼부으며 더욱 소란스럽게 군다.

나는 아직도 돌미륵처럼 앉아있다.

어쩐지 이 세상엔 일찌기 비소리와 번개, 그리고 우뢰소리밖에 아무것도 없었던듯한 생각이든다.

문득 그 소리들에 엇섞여 성급하고 소란스럽게 흘러내리는 개울물소리가 들렸다.

설학선생이 벌써 다리에 넘쳐나는 물속에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방바닥을 차고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번개불이 구렁이처럼 구불뻑거릴 때마다 맹금의 검은 날개같은것이 펼쳐졌다 말았다 하는 개울로 지금 한 늙은이가 용약 들어서고있었다. 탄력이빠진 어깨, 굵은 등, 흰머리... 이젠 모든것이 오늘의 투쟁에서보다 과거에 대한 추억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 나이라는게 력력하건만 그는 불어난 강물의 무서운 소용돌이도 두려워않고 이밤에 다시금 후대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고 있는것이였다.

희생된 전우의 꿈을 받아안고 인생행로를 바꿔 정한 그날부터 산골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는 수고로운 길이었다.

정녕 그는 항상 네번째 제자는 세번째 제자보다 더 쓸모있는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안고 허구한 날을 흠이 되고 거름이 되어 살아오는 참된 교육자였다.

좀 후에 나는 설학선생을 향해 오래 허리굽혀 인사하고싶은 존경의 마음과 이 불민한 제자를 부디 용서해줄것을 바라는 사죄의 심정을 안고 옛스승을 따라 물이 넘는 다리로 건느기 시작했다.

교육자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요구에 대한 생각

심상길

출세와 명예, 자신의 안락을 묻어두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값있게 살아가는 숨은 노력가, 숨은 영웅들속에는 밀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조국의 미래들을 키워내는 말없는 숨은 혁명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보다 래일을 위하여 자기보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낯은 교단에서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것처럼 믿고 내세우고 아끼는 숨은 노력가, 교원혁명가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우리 문학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주제, 교육자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 문학에는 교육문제, 교육자의 형상이 적지 않게 창조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편소설 《나의 교단》,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 단편소설 《담임선생》을 비롯하여 일련의 작품들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 교육자의 참신한 형상들이 창조되어 사회주의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그러나 오늘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비약하는 교육현실은 이 부문주체의 문학작품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창작되기를 바라고있다.

무엇보다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로서의 교육자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인간적특질을 깊이 있는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는것이다.

주체형의 교육자의 형상은 우리 시대의 숨은 노력가, 숨은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공통적인 사상정신적풍모를 체현하고있으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간적특질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성격이다.

그것은 교육자는 자신이 참된 인간이어야 할뿐 아니라 그가 맡은 대상도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인간 교육자, 교양자이기때문이다. 주체의 참된 교육자는 사상과 지식, 실천으로 후대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혁명위업에 한생을 바치며 여기에서 자기의 보람과 긍지, 행복을 찾는다.

눈에 띄우게 나타나는 일보다 먼 후날에 가서야 나타나게 될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하여 누가 보는데서나 보지 않는데서나를 막론하고 성실한 노력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깨끗한 량심을 다기울인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교육자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인간적특질을 깊이있게 밝히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자면 심각한 극적체험을 안고있는 생활뿐만아니라 교육현실의 여러 단면을 깊이 파헤치고 여기에서 우리 시대 교육자의 전모를 감명깊게 그려내야 한다.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은 오늘 우리 교육현실이라면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극히 작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성실성과 깨끗한 량심에 관한 문제제로 승화시켜 정서적으로 형성한 아담하고 특색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소설에는 어떤 기이하고 특수한 사건이니 소재가 아니라 도교수강습소로 소환되어가는 은희교원이 학급을 인제하고 떠나가는 과정에 따라오는 학급학생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을 취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강렬한 미적충동과 흥분을 안겨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자기가 맡아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하여 쏟아붓는 교원의 남모르는 숨은 정성, 사랑, 열정과 깨끗한 량심문제를 생동하게 펼쳐놓고 그러한 교원을 따르는 학생들의 심리발전세계를 정서적으로 그려낸것과 관련된다.

소설에서는 또한 학급을 인제하고 읍으로 떠나는 담임선생을 만나려고 그가 탄 버스를 따라오는 학급아이들의 모습과 감격적인 상봉을 참으로 생활감이 나게 정서적화폭으로 부각하고있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머니다운 애정과 진정으로 보살펴준 은희교원이였기에 아이들은 이렇듯 《우리 선생님》이라고 목놓아 부르며 따르는것이다. 《우리 선생님》, 이것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다들을수 있거나 불리우는 말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란 이 말은 그대로 교원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뜨거운 애정과 진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보살펴주었는가에 대한 편견없는 정확한 총화이며 평가인것이다.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의 경험은 극적체험과 인간의 운명 개척문제가 있는 거창한 생활만이 아니라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교육현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회적문제점을 포착하고 독특한 형상수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아담하고 정서적인화폭으로 가득찬 우리 시대 교육자의 참모습을 인상깊게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런 형상각도에서 보면 단편소설 《담임선생》(강귀미)도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속에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의 하나인 교육 문제, 교육자의 형상을 감명깊게 형상한 인상깊은 작품의 하나이다. 물론 단편소설 《담임선생》은 주제의 영역에서 보면 민족적자존심과 조국애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설은 어디까지나 후대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는 사업에 헌신하는 교원의 사상정신세계의 인간적특질을 통하여 조국애, 민족적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뜻깊게 밝히고있다.

단편소설 《담임선생》은 해외인 일본땅에서 벌어지는 특유한 교육활동을 소재로 하고있으나 주인공 김영세교원의 내면세계를 특징적인 행동세부와 재치있는 수법으로 그려냄으로써 민족적자존심을 지켜가는 교육자의 형상창조에 힘있게 이바지한 향기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교육자의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미학적천상 요구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제제》**가 밝힌 교육방법을 구현해나가는 숨은 노력가, 교원혁명가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는것이다.

교육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어렵고도 보람찬 사업이며 교육문제는 인간개조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형상은 사실상 인간개조자의 성격창조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결국 교육문제, 교육자의 빛나는 형상창조 문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는 옳은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 그들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가는 인간개조의 역사를 감명깊게 그리는 과정이며 그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과정이다.

오늘 사회주의교육은 그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킬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바라고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우리 문학앞에 교원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교육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숨은 노력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우리 시대 교육자의 참된 모습을 공산주의 인간학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작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교육일반을 통하여 교육문제, 교육자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창조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활동과 교수사업과정에서 사회주의교육의 원리를 구현해가는 교육자의 형상은 매우 적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절실한 교육문제에 적게 낮을 돌리고있는데로부터 교육현실을 깊이 파헤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

다.

오늘 우리 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자면 교수준비로부터 교수과정, 교수내용의 소화과정과 그에 대한 검열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직관, 실물 교육을 널리 받아들이며 교수방법을 탐구해나가는 직업적혁명가로서의 교육자, 교원의 형상을 새롭고 깊이있게 여러모로 창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작가들이 몸을 잠그고 교육세계를 깊이 알 때 비로소 교육의 진미가 느껴지는 감명깊은 교육자의 형상을 창조해낼수 있다.

중편소설 《나의 교단》(최상순)은 이런 요구에서 볼 때 주목할만한 교육주제의 작품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중편소설 《나의 교단》은 높은 책임성과 교육자적자질, 샘물처럼 깨끗한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혁명가들만이 우리의 교단에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사색과 노력을 다하는 현인순의 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현인순은 지금의 교육현실이면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산촌학교의 보통교원이며 작품에 펼쳐진 현실도 우리가 늘 보며 눈에 익혀온 낯은 교단이다. 그럼에도 소설이 독자들의 관심속에 읽히워지는것은 우리 당 교육정책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교육문제를 찾고 이것을 옳은 인간관계의 진지한 세부형상의 탐구속에서 실생활처럼 재현한것과 관련된다.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담보되지만 소설인 경우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과 해명, 세부형상의 생동성에 많이 달려있다.

더우기 심각한 극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한 현실처럼 재현해야 할 현실주제의 소설작품에서는 이 문제가 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중편소설 《나의 교단》에서는 특히 주인공 현인순이와 정선옥과의 관계, 인순이와 교장, 인순이와 김진호, 인순이와 태일이, 교장과 정선옥, 정선옥과 별이 등의 인간관계가 생활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있다.

주인공 인순이와 선옥의 관계, 교장과 선옥의 관계를 통하여 옳은 교수방법과 교양방법을 탐색하면 교육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의 후과를 낳는다는 의의있고 절실한 사회적문제들을 밝히고있다.

중편소설 《나의 교단》은 또한 진지한 세부묘사의 탐구로 기정사실화되고 격식화될수 있는 교수활동과정에서 교육방법을 구현해나가며 오직 학생들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청렴

하고 리지적인 교원의 정신미를 인상깊게 형상하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실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는 인상깊은 세부로써 생활의 본질을 밝히고 형상의 깊이와 생동성을 보장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 아무리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생활을 묘사하여 감명깊은 형상을 창조하려고 해도 생활을 통채로 가져오면서 분석적인 세부묘사에 무관심하면 레외없이 창조적환상이 예술적으로 재현될수 없다. 더우기 교육학적요구에 의하여 반복 심화되는 교수 내용과 방법, 인식, 활동과정을 통하여 의의있고 절실한 교육문제를 예술적형상으로 밝히는 작품인 경우 세부묘사의 적극적이며 다양한 활동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이처럼 중편소설 《나의 교단》은 스쳐버리기 쉽고 범상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교육현실에 낯을 돌리고 인상깊은 세부묘사를 잘한 결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는 교원의 모습을 참신하게 형상할수 있었다.

물론 중편소설 《나의 교단》은 특색있는 형상수법이나 생동한 언어표현수단의 리용보다 사건과 생활을 서술로 가리운 부족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바라는 교육자의 형상창조에 적으나마 기여한 작품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 발전하는 교육현실이 요구하는 참신하고 향기깊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양상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조선국수

권강일

이웃나라 어느고장에 또 있는지
세상 많은곳 가보지는 못했어도
부르고싶네 이것을 《조선국수》라고
그중에도 소문난 평양랭면을

저보라구 창너머 대동강물이
구슬처럼 반짝이니 옥류관의 멋일세
수도에 왔다가야 그저는 못가지
어서 드세나 식초병 여기 있네

조상대대 어느때에 생겨났는지
래력은 몰라도 이것만은 아네
조선의 얼을 지켜 서있는 만경대고향집
허청간에 정히 국수분들이 있는것을

평양랭면 두고는 이야기도 많지
조선이란 이름조차 사라지던 날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에게
수령님께서 조국애를 심어주신 그 사연

나는 보았네
수령님께서 전화의 날에 잠시 계시던

최고사령부-농가집 부엌시렁에도
알른알른 대우를 낸 국수분들 있는것을

전선에서 수고 많은 지휘관들 들어설 때
먼나라 손님들이 찾아올 때도
다름아닌 국수를 별식처럼 차려
생활의 웃음을 피워주신 이야기

나는 생각하네
우리 수령님께서 이 음식을 즐기심은
민족의 넋을 고이 지니신
애국의 높은 뜻이심을

설혹 어느 나라 어느고장에 있다고쳐도
그 맛 조선의 국수같지는 않으리
거기에는 이런 사연 없기에
거기에는 이런 뜻 깃들지 않았기에

어지러운 남녘땅 형제들에게도
먼곳에서 찾아오는 해외동포들에게도
잊지 말고 권하세 평양랭면-《조선국수》
이 땅이 빛나오른 이야기와 함께

시조

추억깊은 병사시절

주광남

왜 추억하는가, 병사시절을

어려운 때에도 추억하노라

즐거운 때에도 추억하노라

스무해도 더 전의 병사시절

엇그제처럼 생생한 병사시절

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그날부터

낳아키운 고향의 어머니보다

조국이란 말 더 자주 외웠나니

추운줄을 몰랐더라

언땅을 배에 깔고 잠복에 새울 때도

아버지별인 항일투사 우리 부대장을

동지라 부르며 엄숙해지던 마음

혁명군대 대오에 선 궁지로 부풀었나니

삼복철에도 더운줄을 몰랐더라

군복단추 채워입고 산발을 달리면서도

자랑스러웠노라

살얼음 헤치는 도하의 밤

물에 선잠 뛰어들어 분대폐목 밀 때가

전술훈련의 칼벼랑앞에서

전우들 발밑에 내 어깨 선뜻 들이밀 때가

아, 어렵던 일이 먼저 떠오르는

병사시절의 가슴 더운 추억이여

금주고도 못산다는

젊은 시절의 고생을 이겨낸때문인가

자부하노니

어려울 많을수록 보람컸던 그 시절

나는 몰랐다 동지밖에는

나는 몰랐다 조국밖에는

아, 병사시절!

혁명전사의 억센 발걸음을 익혀주고

조국애의 깨끗한 량심을 키워준

내 한생에 가장 귀한 청춘시절이여!

어려울 때에도 추억하노라

즐거울 때에도 추억하노라

그날의 뜨거운 숨결로 가슴 덥히며

그날의 모습 내 삶의 거울삼아 비춰보며

제대되어 용해장에 들어서던 날

놀라며 반기며 나는 웨쳤다

방열복 입었어도 첫눈에 알리는 얼굴

달려가 그러안으며 나는 웨쳤다

《분대장동지!》

전우

세월은 흘러흘러

어느새 내 또한 반백이 된 얼굴

길가에서 문득 승용차를 세운 사람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더라

사관장동무 나를 모르겠는가 하며

통성되면 성급히 서로 묻게 되더라
키척다리 부소대장은 어디에 있는가고
기구체조때문에 애도 많이 태우던
똥똥보 기관총수는 무슨 일을 하는가고

멀리 흘러갔어도 너나없이
병사시절 그 직무로 부르며 찾는 마음
한가마밥 먹으며 살아서인가
한침대에 자고 일며 정깊어져서인가

아, 전우!
격전의 전호에 함께 선다면
목숨도 서로 대신할
숭고한 정신이 깃든 이름

병사시절의 그 우정 못잊어
누구나 부른다 그날의 군사칭호로
한생토록 귀중히 간직하고있어
오늘도 부른다 그날의 직무로!

총신강

온몸의 신경을 다 모았노라
말끔히 청소 끝낸 총
하늘에 비껴대고 총구를 살필 때
그러면 해살 비껴 반짝이는
아, 반짝이는 총신강!

맑고 깨끗함 거울에 비긴다지만
너를 어찌 거기 비기랴
거울이야 결모양 비쳐보는것
조국을 지켜 티없는 병사의 마음
총신강엔 그 귀한 량심이 비끼거니

《군사교범》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네
엄격하던 사관장 생각할 때면
전사들 소곤소곤 직무대신 부르던
《군사교범》이란 그 별명
그 별명을 두고
웃음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중대의 익살군 부소대장은
짐짓 정말인듯 이야기했더랬지
그 별명 얼마나 입에 올랐으면
아차, 그만 대렬보고하는 때조차
《군사교범동지》 하고 불렀겠느냐고

와하하 웃으며 떠들다가도

《첫-군사교범》
누군가 조용히 귀뜸만하면
벌떡 일어나며 모두다 차렷자세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지나가며
《쉬엳들하시오》-한마디뿐이었지

목달개가 검을세라
모표의 금빛 흐려질세라
아침검사시간엔 칸칸하던 그 성미
대렬행진 발구름 조금만 낮아져도
반복구령 내리던 엄한 그 목소리

야속한 마음으로 어느 전사 지었던지
알맞는 그 별명 생명력이 있었네

사단장도 우리 중대 병사들을 만나면
《군사교범》 잘 있는가
묻지 않았던가

아, 《군사교범》!
지금엔 간절히 그 별명 외워보네
외모도 마음도 언제나 깨끗이
자세도 의지도 언제나 깨끗이
간간한 눈길로 엄한 목소리로

다스리며 키워준 그 고마움에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 별명
그리움에 젖어 후더움에 젖어
옛중대 전우들 나처럼 외우려니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별명은
동지들을 위한 진정을 되새기며
나는 불러보네 《군사교범》 《군사교범》...

군복

아직도 나에겐 있다
병사시절의 군복
적위대훈련의 날이면
령장없이도 자랑스레 펼쳐입는다
색갈의 이름조차 보위색

손목이며 발목이며 허리띠
항시 가뜰히 조이며
몸도 마음도 팽팽히 살게 하는 군복

충을 메야 어울리는 옷
입고 나서면
달려야 할 산발부터 눈에 보이고
가슴은 결전장에 나선들 벅차오르거니

오, 군복이여!
총탄의 비발속이든 불길속이든
조국 위해 선뜻 내맡길 몸 아니고선
땀땀이 입을수 없는
너는 성스런 혁명의 제복!

오늘도 래일도 병사시절에

못해본일 무엇이라
병사시절에
푸르른 달빛아래 처녀와 속삭이는
그런 일 내놓고야
총다루는 솜씨쯤 더 말해 무엇하리
밥을 지으라면
중대의 그 많은 밥 기름이 돌게 짓고
빨래도 바느질도
너인들의 솜씨 부럽지 않았노라
도끼 하나 들고 산에 오르면
분대의 야전병실 잠간새에 세우고
천막 하나 있으면

사품치는 강물도 날을듯 넘고
못배운것 무엇이라
으리으리한 강의실 책상에 마주앉아
엄숙히 올리는 교수의 강의를
과학의 진리 익히는 복잡한 공식들을
들으며 베껴쓰는 그런 일 내놓고야
한마디 영어를 외워도
총창 비껴들며
《미국놈 손돌엇!》
전투적용어를 먼저 익혔노라
수학이며 물리학 천문학들도
전술훈련속에서 생활로 익혔노라

오, 수자로 새겨넣는 지식이 아니다
땀뿌리는 행군과 훈련 속에
심장으로 삶의 진리를 체득한
병사시절이여!

명령 한마디면
어길줄 모르는 그 의지만 키웠던가
말은 일이면 그 누구의 힘도
바라지 않는 습성만 체질로 되었던가

안일은 순간도 꿈꾸어본적 없노라
사심은 한오리도 가슴에 깃들지 못했노라
투쟁만을

혁명만을 자부하며 산 그 시절

구호를 웨쳐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총창을 비껴들어도 당중앙을 옹위하기 위하여!
그 길에선
목숨도 선뜻 바칠 각오
신념으로 새겨준 병사시절

어느 한 순간의 생활을 추억해도
내 한생의 고귀한 귀감이 되거니
아, 오늘도 래일도 나는 살아가리
병사시절의 그 마음을 안고!
병사시절의 그 발걸음으로!

저 아이들을 보라

전병구

사람들이여
당신이 안고있는 아들딸같은
당신의 어린 손자 손녀와 같은
분계선 남쪽에 서있는 저 아이들을 보라

꽃다발을 안고
범민족대회 북의 예비접촉대표를
마중간다고 마중간다고
서울을 떠나
파주를 지나
기쁨을 안고 달려온 저 아이들을 보라

갈라진 강토의 슬픔을
그들이 안다면 그 얼마나 알랴만
통일없인 살수 없기에
굽에도 소원인 통일을 부르는
저 아이들을 보라

그대가 북에 있건
그대가 남에 있건
멀고먼 해외에 있건
안고온 꽃다발을
안겨주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는
저 어린것들을 지켜보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달려가 안아주어도
우리 마음 다할수 없고
두팔로 높이 쳐들어주어도
그들의 웃음을 다 피워줄수 없건만
돌아서 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쓰리고 아픈 마음이여!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받는 분렬의 슬픔을
그 작은 가슴에 다시 넘겨주고
저 아이들이 이 땅에 자라게 한다면
우리 무엇이 되랴, 무엇이 되랴

안겨주라
저 어린 가슴들에 안겨주라
분렬의 지나간 세월 그리도 우리가 바라던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라

웃는 조국을 안겨주라
푸른 하늘을
푸른 땅을
아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된 조선을
저 어린 가슴들에 안겨주라

다시 찾는 길우에서

리기창

인민군창건기념일을 맞이하여 전연구분대를 방문하는 우리 인민대표단성원들을 태운 빠스가 철령을 가까이하자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뒤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나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수송차 운전사로서 이 철령을 수없이 넘나든 사람이다. 그러니 어찌 감회가 깊지 않으랴.

차창을 통하여 눈에 익었던 그날의 전선수송길을 애써 더듬어보려고 하였으나 37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 길은 너무나 몰라보게 변모된듯싶었다. 도로의 폭은 그때보다 두배로 넓어지고 우불 구불하던 산굽이길은 곧짜기틀 메꾸어 직선으로 곧게 펴놓은데다가 길가마다 목란, 살구나무, 배나무, 감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며 갖가지 꽃나무들을 심어놓아서 마치 꽃향기 무르녹는 파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모름지기 이 길우에도 그 어느 착실한 도로관리원의 뜨거운 손길이 스며있으리라는 생각이 느닷없이 갈마들었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진한 꽃향기가 흘러든다.

길가의 숲속에서 평화롭게 물을 뜰어먹던 노루와 산토끼가 우리가 탄 빠스를 빠끔히 바라보며 두귀를 쫑긋 세운다. 그야말로 포화속을 달리던 그날의 전선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정말 몰라보게 변했는걸...》

아름다운 산촌의 풍경을 선명한 색조로 채색한 한쪽의 그림을 감상하는듯한 무아경에 취한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때 빠스를 몰고가던(나는 운전수의 옆좌석에 앉아 있다.) 젊은 운전수가 호기심이 실린 역실한 눈길로 돌아보더니 넋지시 묻는 것이었다.

《아바인 그전날 이 길로 다녀보신적이 있는 모양이구만요?》

《예, 더러 다녔지요. 그때 보던 흔적이란 조금도 찾아볼수가 없군...》

나는 여전히 넓게 펼쳐진 령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대답했다.

그러자 젊은 운전수는 자랑기가 담긴 어조로 말문을 터놓는 것이었다.

《이곳 도로시설대를 책임진 로력영웅동무가 발

기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답니다. 강옥희라구 일전에 강원도일보에도 큼직하게 실렸답니다.》

《강옥희? !》

어디선가 분명히 들은 이름이었다. 그러다 불현듯 한가닥 생각의 실마리가 잡혔다.

《여보, 운전사동무, 도일보에 났다는 그 기사에 혹시 그 강옥희라는 녀성이 전쟁시기 자동차운전사를 했다는 소리가 없습데?》

《있지요. 처녀운전사로 바로 이 철령고개를 넘나들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가슴은 견잡을수 없이 고개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날 내가 전선수송길에서 만났던 그 처녀운전수가 아닐가? 옳다. 그 처녀의 이름은 분명 강옥희였다! 한때 그가 로력영웅이라니...)

나의 뜨겁게 달아오르는 마음속 부르짖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의 폐구름이 아득한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전화의 그날로 즐달음쳐갔다.

×

내가 그 녀자를 처음 만났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 전선동부의 ××련합부대 운수중대에서였다.

운전사양성소를 엇그제같이 졸업하고 중대에 배치된 나는 그날 오후 소대장과 함께 차를 인계받으러 차고로 갔다. 신입운전수들이란 다 그렇겠지만 나 역시 어떤 차가 차례질가 하여 은근히 가슴을 조이였다. 아마 《인계》를 받아야 한다는걸 보아서 새 차가 아니라는것이 뻔했다. 하긴 모든것이 부족한 전쟁시기에 그것도 나같은 헛내기운전수한테 대뜸 향긋한 에나멜냄새가 풍기는 새 차를 줄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까짓것 아무 차면 어떠랴. 그저 고장만 없이 뺏는대로 썩썩 달리면 되는거지...

나의 욕망은 어서빨리 차를 몰아 전선으로 가는 것이었다. 땅거미가 조심히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 차고앞으로 걸어가는데 눅눅한 바람결에 실려 녀자의 청맑은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나는 귀가 솔깃해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군복소매를 팔굽까지 걷어붙이고 중사견장을 단 처녀가 자동차기관부를 정성들어 닥달질하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내앞에서 걷던 소대장이 돌아보며 넌지시 귀뺨을 해주는것이였다.

《수철동무에게 차를 인계해줄 강옥희동무요. 이번 상부의 소환에 의하여 대학으로 가게 되요.》

《운수중대에 처녀운전수도 있었습니까?》

나는 호기심이 부쩍 생겨서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 않구. 저 옥희동무가 운전수가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소. 하여간 저 동무한테 인계를 잘 받소.》

나는 소대장의 말을 듣자 더욱 야릇한 호기심에 이끌려 처녀를 눈여겨 바라보았다.

아련하게 생긴 해맑은 얼굴이며 호리호리한 몸매에 군복밑으로 윤기흐르는 머리카락이 굽이쳐 내리고 다림발이 뿔뿔하게 선 아래우가 맞달린 곤청색 운전수복을 땀시나게 조여입은 처녀의 자태는 운전수라기보다 처녀운전수의 분장을 한 여배우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 무슨 이유로 운전수가 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은 차정비에 원심을 쓰기보다 손거울에 자기 얼굴을 더 자주 비쳐볼듯싶었다.

키가 그닥 큰편이 못되는 나는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슬쩍 살구기까지 하면서 틀지게 처녀앞으로 다가갔다. 한것은 대학소환장을 받았다는 기분에 들뜬 처녀가 나를 애승이로 알잡아보는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때문이다.

소대장이 나를 소개하자 옥희는 기쁨문은 손을 뒤로 감추며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찬찬히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차가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군요. 인계사업은 1211고지까지 가면서 하지요.》

처녀의 의외의 말에 나는 사뭇 놀라서 떠듬거렸다.

《아니 대학으로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옥희의 그윽한 눈가에는 얇은 미소가 자리를 폈다.

《꼭 갔다가 올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더구나 그곳 동무들과 각별인사도 하고 갈겸 해서요...》

《... ?》

준엄한 전쟁이라는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대학으로 소환되여가면서 그 무슨 사정이요, 작별 인사요 하고 전방에 다녀오겠다는 그의 말이 어

쩐지 귀에 거슬렸다. 더우기 차인제는 제창 그자리에서 하면 되겠는데 가면서 하자고 늦잡는것은 또 무엇인가? 나를 애승이 헛내기로 치부하고 못미더워하는 모양이였다. 그런데다가 소대장까지 맞장구를 치며 그의 손목을 잡아주는것이였다.

《옥희동무, 그럼 주의해서 약속한 날자에 꼭 돌아오시오!》

그러자 처녀는 《알았습니다!》 하고 구두뒤발꿈치를 소리나게 마주치며 경쾌히 경례를 했다.

이윽고 소대장은 등실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나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말했다.

《그럼 중사동무와 함께 동행하면서 인계를 정확히 받소. 수철동무가 자동차양성소를 나왔다고지만 아마 옥희동무한테 배울점이 많을거요. 동무의 첫수송길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오.》

소대장은 거울진 손으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아흔들더니 자리를 폈다.

내가 더수기를 쏴며 시답지 않은 눈길을 옥희쪽으로 던지자 그는 단아한 얼굴에 불우물을 살짝짓더니 떠보듯이 묻는것이였다.

《수철동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되어 전선에 탄원했나요?》

했으나 나는 자존심이 꿈틀거리려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

이건 첫 대면부터 무슨 시험인가? 하긴 나보다 나이도 우인데다가 상급이니까 그럴만도 할테지. 그러나 형에 대한 사연은 내비치고싶지 않았다.

한데 그는 알잡아보듯 한술 더 뜨는것이였다.

《아마 전선길이 처음이겠지요?》

나는 대답대신 눈길을 돌려 먼산을 쳐다보았다.

전선길이 처음이면 어떻단말인가? 아무리 초행길인들 사내대장부가 처녀운전사한테 일일이 물어서 같것 같은가? 나도 양성소에서 전선길지형에 대해 손금보듯 배우고 나왔다는걸 모르는 모양이지 ...

나는 배심이 든든해서 옥희쪽은 돌아보지도 않은채 어깨를 잔뜩 살구고 시룻이 자동차를 검사해보기 시작했다.

첫 눈에 벌써 자체 어디라 없이 파편과 기총탄알 자리들을 메꾼 흔적들이 무수히 보였다. 아마 《전선세례》를 톡톡히 받은 모양이다. 그러나 운전수들은 그 흔적들을 오히려 그 무슨 위훈의 표징처럼 자랑한다지 않는가!

이윽고 적재함안을 넘겨다보니 가득일을 꽂은 위장그물밑에 탄약상자들과 함께 말뚝뭉음이 실려있었다. 한메터가량 되는 말뚝들에는 흰 뽕끼칠을 했다.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자고 실있

을가?

나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차바퀴를 발로 쿵쿵 울려보고는 운전칸으로 올라갔다. 순간 녀성 특유의 향긋한 화장품냄새가 코구멍을 간지럽히는 것이어서 저도 모르게 코김을 내뿜었다. 운전칸 안을 살피던 나의 눈은 화등산처럼 둥그래졌다. 안창에는 깨끗한 꽃방석이 깔렸고 승용차에나 어울릴 썩털로 만든 먼지털개며 방금 꺾어온듯싶은 청초한 연보라빛 들국화송이가 꽃혀있는것이 녀성적이었다. 나는 시험삼아 경적나팔도 뽕-뽕-울려보았으며 발동을 걸고 운전대가 만문한지 이리저리 돌렸으나 괜찮은것 같았다. 차판리는 칸지게 해놓았지만 시창옆에 꽃힌 들국화송이가 어쩐지 눈에 거슬렸다. 포연과 불구름을 헤쳐가야 할 전선길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애뜻하고 짜릿한 향수를 자아낼뿐이었다.

역시 처녀이니까... 혹시 1211고지에 작별의 꽃송이라도 안겨줄 애인이 있는것이 아닐까?. 옮지 아까 그가 전선에 가서 작별인사를 나눌 동무가있다고 했지? 포화속에서 남몰래 꽃피웠을 사랑의 작별이라... ? !

내가 코날개를 벌름거리는데 이마전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힌 강옥희가 다가왔다.

《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가 붓초리같이 긴 속눈썹밑에서 명랑하게 반짝이는 정겨운 눈매로 나를 보며 생긋 웃는데 룽팍이 선명하게 그려진 입술사이로 하얀 이가 가지런히 드러나는것이였다.

《쫄쫄하군요...》

내가 급수높은 운전수처럼 우정 틀지게 대답하자 그는 운전칸으로 나를 앞세우며 말했다.

《그렇다면 떠나볼가요? 운전대는 제가 잡겠으니 옆에 앉아 한번 눈에 익히랴요.》

나는 금시 자존심이 꿈틀거리 통명스럽게 내뻗으며 운전대좌석에 올라앉았다.

《제가 몰테니 걱정마십시오!》

《아이참...》

강옥희는 사려깊은 눈매로 내 얼굴을 돌아보더니 말없이 옆자리에 앉는것이였다.

이윽고 나는 느닷없이 뒤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다잡으며 발동을 걸었다.

그날따라 달도 없는 밤이어서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캄캄했다. 가을밤의 서늘한 미풍이 열어놓은 차창안으로 달작지근한 들꽃향기를 끼얹곤 했다.

길우를 길게 비치는 두줄기의 전조등불빛에 아지 부러진 가로수들이며 거뭇하게 파헤쳐진 폭탄구덩이들이 드러났다. 나의 가슴은 까닭없이 울

렁울렁 뿔뿔였다. 얼마나 달리고싶던 전선길인가!

형님! 이 수철이가 오늘은 형님의 뒤를 이어달리고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는 나의 가슴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알찌근해졌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나는 형의 각근한 보살핌속에서 자라났다. 일제시기 왜놈운전사의 목탄차조수로 매질과 천대를 당하며 일해오던 형은 해방후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어엿한 모범운전수의 영예를 지닐수가 있었다.

형이 일이 바빠서 간혹 집에 오지 못하는 날이면 나는 밥을 싸들고 형네 운수직장으로 찾아가 군하였는데 그때마다 나는 형의 일손을 도와 차정비를 해보았으며 조수격이 되어 운전술을 익히면서 함께 운행길에 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던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형님은 누구보다 먼저 인민군대에 탄원했고 전선에서 자동차운전수로 미국놈들과 싸웠다. 형님은 두번인가 편지를 보내왔다. 세번째로 온 소식-그것은 비보였다. 포탄을 싣고 전선동부 1211고지로 운행하던중 철령근방에서 미국놈들의 비행기습격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했다는것이였다. ...

이처럼 형님의 원한을 안고 전선에 나온 나의 가슴은 남다른 흥분으로 설레이었다.

기어이 놈들한테 형의 피값을 받아내고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나는 운전대를 틀어잡으며 입술을 감쳐물었다.

이윽고 좀 평탄한 길에 차가 들어서자 나는 보란듯이 담배를 붙여물고 한손으로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했다. 우정 소매를 걷어올린 실한 팔뚝에는 근육이 불끈불끈 살아올랐다. 입대하기 위하여 매일처럼 아령과 평행봉에 매달려 굳힌 팔뚝이다. 어렸을 때 형이 늘 그렇게 하는것을 보아왔다. 자동차의 시동걸개를 한손으로 팽이돌리듯 할수 있도록 팔힘을 키워야 운전수의 지도를 갖추는다고 해서였다.

으쓱한채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속도를 높이는데 뜻밖에 옥희의 맵짠 목소리가 벌쏘듯 귀청을 따끔하게 찔렀다.

《운전중에 담배를 피우면 집중력이 산만해집니다.》

나는 엉겁결에 물었던 담배를 차창밖으로 훌뻗어 버렸다. 차창밖 어둡속으로 빨간 불씨가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졌다. 그한테 보기 좋게 꿀을 먹은것만 같아 어지간히 심기가 뒤틀렸다.

다시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리라고 마음의 양개를 조이며 밋밋한 고산등관길을 달리고있는데

맞은편 산등의 항공감시초소에서 공습신호의 날카로운 총성이 야음을 찢었다. 옥희가 불을 끄라고 다급히 웨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재빨리 전조등을 죽였다. 순간 먹물을 뿌린듯한 어둠앞에 당황한 나는 차속도를 늦추며 허둥거리었다.

《운전대를 이리 내요. 속도를 늦춰선 안돼요.》

옥희가 무작정 나를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더니 다시 속도를 높이며 능란한 솜씨로 차를 모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금시 그 어떤 생명체로 변한듯 그에게 고분히 순종하면서 어둠속을 주름잡아 쏜살같이 미끄러져나가는 것이었다. 켄해진 눈으로 그광경을 바라보던 나의 머리에는 언젠가 양성소에서 능숙한 운전수들이란 눈을 싸매고도 힘든 령길을 거침없이 달리든가, 도로에 떨어진 바늘을 타고넘을 때 미세한 차바퀴의 《축감》마저 느낄줄 알아야 한다면 교관의 말이 불현듯 되살아났다. 그러고보면 이 처녀운전수야말로 야시경같은 《눈》만이 아니라 예민한 육감으로 차를 모는 것이 아닐가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어서 처음에 가졌던 제판의 자존심이 비맞은 흙무지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해말쑥한 외모와는 달리 만만치 않을듯싶었다.

한동안 적기의 폭격소리가 산너머쪽에서 지동치듯 울리다가 뜸해졌다. 이윽고 적기가 사라졌을 때에야 옥희는 전조등을 켜더니 운전대를 다시 나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말없이 차를 몰아갔다.

얼마쯤 지나서 폭격에 마사진 다리를 복구하느라고 개울물속에서 뿔뿔이 찢어놓은 사람들의 모습이 전조등불빛에 드러났다. 이때 무명적삼을 입은 키다리청년이 손을 흔들며 마주 달려왔다.

《무슨 일이요?》

나는 급제동한 차문을 열어제끼고 소리쳤다.

《방금 놈들의 폭격에 다리가 마사졌습니다. 우리 마을농민들이 복구하는중인데 조심히 건너가십시오!》

물참봉이 된 그는 이렇게 웨치더니 다시 개울물속으로 침범 뛰어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깨성을 쌓고 다리를 역세게 떠받들지 않는가!

그 광경에 그만 가슴이 찢터해진 나는 운전대를 틀어쥔채 어찌할바를 몰라 잠시 망설이였다.

《마음놓고 모세요!》

옥희가 명령하듯 한마디 던지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어깨도 들이대는 것이었다.

《뭘 하세요?》

옥희의 야무진 목소리가 다시 울려서야 나는 입술을 감쳐문채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체가 움썽움썽 들쭉대며 다리목을 넘어갈 때마다 나는

마치 그들의 잔등우로 차를 물고가는것만 같아 심장이 옥죄여드는것만 같았다.

더구나 허리까지 치는 물속에 몸을 잠근채 다리목을 떠받들고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그가운데서도 옥희의 령통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나는 목밑으로 그들먹히 고여오르는 뜨거운것을 연신 삼키였다. 차가 다리를 다 건너섰을 때에야 나는 얼굴과 목덜미로 줄줄이 흘러내리는 땀줄기를 닦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옥희를 둘러싸고 마을농민들이 다가왔다.

《수고들 했습니다.》

내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그들은 일담배와 노란 감들이 담긴 마대자루를 내밀며 한마디씩 당부하는 것이었다.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대동무들에게 약소하나마 이것들을 전해주우다.》

《미국놈들을 씨알머리없이 족쳐주게. 이제 가을걷이를 끝내면 한짐씩 지고 찾아가겠네.》

중구난방으로 던지는 그들의 목소리에 가슴 후더워진 나는 지성어린 마대자루를 받아서 적재함에 실으며 꼭 전해주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흰수염발이 길게 드리운 한 로인이 조끼주머니에서 부시돌쌈지를 꺼내들며 말했다.

《아마 거기선 성냥이 바를거네...》

그것을 받아진 나는 목이 메여 눈만 습벅거렸다. 또 한패의 처녀들은 저저마다 옥희한테 무엇인가 쥐여주며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탄약상자가 실린 적재함의 한구석에는 뜻하지 않은 원호물자가 가득했다.

그들은 차가 산굽이를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손저어 배웅하였다.

나는 흐려지는 눈길을 그들에게서 땔수가 없었다. 내가 전선으로 나올 때도 우리 마을사람들과 학교선생님들이랑 학급동무들이 저렇게 손저어 배웅해주지 않았던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지날 때마다 길가에 나와서 무엇인가 전하지요...》

옥희가 갈린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첫 수송길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자꾸 후더워왔다.

옥희는 물기가 화락한 군복소매를 쥐여짜고있었다.

《웃이 꼭 젖었군요. 제 군복상의라도 걸치지요.》

내가 그를 돌아보며 말하자 처녀는

《한눈 팔지 말고 시창일을 주시해요!》

하고 경고하였다.

너무나 야멸찬 소리에 내가 일머름해서 그를 쳐다보는 순간 처녀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운전대를 잡아트는것이였다. 그러자 차머리는 물웅덩이를 에돌아 기우뚱거리며 질주했다.

금시 나의 등골에서 땀줄기가 쭉 흘렀다.

하마트면 물웅덩이를 못본채 내몰다가 차스프링을 꺾어먹을뻔했던것이다.

《적재함에 실은 짐무게가 얼마인줄 알아요?》

그가 느닷없이 묻는 말에 나는 그만 멍해졌다.

짐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고 싶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알수 있단말인가?

내가 종시 답변을 못하자 처녀편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방금 농민들이 준 원호물자를 합해서 2톤 100키로그램이야요.》

그가 귀신처럼 아는것을 보아서 혹시 짐계량기라도 붙어있는가싶어 속도계관 주변을 두릿두릿 살폈다. 허나 그런것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운전수는 그쯤간건 육감으로 알아야 해요. 수송도중 탄약상자가 떨어지든가, 운전수 몰래 낮모를 행인이 적재함에 슬쩍 오르더라도 인차 느껴야해요.》

불시에 나의 낮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화끈 달아올랐다. 처녀한테 여지없이 한풀 더 먹은셈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사내대장부의 자존심은 잦아들고 더욱 돋보이는 처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이렇게 물었다.

《중사동무는 어떻게 되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까?》

하고 짝듯이 존칭을 붙였다.

《그건 왜 물어요?》 하고 그는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것이였다

《소대장동무가 무슨 사연이 있다구 얼핏 말하던생각이 나서요…》

그러자 옥희의 눈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더니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하긴 그래요… 저의 고향은 저 철령길밑에 있는 산촌마을이었는데 학교가 멀다보니 줄창 이길로 오고가는 고마운 운전수동무들의 신세를 지며 자동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고장 태생이로구만요.》

《그래요. 나는 어쩐지 자동차운전에 남다른 호감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오갈 때마다 운전법을 눈에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한 친절한 운전수동무에게 떼를 쓰다싶이 해서 내손으로 차를 몰아보다가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조등까지 깨먹었지요. 허나 그 친절한 운전수

동무는 탓할 대신에 나더러 앞으로 훌륭한 너자 운전사가 되라면서 나를 만날 때마다 운전법을 가르쳐주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던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우리 마을처녀들은 놈들의 폭격에 파헤쳐진 길을 매꾸주기도 하고 달없는 캄캄한 밤이면 흰저고리를 입고 철령길에 주련이 늘어서서 전선으로 가는 기계화부대와 군용차들을 배웅해주곤하였어요.》

《아니 하필 밤중에 흰옷은 왜 입었습니까?》

내가 그의 말머리를 꺾으며 의아한 눈길을 치프자 옥희는 상냥히 웃었다.

《적기들이 나타나면 운전수들이 전조등을 끈채 흰옷을 입고 길옆에 늘어진 저희들의 모습을 가늠하며 차를 몰았으니까요…》

《그것참 묘한걸요…》

하고 나는 무릎을 철썩 치며 탄성을 터뜨렸다. 옥희는 동안뜨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어요. 탄약상자를 만재하고 달리던 한 자동차를 발견한 적기가 조명탄을 걸어놓고 기총사격과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만 자동차에 불이 달렸어요. 그 순간 나는 자동차를 따라 달려갔어요. 그때 운전수는 탄약상자에 달린 불을 끄느라고 자기 몸에 불이 달린 줄도 모르고 덤벼치고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운전수의 모습은 누군지 알아볼수조차 없더군요. 나는 그를 향하여 어서 뛰어나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운전수는 마지막 탄약상자의 불까지 끄고서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심한 화상을 입어 잘 가려볼수 없었어요. 참 그때 그곳이 바로 여기 철령이랍니다.》 하고 그는 말머리를 돌리더니 차창밖을 눈짓해보였다.

때마침 자동차는 숨가쁜 소리를 지르며 철령을 뚫아오르고있었다. 내가 자동차양성소에서 눈에 익혔던 전선수송길지형도에 의하면 철령길은 가장 위험한 《쏘구역》이였다. 그것은 전선 동부와 중부

로 통하는 수송로가 이 험한 령길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적기들이 밤낮 불어서 지랄을 부린다는 것이다.

하기에 나는 주의력을 바짝 집중하고 시창앞을 주시하면서 차를 조심히 돌기 시작했다.

오르면서 몇십리 내리면서 몇십리나 된다는 수십굽이의 험한 철령길! 아득한 끝짜기밑 어디선가 계곡의 물소리가 산정을 뒤흔들었다.

자동차가 산굽이를 감돌며 더 높이 오를수록 끝을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안개발이 시창을 흐려놓았고 전조등불빛도 안개층에 부딪쳐 흩어지

는듯싶었다. 굽인돌이에서 운전대들 자칫 잘못
들다가는 천길나락 심연속으로 굴러떨어질것 같
은 공포감이 불쑥 치밀었다. 한데 차가 굽인돌이
를 돌아설 때 무엇인가 희끗희끗한것이 보였다.
자세히 눈여겨보니 흰길을 해세운 말뚝들이다.
순간 나의 눈에는 그 말뚝들이 달없는 야밤에 흰
옷을 입고 남진하는 자동차들을 바래주며 령길에
서있던 그날의 옥회를 비롯한 이곳 처녀들의 모
습으로 방불하게 안겨왔다. 그와 함께 오늘 적재
함에 옥회가 실어놓은 말뚝묶음이 상기되었다.

그렇다면 저 말뚝들은 옥회동무가 이 령길을
오갈 때마다 정성들여 박아놓은것이 아닐까?

나는 가슴이 뭉클하여 흐릿한 시야로 안겨오는
말뚝을 더듬으며 차를 몰았다. 차가 령길우에
거진 올라서니 말뚝들이 부러져나가거나 폭탄에
파헤쳐진 자리가 듦성듬성 눈에 띄었다.

《차를 좀 세우세요.》 하고 옥회가 나직하나 명
료한 목소리로 말하자 나는 차를 길녘에 멈추었
다. 옥회는 다람쥐처럼 날파람있게 적재함으로
올라가더니 말뚝과 삽이며 곡괭이를 안고 내려와
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일전에 오면서 보니까 놈들의 폭격에 말뚝들
이 일부 없어졌더군요.》

그의 말에 감심한 나는 말없이 일손을 도와나
섰다. 이윽고 그가 잡은 말뚝머리를 세판게 내리
박을 때 불뭉치같이 후더운것이 나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듯싶었다.

령길에 말뚝 몇개 뿔힌것이 무엇이길래 소환장
까지 받고 후방으로 떠나야 할 몸으로 다시 전선
길을 따라온단말인가! 그래서 전선길로 오면서
인계하자고 한것이 아닐까... ? !

말뚝을 다 박고났을 때 옥회는 흠어져내려온
앞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올리며 정찬 눈매로
령길밧을 굽어보는것이였다. 우리가 잠간 차를
세우고 말뚝을 박는 사이에 술한 차들이 꼬리를
물고 령으로 오르고있었다. 굽이굽이 령길을 따
라 라선형으로 이어진 한줄기의 불빛흐름! 그것
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대로 내려앉은듯싶
었다.

지금 이 순간 옥회는 즐기찬 그 불빛흐름속에
서 방금전에 나에게 이야기하던 잊지 못할 한 운
전수의 모습을 더듬어보는듯 주연한 눈길은 가늘
게 떨리고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마저 듣고싶은 생각에 년
지시 입을 열었다.

《잠시 차기관부도 식힐겸 여기서 그 이야기나
마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옥회는 삽과 곡괭이를 적재함에 올려놓

고나서 말뚝지를 다시 떼었다.

《제가 쓰러진 그 동무를 마구 흔들자 겨우 의
식은 차렸으나 두눈에 화상을 입었는지 앞을 보
지못하더군요. 그를 찬찬히 눈여겨보던 나는 그
만 소스라치듯 놀랐어요. 글썽 언젠가 나한테 운
전법을 친절히 가르쳐주던 그 운전수동무가 아니
겠어요. 나는 그만 가슴이 찢기는듯해서 울먹이
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저를 모르겠나요? 운전법을 익혀주던 옥회에
요.> 그 말에 그 동무는 얼굴에 반색을 지으며
나의 손목을 덥석 잡아쥐더니 그렇다면 자기를
운전칸으로 좀 데려다달라고 간청하더군요. 저는
그를 부축하고 운전칸으로 갔어요. 한데 뜻밖에도
앞도보지 못하고 운신조차 할수 없는 그런 몸
으로 운전대를 간신히 틀어잡더니 발동을 거는것
이 아니겠어요.

<안돼요, 그런 몸으로 어떻게 차를 몰아요?
...>

나는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가슴가득 차올
라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며 황급히 만류했어요.

<옥회동무! 그러나 지금 전선에서는 무기와 탄
약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소! 그럼 다시 만나지요.
>

하더니 걸잡을 사이도 없이 차를 앞으로 몰아
가는것이였어요. 그런데 의외에도 밤마다 전조등
을 끄고 수없이 오가며 온몸으로 익혀왔던 길이
여서인지 화상당한 눈을 가지고 거침없이 차를
몰지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그자리에서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허둥지둥 뒤
쫓아달리기 시작했어요. 목에 겨불냄새가 나도록
아무리소리쳤으나 그냥 가더군요. 한데 얼마 지
나지 않아서 차가 서서히 멎어서질 않겠어요. 정
신없이 달려가 운전칸문을 열고 보니 그 동무가
운전대를 틀어잡은채 쓰러져있더군요. 내가 안타
까이 흔들며 소리쳐부르자 스르르 눈을 뜨더군
요.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듯 자기는 마지막같으니
차를 다른 운전수한테 꼭 인계해달라면서 품속을
더듬어 피에 젖은 수첩을 꺼내들고는 여기엔 지
난날부터 장군님을 따라 싸워온 항일투사인 자기
네 련대장동지가 그려주었던 전선수송의 로정도가
있으니 자기 대신 꼭 차에 실은 무기와 탄약
을 보내달라구 부탁하면서 그만 최후를 마쳤답니
다. ...

피에 젖은 수첩을 받아든 순간 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을 인계받은것 같은 승
엄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것을 어느 운전수한테
인계해줄것인가 망설이다 못해 나는 바로 내

자신이 인계받을것을 결심했어요. 것처럼 성스러운 길을 이어가는것이 우리모두의 숭고한 공민적 의무감으로 뜨겁게 자각되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길로 소중한 수첩을 가슴속에 품고 군대에 입대하여 운전수로 복무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옥희는 품속을 더듬더니 수전에 정히 쓴것을 내앞에 내밀면서 말했다.

《바로 그 수첩이에요. 인계를 완전히 마칠 때 주라고 했는데 말이 났던김에 받으세요.》

순간 나는 후덥게 달아오르는 가슴을 들먹이며 수첩을 두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였다.

옥희가 전지불을 켜서 비쳐주기에 나는 조심히 수첩갈피를 번지였다. 두툼한 수첩의 갈피마다에는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 운전조작법과 고장퇴치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전방으로 가는 전선길의 넓이와 지층도, 항공감시초소, 적기공습에 주의할 《쏘구역》의 지명들, 다리, 산비탈길, 차대피장소들, 뺑각기에 넣을수 있는 우물과 강이름, 차수리소, 속도제한 구간과 경적신호 구간, 도중에 숙식할수 있는 마을이름 등 빠진것 없이 깨알처럼 적혀있다.

그 수첩만 펼치면 누구나 초행길이어도 무사히 갈수 있는 길잡이 《리성표》였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장에는 《승리의 그날을 앞당길 전선길이어!》라는 글발이 씌여있었다.

뜨거운 눈길로 수첩장들을 더듬고나서 나는 저도 모르게 흐릿해진 두눈을 습벅거리며 수첩을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이때 삿갓봉 항공감시소에서 빨간 예광탄과 함께 야무진 총성이 공습신호를 알리었다.

그뒤를 이어 령길을 오르던 모든 자동차의 전조등빛이 약속이나 한듯이 삼시에 꺼져버렸다.

그것은 마치 극장에서 총배전반스위치로 일체조명등을 암전시키는것과 같은 때를 련상시켰다.

했으나 불을 끈 차들은 령길가에 주련이 박힌 흰 표말뚝을 일별하며 끊임없이 흘러오고있었다.

이윽고 적기들이 하늘을 썰며 날아오는 소리가 웅글게 대기를 진동시켰다. 나와 옥희는 불안한 눈길로 상공을 더듬었다.

《쌍발기로군요.》

옥희가 귀전에 손바닥을 가져다대며 소곤거렸다.

놈들이 어방집작으로 조명탄을 매달면 어쩌라 싶어 나의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어디에 대피할곳도 없는 령길우에 우리 차가 서있는것이였다. 더구나 우리 차는 물론이거니와 저기 뒤따라오르는 술한 차들에는 전선으로 보내야 할 귀중한 탄약과 연유며 원호물자들이 가득가득 실려

있을것이였다. 불현듯 나의 뇌리에는 방금전 옥희가 들려주던 이야기의 한장면이 스쳐지났다. 적재함에실은 탄약에 불이 달리면 저 수많은 차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상공을 쏘아보는 옥희의 눈에서도 초조하고 비장한 빛이 내뿜는듯싶었다.

(내가 차를 몰아 적기를 유인해볼까!)

나는 피지게 입술을 깨물며 운전칸쪽으로 다급히 걸어갔다. 이때 옥희의 엄한 목소리가 귀전에서 울렸다.

《어쩌자는거예요?》

《제가 차를...》

《동문 안돼요. 위험하니 뒤차를 타고 오세요. 북한강다리목에서 기다리겠어요.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이 차만은... 그럼 다시 만나자요.》

그는 말릴 사이도 없이 운전칸으로 뛰어올랐다.

그다음 일부터 전조등불빛을 몇번 꺾벼거리더니 자동차를 가속도로 질주시켰다. 그러나 나는 혼자떨어지고싶지 않아서 재빨리 몸을 날려 적재함에 뛰어올랐다. 그 순간 적기가 우리 차의 불빛에 유인되어 뒤따라 내려쬐히면서 물줄기를 뿜어댔다.

뒤이어 기총탄이 귀뿌리를 스쳤고 줄폭탄이 불기둥을 일으키며 량좌우에 솟아올랐다. 매캐한 화약내와 무서운 폭음속에 자동차는 팽만하는 난바다우의 쪽배처럼 몸부림치며 달렸다.

했으나 폭음을 짓누르듯 운전칸에서는 옥희의 청맑은 노래소리가 울렸다.

...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길아닌 길을 찾아 포탄을 실은 차를 전선으로 아마 옥희는 지금 지난날 여기 령길에서 목격했던 그 운전사의 억센 모습을 상기하며 저렇듯 용감하게 차를 몰고있는것이리라.

적기는 악에 받쳐 련속 기총소사와 줄폭탄을 퍼부어댔다. 그러자 나는 탄약상자들 온몸으로 끌어안고 었다. 폭풍! 화염! 자동차는 한길이나 뛰어올랐다가 떨어졌고 길은 화약내에 숨이 콕콕박히였으며 눈은 바늘땀으로 찌르듯이 쓰러났다. 이때 갑자기 자동차가 방향을 못잡고 갈지자를 그리며 기우뚱거렸다.

혹시 적탄에 맞아 차에 무슨 고장이 생긴것이 나 아닐까? 아니면 옥희동무가 부상을 입든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저미었다. 내가 운전칸뒤로 기여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다시 중심을 잡더니 곧추 달렸다. 순간 내 입에서는 안도의 숨이새어나왔다. 이때 사방에서 적기를 향하여

고사포들이 물사격을 시작했다. 부채살모이듯하는 불줄기들이 밤하늘을 누벼댔다. 그러자 적기 한대가물을 내뿜으며 북한강쪽으로 곤두박질했으며 나머지 놈들은 포화력에 질겁해서 쫓지를 사렸다.

나는 그제야 적재함을 타고넘어서 운전칸으로 내려갔다.

《날쌔던데요...》

옥희는 이미 내가 적재함뒤로 올랐던것을 알고 있었던지 내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차는 아직 인계해주지도 않은채 혼자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부는 소리를 하자 옥희는 불우물을 지으며 생긋 웃었다.

《아이참, 혹시 동무까지 잘못되면 탄약과 원호물자는 누가 전선으로 가져가겠어요?》

《예? 그래서 저를... ? !》

무엇인가 불몽치같이 뜨거운것이 목덜을 콕 치받으며 웅쳤던것을 봄눈독이듯했다.

나는 물기에 젖어드는 눈길로 그 처녀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련하게만 보이던 그에 대한 인상은 가뭇없이 사라지면서 불같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용감하고 다심한 녀전사로 더욱 돋보이였다.

어느덧 시창너머로 떠오리같은 북한강줄기가 어렴풋이 바라보이였다. 옥희는 차를 세우더니 우리가 넘어온 길 령길을 돌아보는것이였다.

나도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조등을 다시 켜 자동차대렬이 높은 령길을 에돌며 꼬리를 물고 기세 좋게 내려오고있었다.

옥희가 불구름을 누비며 헤쳐준 그 길로 끊임없이 내리는 장쾌한 불빛흐름을 대하는 나의 가슴은 느닷없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나는 옥희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마에 구슬처럼 맺힌 땀기를 손수건으로 씻으며 무사히 내려오는 자동차의 불빛흐름을 고즈넉이 바라보는 처녀의 눈에도 이름할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의 불꽃이 반짝이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안장밑에서 고무로 만든 물주머니를 꺼내들었다.

그때 나의 머리에는 그가 준 수첩에서 보았던 철령을 내리면 북한강에서 팽각수를 기관부에 넣어야 한다고 써있던것이 얼핏 떠올랐다. 나는 그의 손에서 물주머니를 빼앗아들자 재빨리 강가로 달려갔다. 키높이 자란 억새풀을 헤치며 한참 가노라니 물흐르는 소리가 주절주절 들렸다. 나는 기슭으로 내려가 고무주머니가 팽팽 차도록 물을채웠다. 그리고 땀과 화약연기로 끈적해진

얼굴을 씻었다. 머리가 거뜬했다. 사뭇 기분이 상쾌해진나는 물주머니를 든채 오던 길로 되돌아 걸었다. 잡관목숲에서 향긋하고 알싸한 내가 친하게 풍기였다. 얼마쯤 오는데 앞쪽에서 나무헤치는 인기척이 났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찰레나 무사이로 눈길을 돌렸다. 날씬한 몸매에 군복을 입은 녀자의 룰판이 드러났다. 눈여겨보니 그는 분명히 옥희였다. 한데 그의 손에는 들국화가 들려있었다. 운전칸에 꽂혀있던 바로 그 꽃송이였다.

옥희는 다복술이 다문다문 서있는 공지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모습을 살피던 나의 눈은 둥그래졌다. 뜻밖에도 그의 앞에 떼를 입힌 하나의 봉분이 보이지 않는가. 그는 들국화송이를 봉분앞에 정중히 놓더니 고개를 다소곳하고 목상에 잠기는것이였다. 뒤이어 입속으로 소근거리는 소리가 띠엄띠엄 바람결에 실려왔다.

《...소한되여 가는 길에 찾아왔어요... 비록 전선길을 떠나지만 저의 가슴속에 심어준 숭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않을거예요... 오늘부터 신입운전수동무가 성스러운 그 길을 이어달릴거예요.

그 동무도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인민들 모두가 그러하듯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조국을 사수할 불타는 공민적자각을 안고 이 길에 나섰으리라 믿어져요... 그럼 승리의 그날 다시 찾아뵙겠어요...》

이윽고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귀를 찍더니 차마 떨어지지 않는듯 간신히 발길을 돌렸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감쳐문제 묵묵히 걸어가 는 그의 모습이 찰레덤불과 밤하늘의 경계선을 가리웠다.

나는 아릿해지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봉분앞으로 스틱스적 다가갔다. 봉분앞에는 묘비도 세워있지가않아서 고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옥희가 들려준 그 운전수의 무덤 일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형님도 어느 전선길가에 이처럼 묻혀있으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갈마들자 가슴이 저미는듯했다. 나는 무명전사의 봉분앞에 경건히 서서 잠시 목상을 한 다음 길가로 걸어갔다.

옥희는 마치 자기의 몸에 입은 상처라도 어루만지듯이 자체의 무수히 난 파편자리를 어루쓸며 심란한 얼굴로 서있었다.

조용히 차앞으로 다가간 나는 기관부뚜껑을 열 어젖히고 고무주머니에 퍼온 물을 쏟아부었다.

열기를 풍기던 팽각수통에서 칙칙 소리를 내며 허연 김이 뿔양게 서려올랐다.

나는 운전칸으로 올라가 발동을 걸었다.
이윽고 옥희가 들어와 내옆에 앉자 조용히 그
에게 물었다.

《이제 그 묘가 저한테 이야기한 그 운전수의
묘입니까?》

옥희는 의혹이 실린 눈길로 나를 돌아보았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직 이름도 찾아주지 못했어요. 그저 길가에서
얼굴이나 익혔을뿐인걸요. 그 동무가 희생되
었을 때 증명서를 찾아보니 불에 그슬려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요… 하지만 그 동무의 숭고한 정신
만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하고싶어요.》

《… ?!》

무엇인가 나의 가슴을 훑어내리듯 찌르르해졌
다.

전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길위에 자기의 청춘
을 아낌없이 바친 이름조차 모를 한 무명전사를
그토록 못잊어하는 처녀의 마음속 열기가 나에게
도 후덥게 번져오는듯싶었다.

그 무명전사가 나의 친형이 아닌들 어쩌랴…

나는 뜨거움을 삼키며 차를 물기 시작했다. 차
는 마치 날개라도 돋힌듯 어둠속을 누비며 질풍
처럼 달렸다.

옥희는 피곤에 지쳐 쪽잠이 들었는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인채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긴 살눈썹이 살듯이 내리드리운 그윽한 눈매,
군모밑으로 차분히 드리운 찰찰한 머리카락, 경
련을 일으키듯 가볍게 떨리는 목덜미로부터 어깨
로 미끄러져내리던 나의 눈길은 그자리에 얼어붙
었다. 뜻밖에도 그의 군복어깨부위에 벌겋게 피
가 내배여있는것이 아닌가! 불현듯 나의 눈앞에
는 방금전 화염속을 뚫고 령길을 내려올 때 차가
방향을 못잡고 좌우로 기우뚱거리던 광경이 되
살아났다.

분명히 그때에 부상을 당하고도 내가 알세라
숨겼었구나!

나는 목구멍을 넘으려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쪽
잠에 든 그를 깨울세라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자 옥희가 소스라지듯 눈을 떴다.

《평지에서 왜 속도를 늦춰요?》

《저, 여기 어디에 들러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되
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의 어깨를 눈짓해보이며 대답했다.

《아이참, 약간 파편이 스쳤는걸요… 제 걱정은
말구 어서 속도를 더 높이세요. 순간도 지체해

서는 안될 그길이라는걸 아시겠지요? 날밤기전에
전선에 갔다와야 해요.》

그의 맺고끓는듯한 말에 나는 그만 떨리는 손
으로 변속기를 지그시 잡아당겼다. 나의 가슴노
리는 후더운것으로 몽클해졌다. 이제야 비로소
옥희가 소환장을 받고도 곧장 후방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마지막으로 다시 전선길에 나섰는가
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옥희를 통하여 새
롭게 받아안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채 차를 몰
던 나는 갑자기 처녀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
지는것을 발견하자 덴겁하여 차를 세웠다.

《중사동무! 정신차리십시오! 네! 중사동무!》

안타까이 흔들며 소리쳤으나 파랗게 질린 옥희
의 입에서는 아무런 응대도 없다. 그의 상처에서
는 피가 더 많이 배어나왔다. 나는 속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처매주었다. 했으나 처녀의 낮빛
은 창백하게 피기를 잃었다. 그리고 가쁜 숨결이
동안뜨게 흘러나왔다. 속수무책인 나는 그저 오
열을 삼키며 애타게 소리쳤을뿐이었다. 그럴적에
전선에서 부상병을 실고 오는 위생차가 눈에 띄
었다.

나는 문을 차고 마주달려가 차를 세웠다.

《무슨 일이에요?》

상냥하게 생긴 너군의가 얼굴을 내밀고 물었
다.

《생명이 위급한 동무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
시오!》 하고 내가 간청하자 너군의는 두말없이
옥희한테로 달려가 살펴보더니 빨리 위생차에 옮
겨실으라고 했다. 간호원들이 담가를 들고 와서
옥희를 옮겨실었다.

《군의동지! 꼭 회복시켜주십시오.》

나는 위생차를 바래주며 갈린 목소리로 부탁했
다. 그리고는 위생차가 어둠속으로 사라질 때까
지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것이 옥희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던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승리적으로 끝난 다음
내가 제대되어 여전히 자동차운전수로 일해오는
오늘까지 그 너자의 생사여부에 대해서 모르고있
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다시 찾는 이 길우에서
뜻밖에도 그의 이름을 듣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
았으랴! 당장이라도 이곳 도로시설대에 달려가
그를 만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빠스운전수가 하는 말이 그 너인도 이
번에 나처럼 인민대표단성원으로 전연구분대를
방문하기 위하여 떠났다는것이였다.

혹시 내가 방문하는 1211고지가 아닐가?

나의 가슴은 그를 다시 만나보게 될수도 있다
는 기대로 하여 건잡을수 없이 설레이었다.

그날의 《전설길》을 오늘과 같이 몰라보게 전변시킨 어제날의 수송전사 강옥희!

나는 37년만에 다시 찾는 이 길을 통하여 그 녀자가 전화의 그날에 이어 오늘까지 드림없이 걸어온 참다운 삶의 자욱을 력력히 가늠할수가 있었다.

그렇다! 내가 그날의 전선길에서 만났던 강옥

희와 같이 승고한 정신과 아름답고 뜨거운 마음들이 이 길우에 수놓아지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도 위대한 승리로 빛났으며 조국통일의 길도 앞당겨지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나의 눈앞으로는 싱그러운 가로수에 묻힌채 일매지게 뻗어간 령길이 끝없이 물결쳐오고있었다.

해빛 아롱진 창가에 서서

방금속

하늘의 달도 손에 잡힐듯

층높은 광복거리 살림집

해빛이 아롱진

창가에 서서

가슴 뿌듯하구나

앞에도 뒤에도 구름을 휘감고 일떠선

주택지구 살림집들

대도로는 뻗어 아득히 립체다리에 이어지고

록지는 푸른 호수를 끌어온듯

바라보면 저기 신기루인양

노을속에 안겨온다 푸른 하늘에

그 어떤 신비로운 커다란 백조가

흰깃을 편듯

우아하고 화려한 경기관들

서산과 량강 호텔의 눈부신 웅자들

저마다 건물이름 다르듯이

서로 다른 현대적건축미로 황홀한

수도의 건설

이는 우리 당의 의지의 구현

은하가 땅에 내린듯

밤이면 별세계를 펼치는

창광거리에 이어

조국이 또다시 그이 품에서 받아안은

광복거리...

광복거리 이는 현실로 된 우리 당의 리상

자랑차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에 따라

잡초 무성하던 들판에

첫삽 박은 그날로부터 두해가 아니라

웅근 한세기가 흘러간듯

지구도 내 조국땅에선

자기 궤도를

그이 의사에 따라

한세기 앞당겨 돌고있는듯

20세기 우리 인민을

21세기 황홀한 하늘아래로

남먼저 들어세우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광복거리로 태어났기에

여기 살림집 창문들

더 밝게 달았구나

당의 사랑의 해빛이 먼세기 앞날

그 황홀한 언덕에도 피워줄

고운 꽃송이들

이 창문에서 환히 내다보라고

우리 아이들

저들이 안겨살

그 아름다운 세기의 언덕

이 창문에서 더 밝게 내다보며

활기차게 웃으며

그 길을 정보로 걸어가라고

년대와 삶의 숨결을 두고

김종원

력사의 년대에는 그 년대에 산 사람들의 삶이 빛나고있다. 그러나 빛나는 그 년대에 살았다고 하여 누구나 다 그 년대와 숨결을 같이한 사람이라고 뿔뿔이 말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것도 없고 남겨놓는것도 없기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것입니다.》

며칠전 어느날 나는 충천한 기세로 들끓는 통일거리 건설장을 찾았었다.

발과소리, 삽질소리, 불도젤의 동음...

건설장은 그야말로 90년대의 숨결로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나는 인민군군인들이 맡은 기본도로건설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들끓는 작업장 한켠에서는 군인들이 모여서서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있었다. 예순살이 지난듯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심취된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아버지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일한 로인이였다. 그는 송림시에서 여러가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여기 통일거리 건설장을 찾아왔다한다. 바로 이러한 그가 작업실참을 타서 자기가 체험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못잇을 나날들에 대해 새 세대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그날에 살아보지 못한 새 세대 군인들로서는 그의 이야기가 전투위훈담 못지 않는것이였다. 하긴 그 정신과 기백으로 살며 싸우려는 우리 군인들이고 보면 그의 이야기에 그처럼 심취될만도 했다.

아버지는 로앞에서 지새던 밤과 당시 사람들이 품고있던 생각에 대해 생동하게 이야기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노라니 그때의 숨결이 폐부로 스며드는듯싶다. 아버지의 그 눈길에, 얼굴에 그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확연히 비친다.

잠시후 한 텔레비죤촬영가가 다가오더니 아버지를 어데론가 이끌고가는것이였다. 아마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산 아버지와 90년대전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고싶은 모양이였다.

나이에 비해 아직 정정해보이는 그 모습, 깊은 감회에 잠겨 텔레비죤촬영기앞에 선 아버지!

사람들은 한년대에 같이 살았다고 하여 혁명에 이바지한 몫이 같은것이 아니다.

불타는 50년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위훈을 창조한 그였기에 남다른 추억이 있고 느낌이 있으며 그날이 가슴에 소중히 실아있는것이 아닌가!

그날에 그들이 날과 달을 앞당겨 더 뽑아낸 강철은 극장과 살림집들, 공장의 은빛 지붕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했다. 무수한 세월은 쉬임없이 흘렀어도 그들의 숨결은 창조물의 지붕에, 행복의 창가에, 극장의 불밝은 홀마다에 깃들어있다. 그소중한것들을 보며 오늘의 세대들은 그날에 산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자고 펼쳐일어났던 강선의 로동계급들과 전후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수령님앞에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켜싸운 락원의 10명 당원들 그리고 수천리 지하막장에서, 금물결 일렁이는 협동벌에서 천리마정신으로 살며 싸워온 우리의 로세대들,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빛나는것인가.

황철의 옛 로장아바이를 바라보노라니 나의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진다. 어떤해는 가슴이 벅차도록 공지와 영예가 봄물처럼 넘쳐나기도 하고 또 어떤해는 내 인생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기억조차나지 않기도 한다.

삶의 희열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해는 기쁨속에, 행복속에 자꾸 추억해보고싶지만 기억에 없는 해를 더듬어볼 때면 자책을 금할수 없다.

그러한 해는 자기의 인생에서 숨결이 없고 심장의 박동이 없는 무의미한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빛나는 년대에 숨결을 같이하고 뛴뛰는 심장을 바쳤을 때 당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했다고 추억할수 있을것이다.

후대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시대와 력사의 갈피에 이름을 간직하는 삶, 이것이 빛나는 년대에 산 빛나는 삶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당겨올 희망찬 년대에 땀을 바치고 숨결을 주고 심장의 세찬 고동을 주자.

먼 후날 태어나는 새 세대들앞에 추억할 일들이 많게 하자. 년대를 빛낸 이 삶으로 하여 후대들앞에 뽕뽕하게 살자.

내가 90년대에 산 사람이라고!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는 인간관계의 심화와 그 해명

김성희

작년도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들 가운데는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인간의 수업》(리화, 《조선문학》, 1989. 7.), 《어제도 오늘도》(백철수, 《조선문학》, 1989. 4)와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내놓은 단편소설집 《꽃피는 계절》에 실려있는 《고향의 모습》(로정법)은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성과작들이다.

이 작품들이 거둔 성과는 생활의 논리에 맞는 인간관계의 심화와 그 해명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작가가 생활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찾아쥐었다 고하더라도 그것을 심화발전되는 생활속에서 해명할수 있는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종자는 제구실을 할수 없게 된다.

때문에 창작자들은 생활발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시키는데 많은 정력을 기울이게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취급되는 사건들과 그 사건을 발생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인간관계가 생활의 논리에 맞게 심화발전될 때라야 진실해진다.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진실하게 안겨온다는것은 작가가 내세운 사회적문제-인간생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말하며 그 해명 과정이 또한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문학은 인간관계에 대한 예술적해명이 라고도 할수 있다.

인간관계는 사회적관계이며 인간관계를 잘 맺는것은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명하는가 하는것은 작가의 자유이다.

그러나 생활의 논리에 따라 서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심화되면서 예술적인 진실성을 낼수 없는것이라면 그 인간관계는 인간학적으로 탐구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작가는 자기의 사상미학적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 《어제도 오늘도》, 《고향의 모습》에서 작가들은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인간관계를 심화시켜나가면서 그 매 계기들을 설정된 문제의 해명으로 집중시키는데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인간성격발전의 본질이 계승성이 원칙에서 확인

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해명한것이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은 이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는 배경인물들까지 합하여 14명이나 되는 인물이 나오고있다.

주인공인 총국장 채석준, 그의 아들 채정택, 석준의 안해 성희, 석준의 딸 정심이, 남동제염소작업반장 김중화, 남동제염소 노동자들인 박치화 어머니, 우치너 어머니, 의섭어머니, 양성지도원이며 사부세포위원장인 장치세, 석준의 아버지와 남조선혁명을 함께 한 류아저씨, 남동제염소 지배인안병모, 정택을 믿고 사랑하는 제염공처녀, 한순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정택을 가까이하던 기상관측소 무전수처녀, 자기 아들을 쉬운 부문에 빼돌린 기술부총국장 등 단편소설이라는 작은 양식에 비하여 지나치리만큼 많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보면 내용이 복잡하다거나 지나치게 널어놓았다거나 하는 인상은 없고 오히려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이 어제와 오늘의 뚜렷한 대조속에서 이루어지고있으며 인간들의 호상관계가 하나의 운명적인 이야기로 엮여지면서 스스럼없이 안겨온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관련되는 이러저러한 인물들을 실생활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련결시켰다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인간관계의 본질이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철저히 구현되어있음을 말해준다.

다시말하여 아버지가 혁명적으로 성장한 사회주의혁명시기의 환경과 아들이 성장하고있는 오늘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인간관계속에서 취급함으로써 혁명의 계승성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이 인간학적으로 확증되게 하였다 는것이다.

작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장선을 겹놓는 방법으로 여러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어놓고 매우 타당하게 심화발전시켜나갔다. 이것은 작가의 기교가 낳은 우수한 구성수법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보다는 오늘의 성장속에 깃든 어제날의 투쟁의 의의가 가르쳐주는 생활의 법칙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이 작품의 기본인간관계는 아버지 채석준과 아들 채정택간의 관계이다.

문학이 아닌 현실생활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간에는 뗄수 없는 인간관계가 맺어져있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인간관계는 현실속에서 흔히보게 되는 자연발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평가, 시대생활에 대한 작가의 리상에 의하여 맺어지게 되는 의의 있는 사회적관계로 되어야만 한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에서 채석준과 채정택의 관계는 부자간의 관계이면서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성장한 오랜 혁명가들과 앞으로 멀고먼 혁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라나는 새 세대들간의 관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치려는 헌신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부이다.

이 재부를 가진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학교교육이나 책을 통해서도 넘겨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그러한 정신을 가진 인간들에게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수업을 받는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작품의 주인공과 그 아들의 성장과정을 제명과 같이 《인간의 수업》으로 보았던것이다. 사회에는 여러가지 재부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를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하여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재부는 오직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만 있는 재부중의 재부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인간들의 사상적지향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지향자체가 고상하고 귀중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체득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세대가 바뀌어 새 세대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것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혁명성이다.

때문에 최근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혁명성이 없는것이 제일 가슴아픈 일이라고 심려하시면서 그 원인은 간부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문제성을 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대의 인간의 수업과 새 세대인간의 수업과정을 하나의 인간관계속에서 취급하였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인 채석준의 인간의 수업은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확증하기 위한것이라면 아들인 채정택의 인간의 수업은 어제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생활력을 밝히기 위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로동계급들인 김종화, 박치화, 우치녀, 의섭 등은 어제날 아버지를 혁명가로 자라온 인간수업의 스승들이며 오늘도 정택이와 같은 새 세대들의 변함없는 선생인것이다.

주인공 석준은 자신도 역시 새 세대 앞에 서있는 인간수업의 스승으로 되어야 하겠기에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 정택을 주저없이 자기를 키워준 로동계급속으로 돌려보내는데 있다.

이렇게 아버지의 성장과정에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그대로 아들의 성장과정에 리용되고있지만 조금도 반복되는 감이 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약간 다른것이 있다면 어제날에는 주인공 채석준이앞에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혁명가인 류아저씨를 세워놓았지만 오늘은 바로

주인공 채석준을 자기 아들 정택이앞에 세워놓은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계승성에 관한 법칙과 혁명적인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서 작가가 인간관계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심화시키고 해명해나가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인간관계를 혁명의 계승성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이 인간학적으로 확증되도록 설정하고 심화시킨 작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인 채석준은 아들앞에서 변심을 모르고 혁명을 계속해야 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립장과 자세를 보여주었을뿐아니라 혈육에 대한 사랑과 인정보다도 더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후대에 넘겨주는 참된 인간의 본보기로 독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었다.

아들인 채정택은 아버지가 보내준 인간수업의 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제염소로동계급속에서 비로소 소금과 같이 귀중한 정신적결정체를 받아안을 수 있었고 우리앞에 뚜렷이 나설 수 있었다.

결국 작가는 혁명의 전세대들이 섰던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을 나란히 세워놓음으로써 우리의 로동계급이 어떻게 자기의 대를 이어나가야 하겠는가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인하는데서 성공하였던것이다.

혁명의 계승성의 원칙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심화시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단편소설 《어제도 오늘도》 역시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수업》이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를 통해 혁명의 대를 잇는데서 견지해야 할 로동계급의 자세와 립장문제를 해명하였다면 《어제도 오늘도》는 어머니처럼 다심하고 누이처럼 살뜰한 사랑을 지닌 한 녀성로동자와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지배인과의 관계속에서 변심없이 고수되어야 할 로동계급의 헌신적량심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소설은 오랜 로동자인 허민순이 어제날 부행한 고아였던 리유갑(지배인)을 친누이가 되어 사랑하고 보살피며 키워온것처럼 오늘은 또 리유갑의 아들을 우리 시대의 당당한 로동계급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리유갑지배인의 시점에 비친 주인공 허민순은 함께 일하는 혁명동지들을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여 사랑해주고 마음껏 발전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주는 뜨거운 인간애의 소유자이다.

지배인 리유갑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고아인 자기네 오누이를 보살피며 키워준 허민순에 대하여 관심이 덜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인정적으로만 멀어진것이 아니라 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어야 할 로동계급의 혁명적량심, 고귀한 헌신성이 희미해져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하기에 유갑은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도 부락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허민순의 고결한 마음의

깊이를 알수 없었으며 허민순의 방조를 받아가며 보다 큰일을 해보려고 애쓰는 자기 아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려보지 못한다.

다만 자기네 오누이를 키워 누이는 시집을 보내고 자기는 학교에 보내어 지배인으로까지 자라도록 돌보아주었을뿐아니라 오늘은 자기의 애틋한 아들까지 기대수리공으로 받아들여 보살펴주는데 대해 인정적으로 고맙게 여기는것이다.

때문에 아들 동식이가 기술혁신을 한다고 하다가 공정과피를 일으켰을 때 전후사연을 알아보지도 않고 허민순이 자기의 불찰로 해서 온 사고라고 용서를 비는데도 불구하고 채벌로동을 시키는 것으로 질을 들이려고 하며 평양견학기간에 공장의 생산속도를 높일 방도를 모색하며 대학습당에 다닌 아들의 행동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유주의를 했다고 막무가내로 옥박지른다.

결국 그는 희미하게나마 인간으로서의 추억과 인정은 남아있었으나 당과 조국을 충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할 계급적량심, 높은 자각이 없는 인간으로 되여가고있었다.

그러나 허민순은 유감을 키우던 어제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유감의 아들 동식을 보살피고있으며 그의 앞날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동식의 자리에 기대수리공으로 넣고 동식을 대학에 보내려고까지 하는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있는 허민순의 깊은 마음, 로동계급만이 간직할수 있는 뜨거운 량심앞에서 바로 그 고귀한것을 바로보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으로 방조하는것으로써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고 하였던 자기자신을 발견한 유감은 뼈저린 가책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소설의 인간관계의 심화와 그해결의 목적이 지배인 리유감의 자책을 불러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 작품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고 해결하는데서 작가가 노린것은 허민순이 지닌 당에 대한 로동계급으로서의 티없는 충실성과 깨끗한 량심, 동지들을 위한 희생정신을 어떻게 하면 생활적으로 밝히겠는가 하는데 있을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의 인간관계에서 작가가 중요시한것은 동식이를 대하는 허민순과 동식의 아버지인 유감의 정신적차이이며 자신의 고귀한 량심을 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넘겨주어 대를 잇게 하려는 허민순의 고결한 정신세계이다.

다시말하여 어제도 오늘도 대를 이어 계승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희생정신을 밝히는데 작품이 거둔 주되는 성과가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 《어제도 오늘도》, 《고향의 모습》의 작가들이 인간관계의 심화와 해명에서 일치하게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정치사상적문제를 깊은 인정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도록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심화시켜나간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소설작품들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인정적인것과 정치적인것이 결합되어 나

타난다.

개인적인 인정과 당적원칙, 집단에 대한 사랑과 개인의 사랑, 조국을 위한 희생과 자기를 위한 삶...등과 같이 정치사상적문제와 인정적인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인것이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에서 아버지 채석준과 아들 채정택은 다름아닌 부자간인 까닭에 시대의요구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려고 일시 난관은 있었어도 서로 노력함으로써 더 높은 단계에서 인정적으로 굳게 결합되며 오랜 로동계급들과도 더 친숙해지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어제도 오늘도》에서도 지배인 리유감과 허민순은 오누이보다 더 자별한 인정으로 련결되어있다. 그들의 인정은 자신들을 혁명적인간으로 올려세우는데 방해로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한것으로 된다.

사실상 인정과 사랑이 없는 인간에게는 정치성도 없는 법이다.

인정과 사랑에 토대하지 않은 정치성, 사상성은 억지이다.

단편소설 《고향의 모습》의 작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랑관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결부시켜 인정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타당하게 그리기 위해 인간관계를 적중하게 설정하고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교통안전원 선희와 《자주호》운전수 두남이를 서로 사랑하게 만든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양시민으로서 원칙적인 요구에 성실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일깨워준 깨끗한 인정이다.

교통안전규정을 위반한 두남이를 단속한 선희의 원칙적인 깔끔한 태도에서, 차바퀴를 찢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기 위해 시민으로 부탁하는 선희의 호소에 개인적인 사념을 뒤로 미루고 동료운전수를 단속하도록 도와주는 두남이의 성실한 행동이 계기로 되여 그들은 점차 가까와지게되며 자기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류다른 인정이 싹트고 자라난다.

더구나 깨끗한 거리에 떨어진 담배꽂초를 주워서 종이에 싸들고 걸음을 옮기며 책을 읽는 두남이의 행동을 목격한 선희의 감정은 가깝다는 인정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번지기 시작하며 그 사랑은 나날이 불길처럼 타오른다.

두남을 보지 못한 날이면 선희는 무엇인가 잃어버린듯 허전하고 웃음이 없다. 그래서 몇번씩이나 두남이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귀중한 사랑이 자기를 떠나 순천으로 지원하여 갈 때 그는 너무 서운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깨닫고는 개인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조국과 인민의 미래와 결합된 숭고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작가는 선희와 두남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심화시켜나가면서 그 사랑을 정치성을 살리기 위한 반증물로 리용한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낭계하는 우리 제도,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만들었다.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정치성은 더 뚜렷하게 살아나는것이다.

인정과 정치성이 결합된 인간관계란 바로 이렇게 설정되고 이렇게 심화되어야 하며 그 해결 역시 이 작품에서처럼 정치적여운이 인정속에서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활의 논리에 맞는 인간관계의 심화이며 해명이다.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 《어제도 오늘도》, 《고향의 모습》의 인간관계가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심화되고 해명되게 하는데서 작가들이 보여준 다른 하나의 독창적인 측면은 인간관계를 사건을 발생발전시키기 위한 전제로서가 아니라 사상감정의 변화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바탕으로 설정하고 그심화발전의 계기를 적중하게 마련한것이다.

세편의 소설이 모두 사건줄거리는 거의 없고 서로 리해하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생활적계기들로 이루어져있다. 다시말하여 인간성격의 발전이 풍부한 생활감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고있다.

《인간의 수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인물들이 그 어떤 사건을 촉진시키는데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없으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간에 제기된 사상정신적 감정적대립을 보다 더 첨예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사실상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있다.

만약 설정된 인물들가운데서 단 한사람이라도 석준의 안해 성희처럼 아버지와 아들간에 벌어진 대립관계를 알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만들었다면 이 작품의 인간관계가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고 깊이있게 심화되지못했을것이다.

다른 인물들은 모두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그 자세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였기때문에 작품이 매우 진실하고 인상깊게 될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매 계기들은 주위인물들이 움직이는 사회환경, 노동환경에서 받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심리가 서로 부딪칠 때마다 주어지고있다. 다시말하여 작가는 합법칙적으로 작용하는 생활의 논리에 매우 충실하였다.

무관심하고 랭정한 아버지를 나무라며 술을 마시고 역증을 내는 아들의 태도,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리가 그려진 소설의 첫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작품은 무엇이 되는가, 되지않는가 하는 사건에 매여달린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람구실을 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인간문제를 두고 부단히 덧쌓이는 아버지의 고민과 심리의 변화과정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있다.

따라서 사건발전에 끼여들지 않는 매 인물들의 형상과제도 아버지와 아들의 심리에 굴절시켜 해결되고있다.

남동재업소의 다정하고 성실한 인간들의 심리도 발전적으로 굴곡시켜 그리고있는데 그것은 어제날 평범한 노동자였을 때의 석준을 대할 때와 오늘 간부로 된 석준의 아들을 대할 때와의 차이점이다. 그전날 석준을 대하는 그들의 심리는 사랑스럽고 애처롭기까지 하여 진심으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었다면 오늘 정택을 대하는 그들의 심리는 뼈투로 나가서는 안될 책임적인 일군의 아들인것으로 하여, 자기들과 함께 일한 노동계급의 아들인것으로 하여 사랑스럽고 귀중하기도 하지만 무른 인정보다도 계급적의무감과 동지적의리감이 더앞서는 심리인것이다. 때문에 정택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줄로 알았을 때는 모두 섭섭해하고 걱정스러워하며 그가 다시 돌아와 몸을 아끼지 않고 소금생산에 열중할 때에는 더없이 대견해하며 소중해한다. 그들의 이러한 심리는 아들을 옳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정신세계와 결합되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도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생활을 옳게 그릴수 있고 제기된 문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수 있다고 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하고있는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 《어제도 오늘도》, 《고향의 모습》은 우리 작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있는가.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시켜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의거해야 할 방법은 인간관계를 사건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상심리적인 관계로 줄거리의 전개수단으로 되기전에 생활발전의 원천으로 되도록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제리론을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의 새 인간학 건설에 자신의 모든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에 의하여 보다 의의있고 특색있는 인간관계들이 더 많이 태어나 우리 문단을 빛내이게 될것이다.

40 여년

신진순

갈라져 40년
국토와 함께
나의 심장
반으로 갈라져
40여년

내 심장에서 흐른
40여년의 피눈물을
세월이여
그 어디로 날라갔느냐

형제들의 선혈로 젖은
내 고향
주인없는 무덤들로
날라갔느냐
부모없는 어린것들
헤매는 방방곡곡으로...

내 심장
40여년을 찾아 피끓는
남녘땅 그 거리거리들로
날라다주었느냐?

어린것들
팔려가고 묶이어가는
험한 세상 구석구석
나 함께 마음 따라 걸으며

40여년 애꿎던 초조를
태질치는 고뇌를
날라다주었느냐

내 형제
내 혈육
그들에게로
오! 그들에게로

세월은 아득히 흘렀어도
내 가슴엔
헤어질 때 그 모습 그 얼굴들뿐
순아, 경아, 석아, 옥아...
아!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어다오, 그 어디에 살아있었다오
부디부디 살아있어다오

오!

살아서 싸워다오
너희들 살아서 싸우는
그 거리에
나 영원히 함께 있으리니
함께 싸우리니

조국통일 위하여
결사전 벌리는
투쟁의 거리거리
나 너희와 함께
언제나 있으리니

투석진 벌리며
화염병 던지며
나 함께 있으리니

혈육들아
살길 찾아
싸우는 쓰러지는
그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들, 늙은이들
그들은 모두가 나의 혈육
그들은 모두 살아남은 너희들

잡혀가고 고문장에 쓰러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
잔악무도한 그 고문장, 사형장에
나 함께 있노라

40여년 끓는 피눈물을
날라가라
통일의 싸움터로
그들의 싸움터로

달리노라
40여년을 하루같이
아픈 심장 불태워
달려가노라

통일의 광장에서
어버이수령님 뵈으신 품에
너희와 함께 안길
오! 너희와 함께 안길
그날을 믿어
오! 오!

그 시각을 한초라도 더 빨리
앞당기고저!